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현대불교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 불광사, 북한산 삼봉사, 포천 장안사, 가평 불광사 법흥사 등
웰빙온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월 12일(음력12월 3일) 수요일 (주간) 제508호

재난 속 동남아여, 희망을…





동남아시아 쓰나미 피해현장으로 직접 달려가는 종단과 개인·단체가 늘고 있으며, 모금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도 남부에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 JTS 활동가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왼쪽사진·제공=한국JTS). 오른쪽은 부산 여여선원의 목요법회에 나온 불자들이 줄지어 성금을 보시하는 모습(사진=천미희 기자).



각 종단·단체 모금 활발 '자비의 손길' 전국 달궈
의료봉사단 파견·천도재 봉행, JTS 등 현지봉사 펼쳐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각 종단 및 단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12월 5일 긴급 이사간담회를 갖고, 전 종단이 힘을 모아 모금운동과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한데 이어 자비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전국의 각 종단과 사찰및 불교계 단체들의 활동도 왕성해지고 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지난 12월 30일 KBS를 방문해 성금 1억원을 기탁한데 이어 10억원을 목표로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자비의 탁발 행진' 등을 포함한 모금활동에 돌입했다. 조계종은 1월 31일까지 전국 사찰에 특별 불전함을 설치하고 ARS 전화(060-700-0482) 개설, '동남아시아에 자비의 손길을' 등의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를 부착·배포해 성금모금을 독려키로 했다. 조계종은 동국대 의료원과 대불련 출신 의사들로 '자비의 불교의료봉사단'을 구성해 1월 중순부터 31일까지 스리랑카에 스님 2~3명과 의료진 20여명, 자원봉사단 5명 등 30여명을 파견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도 1월 5일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진행했으며, 각 종무원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12월 31일 충주MBC를 방문해 3천만원을 전달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월 31일까지 전국사찰에서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2월 31일 최용수 과장과 위덕대에 유학중인 스리랑카 실라 스님을 현지로 파견해 피해복구 성금 1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한달동안 각 심인당 별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쓰나미 피해와 관련, 직접 구호현장으로 뛰어드는 사찰과 개인, 단체가 늘고 있다.

한국JTS(대표 유수)는 12월 29일 장영주 인도JTS 사무국장, 서동우 대학생 대표, 인도인 2명을 남인도 타밀나두지역 라사베따이 섬으로 파견한데 이어 1월 5일 이덕아 아프가니스탄 JTS 소장과 12명의 한국 대학생, 인도 지바카 병원 관계자 4명, 수자타아카데미 학생 27명 등 총 44명을 현장으로 파견해 숙소짓기 및 치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JTS는 또 1월 15일 스리랑카 사르보다야 수라마다나 본부에 생활필수품 등이 담긴 20피트 컨테이너 1동을 보낼 예정이다.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효암) 스리랑카 JGO센터(지부장 아라나뜨너스님)는 파나두라 지역에서 매일 150~200여명의 식사를 인근 학교로 가져가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인천지역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외국인노동자중 연락이 닿지 않는 52가족의 소재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은 1월말 추가로 자원봉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서울 원각사 보리 스님은 연말연시 제야의등 행사시 모금한 1천만원을 들고 8일 스리랑카로 떠나 인도 콜롬보 켈라니아사원 마핸드라 스님과 콜롬보에서 120km떨어진 창갈라 지역의 사찰과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모기장과 매트, 고무호스를 전달했다.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도 열리고 있다.

부산 감로사와 참여불교운동본부는 1월 1일부터 지진, 해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한 49재를 봉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김원우·남동우 기자

"이후 일어날 모든 일은…"

지율 스님 단식 73일 넘기며 '신변 정리' 암시

지율 스님의 네번째 단식이 1월 7일 현재 73일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스님이 신변을 정리하는 듯한 글을 '천성산 홈페이지'에 올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율 스님은 1일 천성산 홈페이지에 올린 부산시교육위원회 박영관 위원의 글에 답하면서 "이후 일어날 모든 업무적인 일은 도롱뇽 소송의 법적 대리인인 이동준 변호사와 손정현님, 선생님께서 돌봐주시라"고 했다. 스님은 또 동생 조경자씨가 3일 올린 글에 대해서도 "내가 떠나면 아마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살아남은 몫을 톡톡히 하기 위해 마치 동지처럼 전사처럼 움직일 것이다"고 답했다.

지난 12월 28일 가진 본지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스님은 "단식을 하면서 만든 '초록의 공명' CD를 통해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이 마지막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도법 스님이 1월 6일 지율 스님을 찾아 건강을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율 스님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경과와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율 스님은 <시민의신문>이 선정한 2004년 최고의 시민운동가로 뽑혔다.

기사 더 자세히 buddhanews.com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새 연 재 안 내

나의 수행법 18면
원철 스님의 禪家 이야기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9면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 의학 산책 31면

현대불교 2004년 합본집 발간 <2면에 안내 사고>

'할'



그림·조태호

지관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부다피아에서 백고좌법회가 1년 내내 열린다!



buddhapia.com이 세계적인 포털로 거듭나며 이 시대의 큰 스님 100분의 생생한 동영상 법문을 보실수 있는 사이버 백고좌 대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월 12일부터 1년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지역이면 언제, 어디서나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현대불교'는 지난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함께 불교발전을 일굴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 **영구독자 혜택**
현대불교신문 영구독자에게는 평생 신문을 보내드리며, 자녀에게도 혜택을 양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 구독료** 62만5천원(일시불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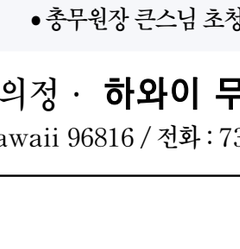
■ **구독신청 및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TEL: 직통 (02) 737-0090 / 대표 02-737-8881
FAX: (02) 737-0697

스마트폰 '아이 벗' 무료 증정

독자님들의 성원에 따라 선착순 1000명에 한하여 영구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HP rw6100 기종, 시중가 72만6천원) 아이벗(I-BUD)을 무료로 드립니다.

■ **아이벗(I-BUD) 제공조건:** 12개월 의무사용, 가입비 3만원 별도

■ **아이벗(I-BUD):**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며, BUD는 Buddha(부처), Buddy(친구)를 뜻합니다.



초대합니다

하와이 무량사 개산 30주년 · 명원 다도원 개원 · 김덕수 사물패 초청 공연



2005년 개산 30주년을 맞는 하와이 무량사는 오랜 공사 끝에 문화원을 완공하여 한국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하와이 각계인사 및 동포 여러분들을 모시고 무량사 명원 다도원 개원과 김덕수 사물패 초청공연 그리고 김경 선생 초청 한지의상 전시회 등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곳 하와이에 한국 전통양식의 큰 문화원을 세워 전시관과 다도원을 개원하고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김덕수 사물패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 한민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함이며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보내주신 하와이 동포들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와이 지역사회를 위해 무량사 문화원의 문을 활짝 열고 한국 다도의 종가 명원문화재단과 함께 다도원을 개원하여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정신을 소개하고 동포 2, 3세들에게 바른 예절, 사색하는 태도를 보여 가정의 소중함을 다같이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번 무량사 명원 다도원 개원식과 김덕수 사물패 초청 기념공연 그리고 김경 선생 초청 전시회에 동포 여러분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2005년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무량사 문화원
• 하와이 각계 인사 초청. 무량사 명원 다도원 개원
• 상설 전시관 개관. 김경 선생 초청 한지의상 전시회

▌2005년 1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무량사 문화원
• 무량사 한인 요양원 건립 축하. 김덕수 사물패 초청 비나리 공연

▌2005년 1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무량사 문화원
• 법장 총무원장 큰스님 초청. 무량사 조계종 봉납법회

▌2005년 8월 11일 ~ 14일 : 학술세미나
• 주 제 : 지역사회를 위한 종교활동 방안 • 주 최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 장 소 :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2005년 9월 24일 (토요일) • 30주년 기념 산사 음악회

▌2005년 9월 25일 (일요일)
• 무량사 한인 요양원 개원 • 하와이 싯다르타 대학 개교
• 총무원장 큰스님 초청. 개산 30주년 기념 및 문화원 준공 법회

한국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정 · 하와이 무량사 주지 권도현
주소 : 2420 Halelaau Place, Honolulu Hawaii 96816 / 전화 : 735-7858 / 팩스 : 732-6402


2005년 조계종 신년하례법회가 1월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대재앙은 삼독심결과…참회를"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신년하례서 교시

7일 해인사서

2005년 조계종 신년하례법회가 1월 7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법회에서 종정 법전 스님은 교시를 통해 "모든 불자들은 동체대자비의 마음으로 이 아픔을 극복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전 스님은 또 "이번 대재앙은 불, 물, 바람으로 인한 것이니 중생들의 삼독심인 탐욕, 미워하는 마음, 어리석음의 업보이기도 하다"며 "모든 사람들이 참회하고 마음을 맑게 닦는 계기를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포함해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본사주지회의 "동남아 지원"

한편 신년하례법회에 이어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200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의 건 △동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 지원의 건 △사찰문화재 일제 조사 안내의 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지진해일 피해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사찰문화재 일제 조사에도 협조키로 결의했다.

해인사=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2004년 합본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4년 합본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초청 대법회'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VCD를 증정합니다.

♣ 구입 안내
◈ 내용 : 2004년도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454~506호)
◈ 크기 : 신문대판 원형(40cm~55cm)
◈ 방법 : 전화 신청 / 입금확인 후 택배 발송
◈ 가격 : 80,000원 (발송비 무료)
◈ 입금구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주문 및 문의 전화 : (02)737-0090(직통) /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템플스테이 활성화 세미나

13일 불교문화사업단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이 2002년 월드컵 이후 3년 간의 사업을 진단하고,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1월 1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연다.

이날 기조발제는 현고 스님이 맡아 '템플스테이(사찰문화체험) 사업의 배경과 방향'을 고찰한다. 발제는 △템플스테이가 불교문화 대중화에 미치는 영향과 종단 시스템 구축방안-주경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여가문화 변화와 템플스테이 역할과 과제-강신겸 수석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한국 대표 전통문화체험 관광자원으로서의 템플스테이 사업 전망과 과제-나윤중 교수(동명정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등이다.

강지연 기자

'사회과학분야의…'

15일 제4차 에코포럼

동국대 에코포럼이 1월 15일 오후 2시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시스템과 상호의존성(사회과학분야)'을 주제로 제4차 정례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의 좌장은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주제 발표에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나선다. '사회과학에서 시스템과 상호의존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덕진 교수는 발제문에서 주체(개인들)의 구조적 상호의존성 사회과학적 분석기법을 동원해 설명했다. 장교수는 "행위자가 구조 속에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과 적극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구조 속 다른 행위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들의 행위나 선호는 시스템 외부가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며, 이들의 운명도 철저하게 상호의존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해 불교의 연기론적 인식체계를 사회과학적 상호의존성으로 해석했다. 조용수 기자

창건주 승계 놓고 서울 보광사 '폭력' 난무

성비스님 "법인 임명" 현중스님 "권한 위임"

5일간 4차례 공방…불교계 "강력징계를"


양측의 사찰 무력점거 와중에 무참히 깨어져버린 서울 보광사의 기와들.

재단법인 선학원 사찰인 서울 보광사에서 창건주 승계 문제를 둘러싸고 법인으로부터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성비 스님(문도회) 측과 정일 스님으로부터 창건주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현중 스님 측 간에 사찰을 서로 뺏고 빼앗기는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선학원 이사장이자 보광사 창건주인 정일 스님이 입적한 뒤 재단으로부터 보광사 새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받은 성비 스님 측에서 지난 12월31일 새벽 용역회사 직원과 정체불명의 청년 200여명을 동원해 보광사를 점거하면서 시작됐다.

다음날 새벽에는 현중 스님 측이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다시 보광사를 빼앗는 등 1월4일까지 5일 동안 네 차례나 사찰을 뺏고 뺏기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와불사를 위해 모아놓은 기왓장이 무기로 사용됐으며, 야구방망이와 삽 등을 휘두르며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자가 발생해 119 구급차량이 출동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5일 부산 보광사에서도 새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받은 황백 스님측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사찰을 점유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중앙신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6개 단체들은 1월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절 뺏기 폭력이 되풀이 되는 것은 자질이 부족한 출가자들이 금전적 이익의 충족이라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데서 기인한다"며 "다시는 폭력이 불교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종헌 종법에 의한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을 조계종에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 조사국장 혜일 스님도 "보광사가 선학원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겠지만 관여된 스님들이 조계종 소속인 만큼, 폭력이 발생하고 기물이 파손됐기 때문에 승풍실추 혐의에 대해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왜 이런일이…

창건주가 권한 승계 분명히 정리안해 발단

서울 보광사와 부산 보광사 사태는 창건주이자 前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이 상좌 몇 명을 선택해 창권주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정일 스님은 선학원 소속 서울 보광사, 부산 보광사, 청주 충북불교문화회관, 산청 정각사, 부산 영수선원과 재단법인 심우회 소속 추풍령 보광사, 동두천 선문사 등을 창건했다. 현중 스님측은 "정일 스님이 지난해 9월 원적에 들기 전 서울 보광사, 부산 보광사 주차장과 유치원, 청주 충북불교문화회관은 현중 스님, 부산 보광사는 황운 스님, 산청 정각사는 황명 스님 등에게 창건주 권한을 위임했고, 이 같은 의사를 2004년 1월 이사회에 전달했다"며 유언장과 육성녹음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러나 성비 스님측은 "유언장의 경우 위임자와 위임받는 자, 선학원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 또는 임원이 입회하고 공증서에 증인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중 스님 단독으로 작성했다"며 사문서 위조의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육성녹음도 "현중 스님이 은사 스님을 협박해 녹음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단 측도 "총무이사가 수차례 입회하에 위임자인 정일 스님 의사를 확인하려 했지만 현중 스님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보광사, 부산 보광사, 충북불교문화회관을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재단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문도회 중심으로 문제를 수습하라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중 스님은 "지난 해 1월 경 총무이사가 창건주 위임과 관련해 면담을 원하거나 통화를 원할 경우 기꺼이 응하겠다고 했으나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현중 스님은 또 "은사 스님이 원적한 후 일부 이사들과 사형들의 야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일부 이사진을 지목했다.

선학원 정관에는 '창건주 권한 승계는 사자상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하위법인 분원관리규정에는 '창건주 권한 승계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재단은 현재 창건주 승계 문제를 문도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현중 스님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재산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재단 감사진에 감사를 신청해 놨으며, 성비 스님측은 현중 스님 측을 '퇴거불응 및 업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불교생명윤리 정립 연구원 위촉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연구위원회(공동위원장 지원 · 백남석, 이하 연구위원회)는 1월 3일 총론팀장에 동국대 BK21연구단 김종욱 교수를 선임하고 각 분야별 연구원을 위촉하는 등 본격적인 생명윤리 정립작업에 나선다. 각 분야별 연구원은 △생명조작분야-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 △뇌사분야-곽만연 동아대 교수 △낙태분야-고영섭 동국대 교수 △사형분야-김재성 경전연구소장 등이다.

연구위원회는 우선 1월 21일 '불교에서 바라본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전체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남대 철학과 이중표 교수의 주제발표와 해인사 율원장 혜능스님,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의 토론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승가원 이천에 자비복지타운 건립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에 확보해놓은 3만평 부지에 자비복지타운을 건립한다고 1월4일 밝혔다.

승가원은 우선 이곳에 건평 1300평 건물을 짓고 강원도 치악산 국립공원 내 소재한 소쩍새마을을 올해 11월까지 이전하기로 했다. 이후 2006년부터 복지타운 장애인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수영장, 병원, 학교, 재활 센터, 법당 등을 차례로 건설할 예정이다.

소쩍새 마을 이전은 보건복지부가 7월 '미인가시설 양성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승가원은 전체 공사에 50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대형불사를 위해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2)928-0750

김강진 기자

보광사 사중 정상화에 대한 말씀

우선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새해 벽두부터 불자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산승은 보광사를 창건하신 남산당 정일선사의 상좌로서, 문도회 전체회의의 결의에 따라 지난 2004년 12월 18일 재단법인 선학원에 의해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받은 성비라고 합니다. 산승은 현재 보광사의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재산관리인으로서 조속히 사중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보광사는 큰스님께서 평생 수행정진을 통해 이룩하신 청정도량으로서, 재단법인 선학원에 여법하게 등록하여 불법홍포의 본산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으며, 60여명 문도들이 축발한 문도들의 명예로운 본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큰스님께서 원적에 드신 후 시자였던 현중스님이 전체 문도들의 공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이 곳 우이동 보광사를 비롯해 부산 보광사와 충주 충북불교문화회관 등 큰스님께서 평생 수행정진을 통해 일구신 삼보정재들을 사유화 하려는 음모를 꾸며 왔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저희 문도 일동은 현중스님의 작태를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전체 문도회의 결의를 거쳐 산승을 보광사 정상화를 위한 재산 관리인으로 추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광사를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현중스님을 산문출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불자와 국민 여러분에게 승가답지 못한 모습이 비쳐졌으나, 지난해 12월 24일 부산 보광사를 정상화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우이동 보광사도 적법하게 안정을 되찾았음을 보광사를 아끼고 염려하는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이번 폭력사태를 일어나게 한 현중스님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사찰 출입금지가처분 신청'등 다시는 이 보광사 산문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해 놓았으며, 치안당국에 대해도 더 이상 폭력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광사 신도 여러분께서는 큰스님의 높으신 덕화가 깃들어 있는 이 도량을 수호하고, 큰스님의 유덕을 길이 빛내고자 하는 저희 문도들의 간곡한 충정을 십분 이해하시어, 일체의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전과 다름없이 신행활동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7일

보광사 재산관리인 성 비
남산당 정일선사 문도회 일동 합장

‘부처님되신날’ 정진열기 뜨겁다

전국 사찰 철야기도·음악회 등 마련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한 부처님되신날(성도절). 1월 17일(음 12월 8일), 불교는 전통적으로 부처님 되기 위한 용맹정진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올해에도 전국의 사찰들은 용맹정진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성도절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용주사 수원포교당(031-255-2692). 16일 오후 6시 저녁예불로 시작되는 전야제 행사는 진리 · 광명의 등 점등식과 국립국안원 소리꾼 강효주씨의 창에 맞춰 탑돌이로 분위기를 돋군 다음 화려한 봉축음악회로 대미를 장식한다. 봉축음악회에서는 테너 엄정행씨와 소프라노 박정희씨(수원포교당 합창단 지휘자)의 공연에 이은 남성합창단의 색소폰 연주, 가릉빈가 어머니합창단의 찬불가 · 대중가요 공연 등 클래식과 법음, 대중가요와 찬불가가 어우러져 축제분위기를 자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옥천 대성사(043-732-5560)에서는 17일 오후 1~6시 윷놀이와 노래배우기 등 부처님되신날을 경축하는 ‘축하마당’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축하마당은 지역민을 초청, 대중과 함께 하는 놀이마당으로 진행된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와 대구 동화사(053-982-0101)는 17일 오후 4시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성도절 연합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원명 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등 1천여명이 동참해 신심을 다진다.

10일부터 17일까지 ‘정진주간’으로 정한 서울 조계사(02-732-2187)와 봉은사(02-516-5652)는 특별 법문, 육법공양의식 등 다양한 정진을 통해 부처님되신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순천 송광사(061-755-0108)는 10일부터 16일까지 저녁예불 후 자비수참을 행한다. 대구 법왕사(053-766-9088), 통도사 부산포교원(051-816-2241), 부산 관음사(051-293-9300) 등은 11일부터 일주일간 특별기도정진을 갖는다.

평창 월정사(033-332-6664)는 참선과 1080배를 주제로 삼았다. 16일 오후 9시~17일 오전 3시 참선과 1080배 정진을 한다. 남양주 봉선사(031-527-1951)는 16일 오후 7시부터 17일 오전 5시까지 1인 1등 ‘희망의 등’ 용맹정진 법회를 연다. 김천 직지사(054-436-6174), 경주 불국사(054-746-9912), 영천 은해사(054-335-3318), 서울 불광사(02-413-6060)와 도선사(02-933-3161)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철야기도 법회를 연다.

박봉영 기자

건설 공사로 도심사찰 몸살

서울 보승사·자인사, 수행환경 파괴

서울시내 사찰들이 도로건설과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사찰이 인접한 곳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행환경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조계종 보승사(주지 현중)는 대웅전에서 불과 4m 떨어진 지점에서 4차선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스님과 재가자들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보승사는 공사주체인 서울시가 공사에 포함되는 경내지뿐만 아니라 사찰 부지 전체를 수용하고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 자리한 보문종 자인사(주지 동희) 역시 아파트 재건축으로 종교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 8월부터 3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해 자인사의 법당이 부분적으로 파괴됐으며,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 동희 스님의 범패교육과 신도들의 신행활동도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자인사 총무 덕림 스님은 “관계기관과 건설회사가 직접 나서서 종교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통해 사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철주 기자

“요즘 학문하는 이들 너무 서둘러요”

신춘 원로대담

황수영 박사 (前 동국대 총장)

– 대담:위영란 편집부국장



황수영 박사는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1918년 개성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귀국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예관으로 근무했다. 1972년 동국대에서 한국미술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동국대에서 교수 · 박물관장 · 총장을 지냈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되새겨야 할때
기본 다지기, 다음 세대에 큰 자산

▲건강한 모습 뵈니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며 미술학회에 가끔 원고를 내기도 하고, 힘닿는 대로 석굴암에 관한 연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국론분열에 경제 불황까지 겹쳐 국민들에게 고통스런 한해였습니다. 올해는 나아지기를 바라는 국민 여망이 큰데요.

–참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국민들이 슬기롭게 헤쳐 나왔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머잖아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는 한국 전체가 산업화의 소용돌이에서 서구화를 지향하던 시절 역으로 우리 것에 천착, 한평생을 불교미술 연구에 바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여겨집니다.

–불교가 좋고 문화재가 좋아서 한 것일 뿐입니다. 스승인 고유섭 선생님께서 못다 하신 일을 이어 한 것이기도 하고요.

▲박사님 말씀 가운데는 늘 고유섭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인연이 길지는 못했지만 매우 강렬한 가르침을 주고 가셨으니까요. 학창시절 방학만 되면 개성박물관을 찾아가 선생님을 뵙고 문화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나 즐거웠던지 매일 찾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선생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선생님의 자료를 인수해서 활자화하고 전집을 엮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집 작업 중에 자연히 선생의 뜻을 이어 문화재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됐지요.

▲박사님께 불교미술학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교미술 연구는 곧 우리 문화 정체성을 찾는 작업입니다. 수천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해온 불교는 특정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문화와 일체를 이뤄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교미술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미술학 분야를 개척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후학들을 위해 공부하는 자세를 가르쳐주시지요.

–요즘 학문하는 이들을 보면 너무 서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학문도 그렇지만 불교미술학은 급히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발굴이라도 할라치면 묵묵히 땅을 파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문헌 자료를 찾아 오랜 시간 헤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득하니 연구에 매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게 불교미술학 연구입니다.

▲박사님의 얼굴이 서산에 있는 백제 마애불과 매우 흡사하다는 말들을 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궤적이라고도 하는데요.

–과찬입니다. 따로 불교적인 수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불교 문화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다니다보니 명산대찰 안 가본 곳이 없고, 그게 또 큰 즐거움이다 보니 늘 밝은 표정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석굴암 연구 및 복원 공사를 위해 석굴암에 머물렀던 3년간의 시간은 지금도 잊지 못할 환희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사님에게 석굴암은 일생의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를 꼽으라면 단연 석굴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는 석굴암의 본존불이 아미타불인지 석가모니불인지 아직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지요. ‘미타전’ ‘수광전’ 등의 현액이 발견됐을 뿐 아니라 석굴암 건립 당시 아미타신앙이 융성했다는 역사적 사실, 서방에 앉아 계시다는 점 등 학술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본존불 수인이 항마촉지인이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석가모니불이라 주장한 일제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석굴암 본존불 명호에 관한 연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은 문화재 반환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문화재반환협상 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문화재 반환의 핵심은 우리 박물관에 있던 유물을 일본이 유출해간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이었습니다. 박물관 유물장부를 근거로 협상을 벌였고 1천500여점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 규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규모로서, 아쉬움만 남는 협상이었지요. 늦기 전에 유출 경로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하고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는 10월이면 세계6위 규모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문을 열고,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도 9월에 개관합니다. 우리 박물관계의 산 증인으로서 감회가 클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 질적 · 양적으로 많이 팽창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의 정수라 할 불교 성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중앙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산중 사찰의 성보들까지도 순환전시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문득 문득 우리가 후손에게 어떤 조상으로 비쳐질까 걱정스런 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끄럽지 않은 조상으로 기억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뒷 세대에게는 튼실한 자산이 됩니다. 화려하고 가시적인 것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당장은 멋져보여도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후손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초를 튼튼히 다져합니다.

▲올해로 미수를 맞으셨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비결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하루 8시간 정도 잠을 푹 자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낸다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일까요.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리=박익순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崇山堂 行願大宗師 49齋

歸依 三寶하옵고

금번 을유년 1월 16일(음 12월 7일) 일요일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산증인이셨던 숭산당 행원대종사를 추모하는 49재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 뿐만아니라 국제포교에 평생을 헌신하셨던 큰스님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평소 큰스님을 흠모하셨던 국내외 각계의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하시길 앙망합니다.

불기 2549년 1월

- **일 시** : 불기 2549년 1월 16일(음 12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대적광전

원로 대덕 큰스님과 초청 내빈들께서는 사전에 참여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화계사 종무소 02) 902-2663, 903-3361

崇山堂 行願大宗師 문도대표 성광 拜上

목포 보현정사 무료급식소 운영

'영산정각원 경로식당' 개원



'영산정각원 경로식당'을 개원한 목포 보현정사 주지 정각 스님이 1월 6일 개원식에 참석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고지원 중단으로 폐쇄위기에 처한 노인복지회관이 사찰지원으로 되살아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목포 보현정사(주지 정각)는 1월 6일 만호동 소재 행복노인복지회관에서 '영산정각원 경로식당' 개원식을 갖고 무료급식에 들어갔다.

경로식당 개원에는 보현정사 정각 스님과 전태홍 목포시장, 황정호 도의원, 김성본 시의원을 비롯한 기관장, 자원봉사자, 지역 노인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무료급식에 앞서 정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고가는 쉼터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전태홍 목포시장은 "금년부터 규모미달로 부득이 복지회관 기능이 정지되어 무료급식 중단이라는 급박한 상황에 처했으나 보현정사 정각 스님이 선뜻 마음을 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보현정사가 목포시로부터 위탁받은 영산정각원 경로식당은 개신교 여성수도공동체인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가 6년간 운영하던 행복노인복지회관으로, 금년부터 국고보조가 줄어들어 폐쇄위기에 처했던 것을 보현정사가 경로식당으로 전환해 무료급식을 이어가게 됐다.

영산정각원 경로식당은 목포역, 목포항, 선창지역 부근의 독거노인과 노숙자 150여명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하며

신도회 중심 자원봉사 팀 조직
역·항구 주변 독거노인에 점심

이를위해 보현정사는 신도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팀을 조직했다.

6년째 복지관에서 점심을 이용하고 있는 김인배(76)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점심 한끼로 하루를 사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마저 없어질까 걱정했다"며 "스님 도움으로 계속 식당이 열린다니 말할수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영산정각원 경로식당은 지상 2층 연건평 100평 규모로, 주방과 식당 외에도 물리치료실, 상담실, 컴퓨터실을 갖췄다.

글 · 사진/목포=이준엽 기자

"힘 모아 지역발전 앞장서자"

광주 운불련 · 포교사단 자매결연

새해들어 광주지역 최대규모와 조직을 자랑하는 신행단체 운불련과 포교사단이 자매결연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 광주지역회(회장 유영식 · 이하 운불련)는 1월 5일 광주 우산종합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앞서 광주 전남 포교사단(단장 김인식 이하 포교사단)으로부터 자매결연 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운불련 유영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운불련 창립 13주년을 맞아 보현행원행을 실천 하는데 박차를 기하고자 포교사단과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며 "두 단체가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힘을 모아 새로운 형태의 포교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포교사단 김인식 단장도 "작은힘이 합치면 큰 힘이 되듯 운불련과 포교사단이 함께 해 지역불교발전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운불련은 150여명의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정기적으로 우산종합복지관 장애인들과 사찰나들이 행사를 주관하며 지역사암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포교사단은 300여명의 포교사들이 17개팀으로 나뉘어 사찰안내, 교도소,군부대 포교 등 각종 직능단체별로 포교에 임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 최대규모의 신행단체간 자매결연으로 조직력과 기동성을 갖춘 포교활동이 기대된다. 이준엽 기자

"초심으로 목표 향해 정진합시다"

범어사 · 광주동구불교협의회 신년하례

부산 범어사와 광주동구불교협의회가 을유년 새해를 시작하는 하례식을 각각 열고 지역발전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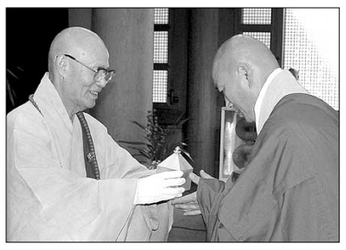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범어사 신도회(회장 박수관)는 1월 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발전과 APEC 성공 개최 기원하는 육법공양, 지호경 범어사 신도회 부회장의 발원문에 이어 승가와 재가가 마주보고 신년하례로 2005년 한해의 정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처음 결심한 마음을 그대로 잃지 않고 살아나간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니 첫 마음, 첫 결심, 첫 목표들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지각)도 1월 4일 광주 세심정사에서 '새해하례 및 통알의식 법회'를 봉행했다. 참석자들은 일체제불과 역대조사전에 세알삼배를 올리고 지암(세심정사 회주), 혜우(혜룡사 주지), 송정(승암사) 스님 등 원로스님들에게 세알배례를 했다.

통알(通謁)은 부처님이래 역대 조사와 사부대중이 새해인사를 하는 의식으로, 광주지역에서 통알법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준엽 · 천미희 기자

"전법에 최선 다하겠다"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진산식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는 지난 12월 27일 만덕전에서 10대 주지 정강성웅 스님(사진 오른쪽) 진산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직지사 회주 녹원, 前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도원, 중앙종회의장 법등,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 8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성웅 스님은 "회주스님의 가르침과 대중의 뜻을 받들어 선원과 강원 스님들의 수행정진을 외호하고 가람수호와 문화재보호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불교회관을 건립하여 포교와 전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진산식에서는 화환을 받지 않았으며, 들어온 축하성금은 모두 공익사업과 불우이웃돕기에 쓰여진다. 배지선 기자

98년 근대역사 한눈에
'금정중학교 역사관' 개관

98년의 역사를 지닌 종립학교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최주석)에 학교 역사와 3 · 1 운동, 조선어학회 활동사진 등을 정리한 역사관이 개관됐다. 지난 12월 22일 학교법인 이사장 대성 스님, 동래교육청 주기민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한 금정중학교 역사관은 본관 중앙 현관 20평에 마련된 공간에 125종의 사진 및 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친구들아! 맛있는 김치 먹고 힘내!"

선양사회복지원(이사장 김수현) 주관으로 부산시내 18개 고교 학생 368명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600여명이 지난 12월 29일 김장김치를 담가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했다.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할 김장을 담그는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천미희 기자

외국인 노동자 4백여명 한자리



"2005년에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새해 행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어 발음이 분명치 않는 네팔 노동자가 새해 인사를 건네자 객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곧 이어 네팔 음악이 울려 퍼지자 네팔에서 온 노동자들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 흥겹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부산 상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이주노동자 공동 송년의 밤 행사에는 부산 경남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4백여 명이 참석해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사진).

이날 행사는 2002년 아시안 게임 당시 방글라데시 서포터즈 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부산보현의 집(원장 이기표)이 주최해 의미를 더했다.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등 각 나라별로 다양한 무대 공연이 펼쳐진 이날 행사에서는 흥겨움 뒤에 이주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이 묻어나기도 했다. 최근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강제 추방되거나 숨어 지내는 이들이 많아진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도 많았다.

그러나 공연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표정은 어느새 맑고 순수하게 빛났다. 함께 참석한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며 그동안의 시름을 날려버렸다. 천미희 기자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위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2월 27일 서울시로부터 현재 영등포 보현의집 주차장 위치에 건립될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운영기관 자격을 얻었다.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관을 서울시가 미리 내정한 까닭에 대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윤남선 과장은 "설계과정에서부터 실무 경험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건물 배치, 실제로 구비할 프로그램실 건설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건평 1200평 규모에 지상 3층, 지하 2층 건물로 시공된다. 이는 단일복지관으로서는 불교계 최대규모이며 빠르면 2006년 10월까지 완공, 2007년 개관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익명 독지가 1억원 기부
맑고향기롭게 대구지부에

익명의 한 독지가가 사회복지봉사 시민모임인 맑고향기롭게 대구지부에 1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맑고향기롭게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경 익명의 독지가가 찾아와 "서울 길상사처럼 넓은 마당이 있는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많은 불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경순 본부장에게 1억원을 기탁했다는 것. 이 독지가는 언론에 절대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배지선 기자

한·국·불·교·태·고·종·과·함·께·하·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4학기) / 연구과정 (2학기) 신입생 모집 (추가)

2005.1.10~1.31

◆ 개설학과

학 과	세부전공	모집인원
문인서화학과 (文人書畵學科)	서법예술전공 동방회화전공	OO명
불교문예학과 (佛敎文藝學科)	불교음악전공 불교미술전공	
민속문화학과 (民俗文化學科)	역경예측전공 풍수환경전공 민속연희전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지원자격
– 석사과정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연구과정 : 일반 성인 남 • 여 / 학력 • 연령 제한 없음

문화교육원 전문과정 신입생 모집

과정	교육과정	세부과정	담당교수
불교문예	불교음악 실기	사찰기초의식	김 구 해
		범패실기 (홀소리)	심 상 현
		불교무용 (나비춤)	김 법 현
	불교미술 실기	불교조각	이 상 배
		불화기초실기	원 미 희
	불교경전 강의	불교한문강독	심 재 동
		대승경전 연구	주 명 철
		불교기초교리	심 상 현
역경명리	역경학 강의	주역 연구	신 성 수
	육효학 강의	복서육효 연구	김 용 연
	명리학 강의	사주 초급	박 영 창
		사주 연구	박 영 창
		명리학 초급	김 동 현
		명리학 연구	김 동 현
	기문둔갑학 강의	기문둔갑 연구	이 승 전
	육임학 강의	육임	효사
	점성술 강의	정통점성술	이 현 덕
	풍수환경학 강의	생활풍수인테리어	박 시 익
		풍수지리학	정 경 연
민속문화	민속연희 실기	민속극 • 음악 • 무용	이 정 섭 정 상 철 박 상 만
		무속 • 제의 • 민속	
	가요 실기	가요 연구	임 부 희
	자연치유학 강의	대체의학 연구	이 송 득
		한방과 사주학	한 승 철
		비전한방론 연구	윤 영 배
		실전치유기공	최 원 섭

과정	교육과정	세부과정	담당교수
서법예술	한문서예 실기	금문,전서 연구	이 영 철
		예해 연구	조 성 주
		행초 연구	권 인 호
	한글서예 실기	한글 연구	노 승 환
	전각예술 실기	전각 연구 A	노 승 환
		전각 연구 B	조 성 주
회화예술	사군자 실기	사군자 연구	사공홍주
	수묵화 실기	수묵화 연구	최 현 익
	옷칠화 실기	옷칠화 연구	이 종 헌
	현대채묵화 실기	현대채묵화 연구	하 영 준
	서 • 화론 강의	서 • 화론선독	임 광 빈
외국어	중국어 강의	중국어 회화	김 영 진
	일본어 강의	일본어 회화	박 국 영
	한 • 시문 강의	대학,중용	신 성 수
		한시창작	정 충 락
		선시강독	김 미 선

*교육생이 적정수에 미달된 과정은 개강을 보류할 수 있음.

◆ 접수 및 등록기간 2005.1.10~2.25
◆ 수강대상
– 일반 성인 남 • 여 / 학력 • 연령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사진(3cm×4cm)2매
◆ 접수방법
– 본 교육원 교학과에 직접 방문
→원서 작성 → 해당 등록금과 함께 접수
– 해당 등록금 온라인 입금
→본 교육원에 전화로 입금 확인 → 원서는 개강 시 작성

개·교·기·념

공개강좌 특별과정 모집

<공통> ◆ 모집기간 : 2005.01.10 부터 선착순 마감
◆ 수강대상 : 일반 성인 남 • 여 / 학력 • 연령 제한 없음
◆ 특 전 : 총장명의의 수료증 수여
◆ 개 강 : 3월 첫주

주택풍수감정사 / 천명사주감정사

교재 최초공개!저자직강 민속문화학과 **노 병 한** 박사

◆ 모집정원 : 각 과정별 30명
◆ 수 강 료 : 각 과정 당 100만원
(2과정 동시 수강 시 25만원 할인) * 교재 별도 구입
◆ 교육기간 : 18주
◆ 특 전 : 대학교자격증 수여운영규정에 의한 총장명의의 자격증 수여
◆ 교 재 : 음양오행사유체계론, 거림천명사주학, 거림가택풍수학

시간 / 과정	기초 5주 (03.12~04.09)		실전 13주 (04.11~07.09)	
	과목명	강의시간	과목명	강의시간
주택풍수	음양오행학	(토) 14:00~18:00	주택풍수학	(토) 14:00~17:00
천명사주	음양오행학	(토) 14:00~18:00	천명사주학	(금) 19:00~22:00

민화진채 실기

명실상부한 전문인 양성! **서 공 임** 교수

◆ 모집정원 : 20명
◆ 수 강 료 : 100만원
◆ 교육기간 : 16주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00~오후 16:00 (6시간)

침구 • 교정 과정

중국 현지 침술 연수! **이 명 희** 교수

◆ 모집정원 : 40명
◆ 수 강 료 : 60만원
◆ 교육기간 : 16주(2년 과정)
◆ 특 전 : 년 1회, 중국 현지 침술 연수 30일(연수비 별도)

새로운 동방문화 예술의 길잡이 東方大學院大學校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dongbang.ac.kr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02-745-2141



'쓰나미' 재앙 극복돕기 한마음

국내 불교계

동서남아시아 12개국에서 16만여명이 희생된 지구촌 초유의 대재앙에 불교계 각 사암과 단체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는 8일 대구시 반월당 보현사에서 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자자 구호를 위한 기금 모금법회를 거행하고 대구백화점 앞 광장까지 자비의 탁발을 돌며, 대시민 홍보 및 캠페인을 벌였다. 동화사는 10일 청도역 광장 앞, 14일 고령 관음사, 고령시장 국악당, 성주 관운사에서 모금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월 11일 오후 2시 강릉 중앙시장과 18일 오후 2시 원주 중앙시장에서 '자비의 탁발' 행사를 봉행한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12월 26일 강원의 학인스님들이 소정의 모금액을 종무소에 기탁했고, 본말사 스님들을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확대 전개해나가고 있다.

사암 및 단체들 모금 운동 펼쳐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1월 3일 김수일 부산 말레이-인도네시아 명예영사를 통해 1080여만원을 인도네시아에 전달했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도 성도절 기념 대법회시 남아시아 지역 지진 해일 피해자를 위로하는 장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모금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서울 조계사 순천 송광사 김제 금산사 김천 직지사와 영천 은해사 경주 불국사 등 각 교구본사들도 각 말사에 공문을 보내 경내 모금함을 설치하고 모금 운동을 함께 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본사 스님과 직원 신도들을 중심으로 모금을 전개하고 있다.

각 지역 단체들도 이번 피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아래 온정의 물결이 넘쳐흐르고 있다.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도 매주 일요일마다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서 남아시아 이재민 돕기 모금 행사를 1월 한 달 동안 진행하며, 대전백제불교회관은 8일 대전불교 신년하례법회에서 남아시아 이재민 돕기 모금활동을 함께 펼치기로 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도 성금 모금에 나섰으며, 모금액은 동남아 여성불자단체 혹은 여성이재민 구호단체로 전달할 예정이다.

연말에 떡국 거리 판매 수익금으로 매년 불우이웃돕기를 펼쳐오던 대한불교적십자봉사회(회장 박추자)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백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도 지난 12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 스리랑카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를 통해 기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조계종 중앙신도회, 지구촌공생회, 우리는선우 등이 이번 달 말까지 성금 및 물품을 접수중이다.

해외 불교계

세계 곳곳의 불교도들이 동서남아시아 이재민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대만의 사회복지활동을 이끌어 온 자제공덕회는 지난 12월 29일 '동남아시아에 사랑을, 우리의 자비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치유해줍시다'라는 구호아래 5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 이번 재난을 위한 각종 모금, 자원봉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성운 스님이 이끄는 대만 불광산사를 비롯해 링옌산사 등도 이같은 모금운동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등 구호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 불교계도 새해 첫날 베이징 서쪽 링광스(영광사)에서 950만 위안을 모금한데 이어 태산 북두 소림사에서 40만 위안을 모금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인도남부지역 이재민들이 넋을 잃고 앉아 있다. 사진제공=한국 JTS

말레이시아 서버라자야불교연합은 긴급구호센터를 마련하고 긴급 구호물품을 모으고 있다. 또 마하라비하라 불교사원에서도 40톤의 구호물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12월 29일 미 동부 퀸스 지역에서는 승단을 중심으로 수천명의 불자들이 모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또 뉴저지 지역의 스리랑카 교포단체는 피해지역의 의료 지원과 복구기금 마련을 위해 나서기로 결의했다.

자제공덕회 · 불광산사 등 자원봉사

영국 스리랑카를 위한 불교공동체는 1만달러에 달하는 구호물품을 스리랑카로 보냈다.

이밖에도 태국, 스리랑카 현지에서는 갈 곳 없는 이재민들을 위해 각 사찰과 스님들이 구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먹을 것과 잠자리가 시급한 이재민들에게 사찰을 개방했다. 또 지진해일 희생자들의 시신조사에도 스님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다.

김원우 · 천미희 · 남동우 · 강유신 · 배지선 · 유철주 · 김강진 기자

피해지역에서 온 편지

인도 남부 라사뻬따이(Rasappettai) 마을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서동우씨와 스리랑카 파나두라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각복지재단 최용수 과장이 한국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는 글을 본지에 보내왔다.

■한국 JTS 서동우씨



12월 28일 이번 쓰나미 피해지역인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주로 중부 해안에 위치한 라사뻬따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해일로 해안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와 NGO 들은 가장 큰 피해지역인 나가빠티만에 인력과 물자들을 집중하고 있어 구호의 손길이 많이 미치

라사뻬따 이 마을 2500여명 텐트 생활

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빠나르강과 벵갈만의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이곳의 마을 주민들은 모두 강을 건너 둔덕에 캠프를 차렸습니다. 약 420여 가구 2500여명이 긴 장대에 사리천으로 걸친 임시텐트에서 아무런 가재도구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일로 마을에서는 3명의 희생자 밖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마을의 고기잡이 배가 모두 부서져 모든 생활기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들은 '파도가 두 번 들어왔다 나가니 세상이 바뀌었다' 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생활할 수 있는 임시거처와 아이들이 공부할 임시학교, 마실 물을 저장할 탱크, 물을 끌어올릴 핸드펌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마을에 희망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한국에도 이들에게 희망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십시오.

■진각복지재단 최용수 과장



스리랑카의 진각복지재단 JGO센터가 위치한 네곰보에서 2시간 거리인 파나두라 지역은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JGO센터 지부장 아라나뜨너 스님은 지진해일피해 직후 곧 파나두라로 이동하여 은사스님이며 시암종 남부지역 총무원장인 사라난다 나야카대로 스님이 주석하고

물가 인상에 이재민 돕기 어려움 많아

있는 우디토디 타라마야 사찰에서 인근 주민 2000여명에게 식사 제공으로 구호활동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한끼 식사 제공에만 4천 루피(원화 약40,000원, 스리랑카 노동자의 반달급여 이상)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라나따나 스님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라디샤(23세, 여), 미만디(21세,여), 미만(40세,남) 등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돕고 있습니다. 진각종에서 가져간 구호성금 1만불로 유아들을 위한 우유 구입과 쌀, 설탕 등을 구매하여 교통이 두절된 지역 등을 다니며 직접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물품 구입에 어려움이 많아 자원봉사자인 미만이 콜롬보 대형매장에서 물품구매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매가 완료되는 1월 15일까지 직접 차에 물건을 싣고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성금이 모금되는 상황을 지켜본 후 2차 구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오니 많은 동참 드립니다.


안국선원장 수불 수님이 현대불교 서정만 이사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안국선원 성금 1천만원 본사에 전달

지난 12월 30일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과 신도 일동이 스리랑카 재난 구호에 써달라며 성금 1천만 원과 의류 52박스를 본사 '나눔의 손잡기' 에 기탁해왔다.

수불 스님은 "피해지역 국민들의 불행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다"며 "불자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동남아 국민들이 하루빨리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자"고 말했다.

지진 · 해일 피해로 통곡하는 동남아에 자비를

현대불교신문사는 조계종과 함께 동남아 지진 및 해일 피해 돕기를 위한 성금모금을 전개합니다. 접수된 성금은 각국 대사관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지진 · 해일 피해 돕기 성금 동참 안내
동참문의 : (02)2011-1824~5
동참계좌 : 국민은행 023-25-0011-991 예금주 : (재) 불교중앙교원
농협 053-01-239894 예금주 : (재) 불교중앙교원

대한불교조계종 · 현대불교신문

성금내주신분<1월 5일까지>

김진우 5만원 석산 1만원 송용호 5만원 보운 3만원 이은배 3천원 하인숙 10만원 강조훈 2만원 김가현 5만원 정동근 1만원 정재설 1만원 우복남 2만원 이기동 10만원 이종명 5만원 임영숙 10만원 이건주 4만원 전기택 3만원 전양순 10만원 윤종선 2만원 유종식 100만원 이재륜 5,000 김양진 10만원 박진희 2만원 박영숙 5만원 임은선 3만원 안분수 3만원 이승희 10만원 김분옥 18만원 이경숙 30만원 이병남 10만원 곡선견성암 3만원 이영설 10만원 권병성 10만원 석양화 5만원 최유라 5만원 이효주 40만원 이상용 5만원 강옥구 2만원 장기연 10만원 임명희 10만원 강문현 1만원 전종현 2만원 김채현 5천 손혜수 3만원 윤명숙 3만원 장보혁 30만원 양한웅 5만원 기부금 1만원 정옥순 10만원 은아포교원 30만원 최현진 3만원 홍재옥 10만원 청룡사 100만원 지진성금 5만원 한양수 10만원 황혜연 3만원 김정중 3만원 송두현 5만원 최임정 3만원 봉정암 100만원 강삼모 30만원 권대성 10만원 해운정사 현성 1000만원 고점수 10만원 유순심 5만 6500원 도옥희 2만원 박노철 20만원 고용녀 5만원 덕운사 9만원 최현진 7만원 한금순 20만원 주호근 3천원 21-김동건 10만원 해인사율원 45만원 한창우 5만원 전해원 5만원 신행도량선림 50만원 이혜정 50만원 흥륜사 혜해스님 100만원 신전숙 7만원 정종목 2만원 정종헌 2만원 지장암 100만원 군포법해사 100만원 김지민 3만원 이훈용 1만5000원 용덕사동남아시아 200만원 안유경 50만원 이건주 8만원 서효석 3만원 이하분 5만원 박정민 3만원 중앙종무기관 국장스님일동 400만원 조계종원우회 1백75만7000원 중앙종회 의장 100만원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1백33만원 김명희 5만원 이인순 2만원 진주총림사 20만원 황윤호 1만원 종문사 30만원 광양운암사 100만원 조영숙 2만원 임혜숙 1만원 정영천 50만원 백양사 강원 100만원 이예숙 20만원 각화사 혜담 80만원 각화사 혜담 20만원 윤종오 5만원 신충호 3만원 부산 금천선원 2백14만9940원 보현정사 45만9000원 변호영 5만원 지리산 황매암 1백23만6470원 김옥순 50만원 대성스님 5만원 포항여성미타 50만원 대각정사 100만원 임재철 10만원 최종열 1만원 김이숙 3만원 이충선 1만원 채세희 10만원 2교구 백운사 10만원 보광사 상현 10만원 금몽암 10만원 겁외사 10만원 정미순 5만원 이우서 5만원 제순이 50만원 김윤현 1000만원 흥국사(화범) 100만원 이현자 50만원 이문식 5만원 장동한/송실 5만원 대각사 100만원 백승재 20만원 금강암 100만원 신동희 2만원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 79만4000원 불교사회단체 네트워크준비모임 30만원 이용희 10만원 심인정 5만원 무등스님 5만원 안영선 20만 9000원 백운암 덕원스님 10만원 윤현숙 10만원

총 60,862,910원

2005학년도 동방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982년에 교계 최초로 설립하여 21세기 불교를 이끌어 갈 주역을 양성하고 있는
20년 전통의 불교 대학에서 정진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불교학과	2년	정규00명 통신00명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자	강원사집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승 가 과	2년	정규00명	· 입학원서(소정양식)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반명함판사진 6매	종단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범 패 과	2년	정규00명		
불교미술과	2년	정규00명		

■ 종법 제20호 교육법
제 3절 불교대학 제 31조(수학의무)에 의거, 불교대학은 승려 및 정사(재가승)의 기본교육과정으로서 본종 승려 및 정사는 누구나 이수해야 한다.

2. 특전
· 졸업생 전원 2급 정포교사 자격증 발급
· 승려인 경우 종단의 대선법계품수
· 본교 졸업생으로 재입학하여 졸업하면 중덕법계품수(※종단 승려인 경우)
· 범패과 전원 영산재보존회 이수증 수여
· 문화재수리기술기술자 자격취득(국가고시)
· 성적우수자 및 각종 장학금 지급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1월 3일(월) ~ 2005년 2월 15일(화)

4. 전형일
· 2005년 2월 18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5.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범패과 · 불교미술과)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학처 : 서울 성북구 성북2동 330-586
(TEL. 02-745-2030~2, FAX. 02-744-3461)
· 홈페이지 : www.dongbang.org
· E-mail : dongbangdae@hanmail.net
· 태고종총무원 : 서울 은평구 신사동 9-16
(TEL. 02-382-7361~2)
· 각 시 · 도교구종무원

한국불교 태고종립 東邦佛教大學
서울 성북구 성북 2동 330-586 ☎(02)745-2030~2

"희망 일구는 새해를 만들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하고, 다시 도전하고…. 을유년 새해, 많은 불교단체들은 벌써부터 저마다 야무진 꿈과 계획을 내놓고 있다. 때로는 시련을, 때로는 좌절도 겪겠지만 그래도 이뤄야 할 목표가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새 '희망' 앞에 선 각 단체장들의 신년 설계를 들어본다.

불교행사를 시민축제로



대성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법회가 스님들과 불자들만의 행사가 아닌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APEC이 열려 많은 외국인들이 부산을 찾을 것이므로 한국 사찰의 수행가풍과 불자들의 맑은 신심을 접할 수 있도록 각 사찰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산 어디를 가든 한국문화의 멋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

부산불교연합회 조직 체계화와 위상 정립을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회원 사찰 및 신행단체의 활동 현황 파악 및 자료화를 토대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정보교환 및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여나가겠다.

'수행과 교육' 프로그램 확충



명성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지난해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전국비구니회는 올해 추진사업의 핵심을 '수행과 교육'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비구니회는 근 · 현대 한국비구니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심포지엄을 오는 9월경 개최할 계획이다. 각 문중별 비구니들의 수행상과 전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숙원이던 비구니총림 건립의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운문사에서 강원 · 선원을 비롯한 중진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전국비구니회 차원의 대규모 '수행교육' 프로그램도 개최할 예정이다. 수행교육을 통해 참가자들 모두가 비구니 지도자로서의 위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서읽기 문화에 불 지필 것



원택 스님 불교출판문화협회장

불교 출판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불교 출판사 18곳이 참여해 결성한 불교출판문화협회는 올 한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불서읽기 문화'에 불을 지펴갈 것이다. 우선 협회 산하 사찰도서실 건립위원회에서는 교구본사뿐 아니라 도심 포교당에서도 대중 불자들이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사찰 도서실'을 마련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사찰 도서실은 불자들이 책 읽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러 불교계 언론사들과 함께 '불서읽기 캠페인'과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불서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갈 것이다. 연말에는 '불교출판문화대상'을 제정해 한해 출간된 불서 중 우수도서를 선정, 시상할 계획도 있다.

건축불사 사전심의制 추진



수경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발만능주의 세상이다. 빠르고, 많이 소유하고 써버리는 것을 으뜸의 가치로 여긴다. 환경과 생명을 외면한 개혁은 허구일진데, 노무현 정부는 개발만능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 불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회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래서는 어둠뿐이다.

먼저 우리 불교의 대형화 물량화 불사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잡아갈 것이다. 건축불사에 대해 사전에 심의 또는 자문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힘쓸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인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일을 중요한 이슈로 삼을 것이다. 경전의 가르침을 환경살림의 지침으로 재구성하는 일도 올해의 과제이다.

구연동화 전문 인력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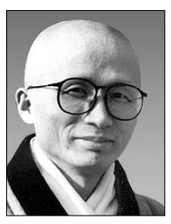
정여 스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불교적 색채를 강요하지 않는 보편화된 포교방안 모색의 해가 되도록 할 것이다. 9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구연동화 대회를 통해 불교계 구연동화 인력을 확충하고 소재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초등학교에서도 구연동화가 보급되고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는 현실에 걸맞게 불교 설화 등을 구연동화에 접목시키면 감동과 지혜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플래시애니메이션, 불교문화유적 답사 등의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취약한 지역을 찾아가 직접 법회 노하우를 알려주는 '찾아가는 법당'도 보완 강화해서 법회 활성화로 이어갈 것이다.

지역 현실과 특색에 맞는 연수회 개최 방안도 구상 중이다.

치료비 지원사업 다각화



현장 스님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지난해 소아암 및 치매독거노인 치료지원금으로 8천200만원과 헌혈증서 4000매를 화순 전남대에 전달했다. 금년에는 치료비 지원사업을 '디딤돌운동(가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디딤돌운동은 매월 병원에서 환우를 소개받아 각종 단체 및 언론사와 연계해 다양한 후원캠페인을 한 달간 전개하고 기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원봉사단을 출범시켜 정기교육을 통해 양질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봉사 시스템을 체계화 시킬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며 6년째 이어오고 있는 독거노인 도시락사업과 밑반찬 사업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30주년을 재도약 원년으로



홍승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은 2005년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더불어 대원장경호 거사의 입적 30주기 행사를 여법하게 개최할 계획이다. 불자들의 불교공부를 돕기 위한 불교디지털사전 개발사업 추진은 물론, 대원회 · 대원정사와 공동으로 대원 거사 평전 발간, 국제불교학술세미나 및 대중불교결사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국제포교와 불교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함께 출판 · 문화강좌 · 학술진흥, 수련 교육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불교포교 불사 역시 보다 특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05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명실공히 한국 재가불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구심점이 되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다.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 강화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

불교여성개발원은 2003년 처음 실시한 '여성 불자 108인 선정'을 통해 여성 불자를 발굴하고, 작년 세계 여성 불자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쳐 한국 여성 불자들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조를 했다. 올해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도록 내실 다지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불교 여성 지도자를 위한 워크숍 개최, 제2차 '여성 불자 108인 선정' 등의 활동으로 불교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불교 여성학 논문을 공모하고 정기 세미나를 열어 여성 불자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체계적인 사업을 위한 기금 모금운동도 준비 중이다. 또한 서울 구치소의 여성 재소자 교화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실과 밀착된 연구 매진



이평래 한국불교학회장

오늘날 불교학자들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시대의 요구를 읽어내는 것이다. 정보화 등의 변화 속에서 현대문화를 이해하고, 문제를 인식해서 그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현실과 밀착된 연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 학회는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봄에 열리는 학술회의에서는 상가(승가) 내 교육 문제를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 하나 금년도 우리 학회가 주력할 사업은 지난해 큰 이슈가 된 바 있는 불교용어표준화사업이다. 발주자인 한국학술진흥재단 차원에서는 올해 10월 마무리된다. 현재 학회에서 마련한 표준화안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가족공동체 참여 이끌터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005년도를 기점으로 '가족 공동체의 참여와 변화'를 2010년까지의 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재가연대는 회원운동의 새 장을 열어나가며, 교단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적 발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종무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현장과의 긴밀한 유대 아래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설기관인 (사)불교아카데미에서는 교계 인력 자원의 개발을 위해 뜻있는 사찰과 손잡고 체계적인 인력채용, 수급 및 재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해 갈 것이며, 전체 시민사회 내에서 '종교의 자유' 문제를 본격적인 사회의제로 올려놓기 위한 출발의 시점으로 삼고자 한다.

전통미술 정체성 재확립



이재순 동국불교미술인회장

1월중으로 불교미술계 원로들에게 '전통불교미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다. 현재 중국과 동남아에서 유입되는 불교미술품의 범람으로 불모들의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때일수록 전통 불교미술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98년에 출간된바 있는 <알기쉬운 불교미술>을 1월말까지 수정 보완해 다시 펴낼 계획이다. 이번 책에는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불교 미술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이외에도 각 사찰들과 연계한 '불교 전통 미술' 시연과 이론 특강을 겸한 교육불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7~8월중에는 중국 불교미술 답사도 계획해 놓고 있다.

남북청년 교류 행사 역점



김익석 대한불교청년회장

3월 만해백일장을 시작으로 6월에는 불청대회와 6 · 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남북청년학생교류행사 등 큼직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천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평양과 서울에서 문화행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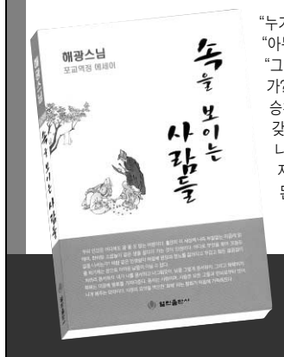
또한 전국 지구 지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대구지구와 광주지구를 발족시켜 전국적인 대불청의 기반을 다질 것이다.

2005년에는 교육 사업 전개에 매진하고자 한다. 임원 연수를 비롯해 계층별 교육을 강화해 신입생부터 235년차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강선원 해광(海光)스님 포교역정 생활불교 에세이]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앉은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찬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혹날 제4대조가 된 도신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中

• 해광스님 지음
열린출판사 / 값 9,000원

해광(海光)스님 저 서 — 불교비전의술서 「불가비의」 / 실용 역학서 「운명비결」 / 최초의 소설식 불교교리서 「왕 초보 절에 가다」 집필 중.

「운명비결」「속을 보이는 사람들」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교보,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리브로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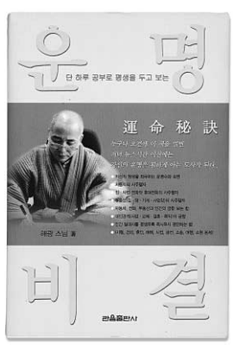
운명비결 전문가 과정 신청 접수

화제의 신간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해광스님 지음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수와 숙명
- 자동차의 사주팔자
- 집,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사주팔자
- 부동산(집, 땅, 가게, 사업장)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교제, 결혼,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금강선원 해광스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TEL 032)665-8472

2005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5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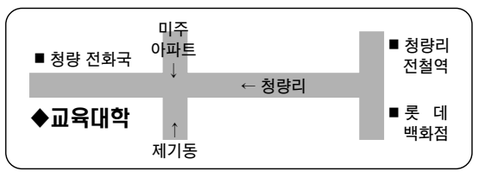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

①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조 · 석예불, 불공의식, 시식	20명	6개월
전통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및 천도재의식 (점안 및 제공의식)	20명	1년
연구과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② 응 시 자 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③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면접)
④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⑤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5年 1月 17日 ~ 2月 23日
▷ 개 강 : 2005年 2월 24日

▼ 찾아오시는 길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한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 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보도한다. 후원을 할 불자들은 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을 별도로 소개한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는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생명나눔 실천회의 골수기증 및 혈소판 모으기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사업을 전개한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해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소개한다.

♥ **나눔장학금 전달** 2005년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12개 종립학교 학생 72명에게 사찰체험을 시켜주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 **김창배 화백 지상 선묵화전** 담원 김창배 화백이 보시한 선묵화 30점의 지상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인터넷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나눔의 손잡기 성금

가평 은해사– 202,920원
정말순– 203,620원
한마음선원 대전지원 공주지원 송민영 조길자 양재호 정정호 최재혁 최아리 김태성 이연재 서용범 최명심 유정미 –총 392,990원

총 누적금액: 35,145,650원

나눔의 저금통 회수합니다

'나눔의 저금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이웃과 하나' 노인복지센터 개원

성주 선석사, 한방진료 · 법률상담 · 도시락 배달 본부로 활용



성주 선석사는 1월13일 '이웃과 하나' 노인복지센터 및 자비경로식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북 성주군 노인복지는 불교계가 책임진다.

성주 선석사(주지 선문)가 성주읍 예산리 466번지에 35평 규모의 '이웃과 하나' 노인복지센터 및 자비경로식당을 마련했다. '이웃과 하나' 노인복지센터는 이 · 미용, 침술등 한방진료, 무료법률상담,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본부로 활용된다.

자비경로식당은 2005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한차례 문을 열고, 2월 말부터는 주 3회(월, 수, 금요일), 6월부터는 주 5회(월~금)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지난 12월 27일 조계종 성주사암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이창우 성주군수 및 지역불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소식에서 선석사 주지 선문 스님(성주사암연합회 회장)은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부처님의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려는 지역 불자들의 마음이 모여 이렇게 '이웃과 하나' 노인복지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선석사에는 현재 65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다. 50여명으로 구성된 보리봉사단은 지난해 10월 17일 창단되어 지역사회 어려운 곳을 찾아가며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어르신 봉사단의 단원 15명은 지역 독거노인 등 주위 어려운 노인들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고 있다. 선석사의 65명 자원봉사자들은 더 이상 단위사찰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넘어 '이웃과 하나' 노인복지센터의 중심 봉사자로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054) 933-9800 **배지선 기자**

어르신들, 청년에게 희망 선물

서울노인복지센터 격려금 200만원 전달


지난 12월 27일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완 스님이 실업 청년들에게 센터회원 노인들이 마련한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정성에 실업으로 고민하던 청년들이 환하게 웃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완 스님은 지난 12월 29일 센터 관장실에서 장기실업 불자 청년 4명에게 '청년실업극복격려금' 50만원씩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200만원은 센터 회원 2만 7천명의 노인들이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청년실업극복을 위한 장터 '장에 가는 날'을 통해 마련된 기금.

지완 스님은 "회원 노인들이 예전부터 사회에 회향하고자 많은 정성을 기울여왔다"며 "노인들이 복지의 수혜자라고만 생각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다른 복지대상자들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대표 박용선(75) 씨는 "젊은 시절부터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면서 보람을 찾았는데 청년들도 장기실업으로 지금은 힘들지만 노력하다보면 희망이 생긴다"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김강진 기자

어려운 이웃에 작은 보탬 됐으면

나눔단체 봉황자원봉사단 생필품 보시

"우리들의 작은 활동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조계종 제9교구 본말사 연합 자원봉사단인 봉황자원봉사단(단장 신성자)이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 돕기에 나섰다. 본사 동화사를 비롯해, 기원정사, 송림사, 안일사, 은적사등 제9교구 본말사 자원 봉사자 20여명이 지난 12월 23일 쌀과 생필품을 대구 지역 불우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 반월당 앞 보현사에 모인 것.

중구에 있는 보현사 봉사자는 중구지역 노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남구 지역 사찰의 봉사자들은 쌀을 싣고 남구에 있는 독거노인을 찾아나섰다. 보현사 인근의 독거노인 3~4명은 이미 소식을 듣고 직접 쌀을 받아가기 위해 작은 손수레를 끌고 보현사에 오기도 했다.

이날 모인 봉황자원봉사단원들은 쌀 10Kg 120여포와 생필품 등 270여만원어치를 11개조로 나눠 무의탁 독거노인과 지체장애인가족, 더불어 복지관,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직접 나눠줬다. 봉황자원봉사단은 2000년 8월18일 제9교구본말사 스님과 신도들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창단됐다. 회원은 모두 300여명. (053) 985-4404 **배지선 기자**


봉황자원봉사단은 지난 12월23일 지역 독거노인에게 쌀과 생필품을 제공했다.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과 신도회 임원진들은 1월4일 광주 동구청 유태영 청장에게 불우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원각사 신도회, 이웃돕기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주지 도제) 신도회는 1월 4일 광주 동구청 유태명 청장을 예방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원각사 신도회 임원진 10여명이 동참한 이날 전달식에서 도제 스님은 "연말 개최한 작은음악회와 원각사 법당에서 모금한 성금으로 적지만 소외된 동구민을 위해 써달라"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바이오연옥® 기능성돌침대

기능성 돌침대 – 돌침대의 생명은 석판!! 춘천 역옥분 특수코팅

후레임(침대틀)도 고급자재로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의 직결은 오직 석판일뿐입니다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후회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품질 검증 보증서 아주대학교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氣)측정 연구팀 지도교수 오흥국 박사

한국경제 2004년 9월 14일 화요일
신뢰받는 성장 기업… 한국경제를 이끄는 CEO리뷰
수면병 '맥반석 건강 침대'로 다스린다

서울신문 2004년 8월 24일 화요일
건강&맛집 부문
바이오 연옥 맥반석 건강 침대 '화제 집중'
충주산 맥반석-춘천산 연옥 결합 원적외선-음이온 방출
혈액순환 원활, 신진대사 촉진, 근육통-어깨 결림 등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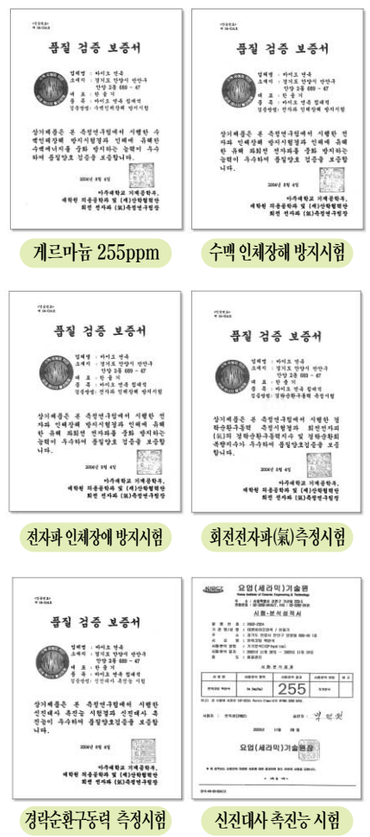
※ 게르마늄 : 인체 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를 지연시키고 생체조직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바이오연옥은 이미 아주대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 측정 연구팀의 '수맥인체 장애 방지시험', '전자파 인체 장애방지 시험', '회전전자파 측정시험', '경락순환 구동력 측정 시험' 및 '신진대사 촉진시험' 등 수많은 품질검증과 요업(세라믹)기술원장 시험성적서 게르마늄 255ppm으로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바이오연옥맥반석 침대'와 관련해 경상대 자연과학대학 백우현 교수는 "바이오 연옥 맥반석 건강 침대에서 내뿜는 고효율 원적외선은 인체의 피로회복과 자연 치유력 향상을 지녔다"며 "원적외선의 온열효과를 지혜롭게 이용해 온 우리 선조들의 온돌문화에 바탕을 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또 충북대 한충수 교수 역시 "이론과 실험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상업적으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 반면 이 제품은 인체의 신진대사와 식물 생장 및 저장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기사 일부



「기존 돌침대 '석판'만 교환 가능합니다」



게르마늄 255ppm | 수맥 인체장해 방지시험 | 전자파 인체장애 방지시험 | 회전전자파(氣)측정시험 | 경락순환구동력 측정시험 | 신진대사 촉진능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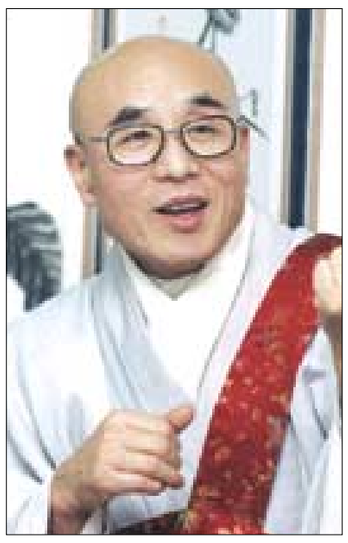
A/S : 080)445-0005
www.바이오연옥.com

바이오 연옥 본사 031)444-0005 본사 직영 매장 분당 오리역(한국까르푸) 2층 031)728-6250

사회에 기여하는 종단상 구현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신년기자회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1월5일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종단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걸망을 짊어지고 전국을 순회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 전승관 건립불사 착수, 동방대학원대학교 개교인가, 복지법인 설립인가 등 성과에 이어 을유년 새해에도 태고종은 사회와 대중을 위한 참 불교를 실천하는 대승보살승단으로서의 기반을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운산 스님. 사진=고영배 기자

▲ '힘있는 종단' '사회에 기여하는 종단'을 표방하셨는데요.

-태고종이 도달해야할 지표(指標)라고 생각합니다. 인성회복을 위한 대각성법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중앙복지원 설립, 자원봉사단 구성, 인권 · 환경단체의 구성을 통해 종단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태고종의 변화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달라지기 위해 청산해야할 과제는?

-종도들 사이에 '종단이 변하고 있구나' '나도 동참하겠다'는 참여의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대승교화종단인 태고종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사회 깊숙이 들어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종단의 위상도 확립되고 종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태고종 전가족의 포교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구 대처싸움의 잔재로 그동안 스님의 권속들을 드러내놓고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태고종에는 2900여 사찰과 7000여 스님이 있습니다. 당장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5만~10만여명의 스님 권속부터 교육을 통해 포교사화 한 뒤 조직화 작업을 통해 종단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가족중심의 태고종 장점을 확실히 살리고, 사회참여 역량까지 갖춘다면 2~3년내 종단의 정체성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새해 태고종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은?

-먼저 종정 스님이 주석하는 순천 선암사가 종도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총림체제를 갖출 것입니다. 기존의 선원 강원뿐 아니라 율원을 갖춰 각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소속 사찰의 연 1회 선암사 순례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선암사 총림 확립… '인간성회복 법회' 계획
전승관 · 위성방송 통해 미래지향 역량 구축

▲올해 완료해야할 굵직한 불사들이 많은데요. 추진상황은 어떤지요.

-한국불교 전승관 건립불사는 올 연말이면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비 60억원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해 설립한 동방대학원대학의 발전을 위한 제2캠퍼스 조성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성방송도 올 3월 시험방송과 9월 개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원장의 소임을 맡아 3년만에 태고종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간의 소회가 남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인내와 하심, 사명감과 자신감을 갖고 소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종단이 발전의 토대를 이룬 것은 비단 총무원장 이하 집행부가 잘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1954년 불교법난이후 힘겹게 살아온 태고종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발전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종단 미래를 위해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1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젊은 사람들의 종단참여를 유도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키우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당부할 말은?

-세계 평화를 가르쳐야할 종교가 인류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자들은 넓은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슬기롭게 위기를 넘겨야겠습니다.

태고종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항상 종단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해 가느냐를 인식해달라는 것입니다. 현 집행부가 구습을 탈피, 새로운 차원의 종단 건설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을 계획하고 실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태고종도로서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올 한해 적극적으로 종단불사에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신도운동 50주년 맞아 기념사업 알차게 준비할터

인 터 뷰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조계종 신도운동 50주년을 맞는 2005년,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은 "신도운동 50돌을 맞아 올해는 소통과 나눔, 참여를 사업지침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백창기 회장을 1월 4일 만나 중앙신도회 50주년 기념사업 계획과 새해 포부를 들었다.



▲통합신도회 원년인데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통합신도회 역량 배가, 새로운 도약 기반 조성, 21세기 사회 발전의 주역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통합신도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자원 개발과 육성, 관리 체계화, 사회일반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문화연대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수행과 교육이라는 두 중심축을 뒷받침하는 조직 시스템 구축 역시 신도운동의 새 반세기를 이끌어가기 위한 기반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조계종 50년 신도운동의 위상을 재점검하여, 중앙과 지역 조직을 비롯한 신도조직의 공동체 문화 형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공동체문화 형성 역점
> 남북평신도대회 등 계획
> 이웃종교와 연대 노력"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도운동 50년 기념사업이 주요사업입니다. 50년 기념행사로 '불교타임캡슐' '50년 활동사진전' '학술세미나' 등을, 교류사업으로 '남북불교도평신도대회' '국토청도순례대행진' 등을 열어 통일에 대한 비전과 문화적 교류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웃종교와의 연대활동을 위해 '가족교환 홈스테이' '공동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도회관 건립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새 건물을 짓는 쪽이었으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께서 현재 신도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신도회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 신도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전폭적인 수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도회관과 더불어 신도들을 위한 문화센터, 연수원 운영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회관을 건립하지 않게 된다면 그 부지에는 연수원을, 건립 기금은 신도회 발전기금 조성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종교화합에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지난해 물꼬를 터서 기반을 마련한 이웃종교와의 연대사업은 홈스테이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자 종교의 분위기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불교와 가톨릭 종교인의 집에서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두 차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교연대 공동캠페인도 벌여 종교화합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아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중앙신도회는 승단을 외호하면서 신도 개인의 수행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신행공동체 건설에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강지연 기자

종단협 19일 조계사서 신년하례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5일 이사간담회를 갖고, 1월 19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키로 했다.

불교계 지도자 130여명을 비롯 정관계인사 50명 종단 주요단체 인사 200여명등 총 400여명이 참석할 이날 신년하례회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와 관련해 세계인류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문이 낭독될 예정이다.


태고종은 1월 5일 서울 봉원사에서 5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태고, 관음, 총화, 보문, 조동, 미륵, 여래종 등 불교계 종단들이 을유년 새해를 맞아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희망찬 첫걸음을 시작한다. 원효종은 11일 오후 2시 경주불국사문화회관, 13일에는 총화종이 오전 11시 남양주 수진사 총무원, 법상종 오전 10시 신축 평택 총무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한다. 관음종은 포항 약사원에서 14일 오후 1시, 총지종 26일 오전 11시 서울 총무원, 염불종과 삼론종은 설날인 2월 9일, 보문종은 2월내에 신년하례법회를 열 계획이다. 태고종(5일) 조동 · 미륵 · 여래종(6일) 본원종(7일) 원융종(8일)은 각각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종단의 발전을 기원했다.

김원우 · 강유신 기자

천태종 교원 · 학생회 14~17일 동계수련회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총본산 구인사에서 전국교원불자연합회 및 천태학생회 동계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제16회 전국교원불자연합회 동계수련법회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구인사 관성당에서 초 · 중 · 고 · 대학 교원(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포함)을 대상으로 열린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전국 천태종 사찰 사무실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43) 420-7399

또 제39회 천태학생회 동계수련법회는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며 참가회비는 5천원이다. 문의 (043)420-7310

김원우 기자

진각종도 템플스테이 22~23일 탑주심인당

진각종의 수행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진각종 문화사회부와 포교부가 주최하는 템플스테이가 1월 22~23일 서울 탑주심인당에서 열린다.

매달 셋째주 토 · 일요일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진각종 템플스테이는 진각종 안내, 다도체험, 발우공양, 계명정진, 전통등 만들기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진각종은 탑주심인당에서 1년동안 템플스테이를 열 계획이다. 일반불자를 비롯해 진각종 신교도, 청년회, 학생회, 외국인등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02) 913-0751

김원우 기자

에너지 36.4 고유가시대 연료절감은 필수! 이제 연료비 걱정은 끝


에너지 절약 콘트롤시스템 JAC 1001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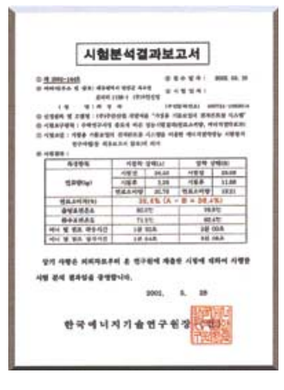
◇ 연료비 절감율
최저 36.4% ~ 최고 45%(기존 연료비 지출비 기준 대비)

◇ 절감기 용도
- 사찰
- 일반주택, 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 오피스텔)
- 식당, 상가, 병원, 산후조리원
- 숙박업소
-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기숙사)
-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모두 사용가능

◇ 연간 (6개월 기준) 난방연료비

연료비(1개월)	최저(30%)	최고(45%)	연간절약금액(평균)
15만원	45,000원	52,500원	315,000원
30만원	90,000원	105,000원	630,000원
40만원	135,000원	157,500원	945,000원
60만원	180,000원	210,000원	1,260,000원
75만원	255,000원	262,500원	1,575,000원
90만원	270,000원	315,000원	1,890,000원
110만원	330,000원	385,000원	2,310,000원

◇ 에너지 36.4 설치시 특 · 장점
1. 에너지 36.4를 설치시 난방비를 기존 사용량에서 약 30%이상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보일러 기술과 설비기술 사이의 틈새기술로써 제품가격 및 설치비가 기존 에너지 절약 아이템보다 상당히 저렴함.
3. 설치 후 조작이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4. 설치시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정도로 한 겨울에도 설치가 용이하다.
5. 기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가스보일러(저탕식)에 모두 적용가능하며 기존 보일러 시스템을 변경함 없이 외부에 전자콘트롤 시스템 설치만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6. 보일러 가동시간의 감소로 보일러 수명연장.
7. 반영구적인 수명.
8. 사용이 편리하여 이동설치가 용이(이사 또는 보일러 교체시)
9. 바닥온도 균배로 실내 쾌적도 향상(기온편차 최소화)


시험분석결과보고서

전국 지역 대리점 모집

소자본 창업 주안이 책임집니다
에너지의 혁명 36.4%
주안산업은 정부공인검증기관인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의 검증을 거친 보일러 에너지 절약 전자 컨트롤시스템입니다. 보일러에 한번 설치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설치사찰 : 해인사 문수암, 백련암, 청량사, 문경 봉암사, 서울 한성포교원 등.

주안산업 www.ejooan.com
대리점 문의 : 본사 TEL 053)614-1300~1
서울 · 경기 TEL 031)907-7093 H.P 019-9205-6337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조계종 결연 청소년 겨울캠프' 현장

만해 스님의 민족에 대한 사랑과 생명사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백담사 만해마을'이 을유년(乙酉年) 새해 벽두부터 '나눔'과 '사랑'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사찰과 복지관 차원뿐만 아니라 스님과 1대 1로 결연을 맺고 있는 전국의 불우 청소년 60여명이 나눔과 불교문화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법장)이 1월 5일부터 2박 3일간 마련한 '조계종 결연 청소년 겨울캠프'는 살을 에고 강을 얼리는 매서운 겨울 추위를 물리칠 만큼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조계종은 결연사업을 통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찰과 스님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백담사 만해마을로 떠나는 아이들을 배웅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오른쪽) 등 총무원 소임 스님들.



'나눔'과 '함께함'의 소중함을 배운 아이들이 겨울캠프 둘째날 새벽 낙산사 의상대를 찾아 기념촬영을 했다. 만해마을 주지 삼조 스님은 "밝은 표정만큼 씩씩하게 자라나 사회의 큰 그릇이 돼라"고 당부했다.

동장군 물렀거라 '결연의 情' 나가신다

 # 법장 스님 아이들에 모자 · 장갑 선물

"형! 잘 지내셨어요?"

"이번에도 다 같이 왔네!"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월 5일 아침. 전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조계사 앞에 하나둘 모여들었다. 지난 7월 수덕사에 함께 갔던 기범(19 · 대동정보산업고2) · 지현(16 · 중앙중2) 남매와 준우(11 · 청운초3) · 수연(7) · 준일(4) 남매는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충남 홍성에서 올라온 화정(14 · 용호초6)이도 함께 인사를 나누며 버스에 올랐다.

곧이어 법장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스님들이 아이들을 배웅하기 위해 우정국로에 나왔다. 버스에 오른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여러분들을 수덕사에서 만난지 6개월이나 지나 많이 보고 싶었다"면서 "썰매도 타고 바다도 보면서 즐겁고 신나게 놀다가 오라"며 함께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한다. 스님은 대신 아이들에게 모자와 장갑을 선물했다.

#"시간 없어요! 빨리 눈썰매 타러가요"

서울에서 4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백담사 만해마을'. 계곡 사이로 불어오는 삭풍이 아이들을 움츠리게 한다. 만해마을 주지 삼조 스님은 "매우 추운 날이지만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 좋은 우정을 만들고 불교문화체험도 잘하라"며 아이들을 환영했다.

스님의 인사에 이어 만해학술원장 김재홍(경희대 국문과) 교수가 만해 스님의 사상과 생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자와 장갑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눈썰매장에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연이 끝날 때 쯤 재미없다는 표정이던 하원(14 · 신자초6)이의 한마디가 들려왔다. "시간 없어요! 빨리 가요!"

강연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만해마을 옆에 위치한 한계천의 '만해아이스파크'로 자리를 옮겼다. 눈썰매장은 가만히 서있으면 그대로 얼어버릴 것같이 추웠지만 아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눈썰매를 처음 타보는 인혜(11 · 신내초3)는 빨갛게 달아오른 볼이 무색하게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린다. "너무 재밌다"는 인혜는 함께 온 동생 채연(7)이의 썰매를 밀어주며 추위를 물리쳤다.

 # 차맛이 우러나듯 진지함이 배어난다

저녁을 먹으며 몸을 녹인 아이들이 이번에는 학습관에 둘러 앉았다. "차를 정성껏 우려내면서 몸과 마음도 맑게 하는 것이 바로 다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해학교에서 다도를 가르치고 있는 김광자(인제한계초 교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방법과 차를 대접하는 방법을 배운다.

"뜨거운 물로 잔들을 우선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에 따라 아이들은 잔을 비우고 각자 직접 우려낸 차를 마시면서 다도(茶道)를 배운다. 아이들의 눈에서는 눈썰매를 탈 때와는 다른 진지함이 배어난다. 이랑(14 · 동자초6)이는 "경주 골굴사에서는 차를 만드는 과정만 봤는데, 여기서는 내가 만든 차를 직접 먹으니 더 재미있다"고 소감을 말한다.

 # "왜 부처님이 세분이죠?" 모든것이 궁금하다

첫째날 늦게까지 진행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둘째날 새벽 6시에 낙산사를 찾았다. 그러나 날씨가 흐려 해를 보지 못했다. 아이들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낙산사를 참배했다.

경내를 둘러보면서 아이들은 불교를 보고 느낀다. 아이들은 "왜 여기에는 옛날 집들만 있어요?", "법당에는 왜 부처님이 세분이나 있나요?", "절에는 왜 이렇게 큰 탑이 있나요?"라며 잇따라 질문보따리를 풀어놓았다.

곧이어 "원통보전(圓通寶殿)으로 가세요"라는 인솔자의 말에 지친 표정의 태현(14 · 동자초6)이가 "거기서 밥 먹나요?"라고 말하자 좌중은 웃음바다로 변했다. 아이들은 '사찰식 부페'로 마련된 아침 '공양'을 하며 허기를 채웠다.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결연캠프에 참가한 이영현(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1)씨는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불교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한다. 보라(14 · 우신초6)도 "절에 와서 여러 유적들을 보면서 불교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느낌을 전했다.

 # '나눔'의 소중함 배운 아이들 마음 따뜻하길…

아이들은 이후에도 글짓기와 촛불기원시간을 통해 올해 계획한 자신의 포부를 친구들에게 알렸다. 또 2박 3일간 일어났던 일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저기 나 나온다"며 즐거워했다.

동생 대용이와 함께 온 지용(17 · 번동중3)이는 "막내 동생 미정이는 몸이 아파 함께 오지 못했다"며 "미정이에게는 캠프가 별로였다"고 말할 생각이라고 했다. 미정이가 너무 부러워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결연을 맺고 있는 예슬(13 · 서울 효제초5)이는 "스님들이 안 계셔서 너무 허전하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예슬이는 "집에 돌아가면 법장 스님께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고 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과 들은 물론 사람들의 마음까지 얼게 한 겨울 바람이 만해마을을 찾은 아이들 앞에서는 주춤한 듯했다. '나눔'과 '함께함'의 소중함을 배운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이다.

글=유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자! 달려라!" 신나게 썰매를 타고 있는 아이들.



손수 우린 차를 마시는 아이들의 표정이 환하다.



이른 새벽 낙산사에서 일출을 기다리는 아이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2 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3 일	전용버스	소림사, 탑림, 백마사 순례
4 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5 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응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 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 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 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 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그림 · 박구원

일터 불자들 올해는 이런 일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불심을 꽃피우고 있는 직장불자들. 이들의 새해 다짐에서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서려는 '희망'이 읽혀진다. 빠르게 변화하는 근무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신심을 키우려는 갖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이 곧 수행'을 일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요 직장직능연합단체들의 새해계획을 들어보았다.

모든 행사 가족과 함께 참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260여 단체가 소속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세호)의 올해 목표는 '참여'다.

공불련은 참여주체를 회원에서 가족으로 확대해 기관별 모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4월과 6월에 열리는 성지순례와 수계법회, 10월 열리는 창립 5주년 기념법회, 공무원불자 봉사의날 행사 등 모든 대내·외 활동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불련은 또 기본적으로 열리는 법회를 수준별 법회, 문화체험 법회, 봉사 법회 등으로 다양화시켜 나간다.

시도별, 단위기관별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일도 공불련이 올해 역점을 두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시도별 불자연합회 결성, 단위기관별 공부모임 운영 권장, 지역별 거점사찰에 대한 도서 지원, 회원들의 재적사찰 갖기운동 등은 이를 염두에 둔 활동이다.

매일 우리말 예불로 신행 혁신

대한민국경찰불교회 '신행 혁신',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한진호)가 경찰불자들에게 던진 올해의 화두다.

경불회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말 예불문과 반야심경을 111개 소속단체와 경찰불자들에게 보급하는 운동을 벌인다. 또 각급 경찰서에 설치된 법당에서 매일 예불 올리는 운동도 전개한다.

전국 220여 경찰서와 지방청, 경찰관계기관에 불자모임을 창립하는 일도 창립 8년째인 경불회의 변함없는 원력이다. 경불회는 올해도 해양경찰서를 포함해 10여 경찰서에서 경찰불심을 하나로 모을 계획이다. 경승단, 조계종 포교원 등 유관단체와의 관계 재설정은 경불회가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지구별 역량 키워 '괘속 질주'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은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회장 김해수)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래를 펴는 철불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21개 소속단체의 조직 정비에 나선다.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이름을 바꾼 직장의 변화와 회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회원들의 신행여건도 악화됐기 때문이다.

조직 정비는 활동이 미약한 일부 소속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된다. 재경, 중부, 동부, 남부 등 4개 지구의 조직을 십분 활용해 지구내 단체간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불협내 10여명의 포교사들의 회원외 직원들에 대한 포교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내실 다지기 · 종교간 화합 모색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의료인불자들의 원력으로 2000년 창립된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는 '도약을 위한 내실 다지기'를 올해 목표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병불련은 소속단체의 활동력을 높이고 소속단체간 연대를 강화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활동을 만회하고 창립 5년에 걸맞는 모임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병원불자회가 구성돼 있으면서도 병불련에 가입되지 않은 모임들의 회원 가입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3대종교가 함께 하는 화합행사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연등축제 의료부스 운영과 매년 2차례 실시하고 있는 의료봉사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 확대도 모색한다.

몸집 키우며 결속 강화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창립 8주년을 맞는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김진관)는 '외연 확대'를 올해 목표로 삼는다.

대전지역 2~3곳의 산악회가 가입의사를 밝혔거나 협의를 진행중이고, 인천·의정부 지역에서 불교산악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어 불교산악인련의 외연확대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가입된 40여 단체 가운데 활동이 미진한 10여 곳의 산악회에 대한 지원도 산악인불자들의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다. 불교산악인련은 이들 산악회의 조직개편과 재정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불교산악인련은 또 올해 새로운 임원들의 영입을 시도한다. 불교적 소양을 갖추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영입 대상이다.

'침체는 없다' 불심 활활~ 만들 터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내실'은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이탁수)가 올해 역점을 두는 단어다. 기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조직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잇따른 인수·합병으로 구조조정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금융권의 현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도 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불련은 운영위원들을 활용해 이름만 유지할 뿐 활동이 중단된 중소기업은행과 조흥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의 불자모임을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진력하는 한편, 불자모임이 없는 국민은행의 불자회 결성을 추진한다.

'교수 포교사 제도' 도입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학생불자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는 '대학생 포교'를 올해 화두로 삼았다. 대학생 불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수불자연합회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다.

조계종 포교원과 교수포교사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교불련은 이르면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첫 교수포교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대학 불교학생회 지도를 맡게 될 교수포교사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대학생 포교에 나선다. 아울러 각 대학의 교수불자회 결성과 교불련 가입을 유도해 대학생포교에 힘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보현회

환자를 부처님 모시듯 … 병원을 도량처럼
복지관 찾아 의료봉사, '세상의 양약' 서원

을유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민족과 인류사회,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보현회입니다.

우리 보현회는 불교의 자비정신과 약사여래부처님의 대원력을 받들어 1999년 12월 1일 창립되었습니다. 80여명에 달하는 모든 교직원이 보현회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면서 환자를 부처님처럼 모시며 병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병원이 '수행도량'이라는 생각으로 근무하며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방 협진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술을 펼치면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웃에 전하는 '포교사' 역할을 수행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녔습니다.

보현회는 건강검진과 의료봉사를 위주로 활동하면서도 회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종 법회와 수련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같은 활동은 병원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회원들의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정기법회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 9층에 마련된 약사전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보호자, 보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법우님들이 하루 빨리 완쾌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발원하는 시간입니다.

건강검진과 의료봉사는 사찰과 불교계 복지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의료봉사를 수련회와 겸해 진행하는 점은 우리 보현회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의료진을 파견하여 내·외국인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불자들의 건강검진과 진료를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격주로 서울 옥수종합복지관을 찾아 인근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진료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산사에서 수행중인 스님들의 건강을 체크하다보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진을 안타깝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스님들과 불자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신행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또한 보현회는 병원을 찾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불교를 보다 널리 펼 수 있는 포교법을 구체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현회원들은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듯 보현행자로서의 마음가짐과 보현행원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또한 다양한 신행활동과 의료봉사를 통해 모든 환자들에게 양약(良藥)이 되어 더 많은 중생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약사여래부처님의 손길을 닮은 약손이 되고, 늘 초발심을 마음에 지녀 실천이 앞서는 보현행자로 거듭나기를 서원합니다.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보현회의 의료봉사는 한·양방 협진으로 인기가 높다.

■김명숙 수석부회장(책임간호사)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서울.부산)

2005학년도 대원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모집안내

■ 모집과정
- 입 문 과 정 : 부산 - 100명[주, 야간 1회 출석 오전 11시, 저녁 7시]
- 대 학 과 정 : 서울 - 야간반 100명, 부산 - 주. 야간반 각 100명 [주간 : 오후 2시, 야간 : 오후 7시]
- 대학원과정 : 서울 - 야간반 10명, 부산 - 야간반 50명 [주 2회 출석, 오후 7시]
- 통 신 과 정 : 00명

■ 지원자격
- 입문과정 : 불교 기본 교육을 받고 싶은 초심자
- 대학과정 :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원하는 자
- 대학원과정 : 불교대학 졸업자 및 해당 학력이 인정되는 자 [포교사 자격 소지자 우대]

■ 전형일정
1) 원서교부 : 2004년 12월 15일 ~ 2005년 2월 14일까지
2) 원서접수 : 2004년 12월 15일 ~ 2005년 2월 18일까지
- 대학원 면접 및 구술시험일
- 서울 : 2005년 2월 19일(토) 14:00 서울 대원불교대학 2층 대학원 강의실
- 부산 : 2005년 2월 20일(토) 14:00 부산 대원불교대학 4층 대학원 강의실

■ 전형료 및 수업료
- 전 형 료 : 입 문 과 정 10,000원, 대 학 과 정 20,000원, 대학원 과정 50,000원
- 전형료 납부 : 국민은행 098-01-0230-530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 수 업 료 : 전액 장학 혜택 [교재비 별도]
- 기성회비 : 입문과정 월 1만원[학기당 4만원]
대학과정 월 2만원[학기당 8만원]
대학원과정 월 3만원[학기당 12만원]
※ 기성회비는 대원불교대학 시설 운영의 기본 비용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 :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773-9171
현대불교신문사, 책방 여시아문
- 부산 : 부산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051)583-7700,583-7811~2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1부
2) 학업 및 연구 계획서 1부(대학원 과정)

대원불교대학 www.idaewon.or.kr

■ 전임교수진 및 담당과목
▶ 장휘옥 - 부산대학교 화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 졸업, 일본 동경대학교 인도철학과석. 박사과정 졸업, 문학박사 ●지도과목 : 정토사상, 화엄사상, 중국불교사상사, 한국불교사상 등
▶ 허경구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중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동대학원 불교학과 석, 박사과정 수료, 인도 바라나시힌두대학교 빨리어,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지도과정 : 인도불교사, 구사학, 경전성립사, 대승불전강독 등
▶ 김사업 -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박사과정 졸업, 일본 국립 경도대학교 문학연구과(불교학과정), 박사과정 수료, 철학박사 ●지도과정 : 중관학, 유식학, 여래장사상 등
▶ 최봉수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박사과정 졸업, 철학박사 ●지도과정 : 불타론, 초기불교연구, 초기불전강독 등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가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본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필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채 요가지도자 용

- 지원자격 : 1. 2004년도 4년제 대학 졸업자 or 2005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요가 수련 경험이 없어도 심신이 건강한자 지원가능
  2. 대구 지역 근무 가능한자
- 제출서류 :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주민등록등본
  4. 재적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 접수기간 : 2004. 12. 10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인통보 면접
- ※ 이메일접수 : albong99@hanmail.net

휘트니스 요가원 대구시 중구 포정동

영남범음범패
천도재 49재 수륙재
바라 · 나비무 회심곡 호적
행사해 드립니다
학인스님 모집. 부산범음범패연수원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역리인 초빙
현대생활역리 협회에서는 웰빙시대 역술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전당으로 선착순 초대합니다.
1. 특 전 : 교육 후 전원 취업보장
2. 자 격 : 면접 후 합격자에 한함
3. 교육기간 : 2주
4. 교육방법 : 특수지도
5. 인 원 : 선착순 20명
현대생활역리협회 02)468-5398
2호선건대역과 성수역사이 오성빌딩 3층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비구니스님이 만든 야생오미자차
高山에서 자생하는 오미자
기관지,천식,간장병,신장병
쉽게 피로하며 잘 붓는 사람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잔드린 함유
055)345-6667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영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7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신축 사찰 창건하실 주지스님 모십니다
강원 인제
011-9109-3660
(24시간 상담)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영주시
054)637-88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제천
043)644-7227
019-243-2205

행자모심
고졸이상 만40세미만
대학 · 대학원까지
책임 후원함
02)917-3363(정릉)

행자모심
(스님이 되실분,50세이하)
경북 칠곡군 지천면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황룡사**
종무실 054)972-3174
종무실장 011-9942-2472

빌딩관리구함
깔끔하고 부지런한 불자원함
남. 65세까지 가능 (월80만원)
근무시간 : 8시~19시(월~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02)3477-9002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높이(좌대포함)23석자 (옥촛대, 향로, 다기)한세트, 초꽂이 180개
- 대불조성비용 5500만원 절충가능. 꼭하실분만 연락요망
- 위치 : 경북

010-5425-909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 ~ 60세
011-9854-981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11-9723-096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3825-6909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북포항
천년 관음도량 자장암
011-584-088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
011-493-1121

모십니다
불교관계(사찰운영)동참자
(스님, 처사, 보살)
위치: 경상북도 경주
051)894-2464
011-572-2464
011-9233-5058

사천왕상을 모십니다
용화사는 미륵존불 자비신앙 도량입니다
불사에 도움주실 인연있는 불자님 소원성취 기원
- 공양주 모심(50대~60대, 신심있는 불자)
경북 예천군읍 동본리 165-1 용 화 사
054)654-4925, 654-7030 / 011-758-1819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055)681-0780
011-9511-0780

봉사하는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할 신심 깊은
처사님 모십니다
(공무원출신, 자동차소지자, 50세이상)
011-831-6434

기도스님 필요한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0-9475-9405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구기동 위치
011-439-1096

탈종공고
● 사찰명: 약사암 ● 법명: 자안(태순희) ● 승려번호: 08-20
● 주소: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44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2004년 12월 20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바로 고침
대한불교 조동종 임원공고
(본지 506호(12/29) 2면 하단 광고)
- 副宗正 催諸空 → 副宗正 崔諸空
- 僧正委員 催圓峰 → 僧正委員 崔圓峰 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십팔숙 특별지도
- 역술과 이십팔숙의 특수비법을 쉽게 설명
  불설 28숙은 모든 역술을 총괄하는 비법이며 이것을 모르고는 역술을 논할 수 없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 02)926-1259 / 011-741-0867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송암 범음대학 단기반 학인모집
2005년 1월 11일 ~ 1월 20일까지(10일간)
대령 · 관욕 · 불공 · 시식 등
단기 속성반 10일간 교육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 85호 보화당 한의원 옆 3층
063)643-6619, H · P 011-9454-6619(종산스님)

당뇨
- 혈당조절 물질
- 콜레스테롤 조절성분
- 혈액순환 촉진성분
- 기타 천연성분,미네랄

특수영양식품

당화혈색소 관리가 합병증 예방에 필수조건입니다.
평소에는 혈당측정, 2개월후에 당화혈색소(HbA1c)를 측정해보면 혈당관리용 제품의 품질을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제 조 : 미국의 세계적 특허기술 처방제품
일본 수출중!
판매원 : 눈밝은 세상 (02)2237-8004

요사채 건축공사 및 내부시설공사 전문
1.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
2. 증축 확장 개보수 공사
3. 보일러 설비 및 위생배관 공사
4. 전기 공사
5. 샷시 창호 공사
6. 미장 방수 공사

불심으로 봉사하는 **여일 종합 건축 공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12-22 대표 윤재만
TEL. 02)476-8139 H P. 011-9720-1443

(주)해피세븐 www.hansmall.co.kr



꿀벌이 만들어 낸 천연건강식품
독일 직수입 아가드 **프로폴리스**
효능) 강력한 천연 **항생, 항균**작용
간장기능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천연의 항산화제
02-521-0648 / 011-241-6822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 22일(화), 24일(목)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 체계적인 교육
▶주 · 야간반 선착순
- 3월 22일(화)-주간반, 24일(목)
- 주 · 야간반 각 요일 선택. 주 1회
- 불교 TV 금강경강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큰스님들의 특별 법문
- 인터넷방송국,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출가 학교 및 행자 모집
문의 : 011-9852-0075 충무스님

문의-대구큰절: (053)474-8228,
경산도량: 811-0337, 칠곡도량: 312-8221

인터넷 홈페이지 : www.TVbuddha.co.kr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쑥뜸을 하면 무병 장수한다
- 오행 쑥뜸기 좌훈기 전통 좌훈요법 첨단기술 접목 -
- 여성 항문 질환, 산후 질 팽창과 요실금 등 -
- 연기, 화상 위험이 없는 쑥뜸기, 쑥좌훈기 출시 -


오행 쑥뜸기





적용혈자리 : 중완혈, 신궐혈, 관원혈, 천추혈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오행 좌훈기


음양 쑥뜸기
(무릎관절용)

적용혈자리 : 회음혈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 성기능개선, 신경성과민대장염, 갱년기 장애

적용혈자리 : 백회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독비혈, 족삼리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 제품의 특징 -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된다. *타이머가 장착되어 편리하다.
*ISO9001 인증제품-쑥뜸기, 좌훈기 *쑥뜸 시 화상위험이 없다.

제품 구입시 쑥 한달분 무료 증정 **오행쑥뜸방 모집중**

D.M.I 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전통의식 및 강원교육 안내

본원은 전통의식, 강원으로 범음, 범패 및 조계종 강원에 준하는 교육으로 학인을 모집함

교육기간 및 과정
- 강원강사 : 조계종 교구 본사 강원 강주로 40여년 강의하신 대강백 큰스님
- 의식강사 : 중요 무형 문화재 범음, 범패 전문 강원 원장스님

강원과정

초발심, 자경문 치문반	6개월
사집반(서장, 도서, 절요, 선요)	6개월

의식과정

기본 의식반(6개월)	도량석, 종성, 예경, 불공, 재의식
전문 의식반(6개월)	점안의식, 각종시식, 특별의식
작법 의식반(6개월)	바라춤, 나비춤

- 원서접수 기간 : 2005년 2월 18일(전화접수 가능)
- 개강일시 : 2005년 2월 25일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반명함 사진 3매

특전

1. 타의식 교육원에서 교육 수료 후 안채비성 등등 부족하신 본 집중지도 함
2. 의식과정 수강 시 강원과정 무료 수강함

※ 본원은 초종파 승속 불문하고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선착순인 관계로 미리 원서접수 바람

송강 범음 강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번지
전화 : 031)676-5929 ▶서울, 경기 지역에서 40분거리임◀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 그동안 많은 독자의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30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2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포교당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강북
● 법당 요사 : 60평
● 임대료 : 480/55
● 시설비 : 1200만

● 위치 : 전남
● 법당 : 25평
● 요사 : 25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3억8천

● 위치 : 전북
● 법당 요사 : 40평
● 삼성각 : 3평
● 부지 : 311평
● 가액 : 2억6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절터: 종로10억(2000평 집90평)
청계산5억(150 집60평) 천안4억(8070평)
남양주4억5천(2500평) 평창5억3천(5300평)
서산1억(14000평) 양평10억(55000평)
가평1억7천(8300평)
● 사찰-서울: 1억, 3억, 7억, 4억2천
4억5천, 6억5천. 경기: 9억, 9억5천, 5억5천
음성: 1억5천 서산: 6억 대전: 5억
울산: 4억5천. 그외 사찰터 多 공양주 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경북대 후문) 대로변
● 평수 : 신축 건물 130평,주차장 완비
(5층 중 4 ~ 5층)엘리베이터
●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40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및 사천왕 탱화
500옥불 인등, 방7개, 화장실 5개,
일제 시스템 에어콘, 무선앰프 집기류 일체
● 가액 : 전세 2억 1천만원
시설비 1억 4천만원
※ 최적의 포교중심지. 몸만 오시면 됨

053)959-0490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북구청 사거리
(지하철 4호선에 3분거리 대로변)
● 법당 : 45평. 기본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1천3백만원에
월 60만원

02)996-5515
010-7197-7485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요사 : 23평, 산신각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충청도
● 부지 : 3000평
● 건물 : 70평(임법당,방6개,
입식주방, 욕실,화장실)
창고10평, 하우스1동,
심야전기보일러
● 가격절충(싸게드림)

011-763-1080

암자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 건평 : 법당 18평, 삼성각5평,
주지실 13평, 요사채19평
● 대지 : 350평 사용
● 가액 : 8,500만원
● 산세 아늑하고 편안함, 수행과
포교에 적합. 집기일체 양도가능.
모든시설 완비

041)578-3565
010-7770-3223

포교당안내

● 위치 : 마산 부림시장 입구
3층건물
● 법당, 공양간, 화장실,
방3개 60평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천200만원
● 법회가능

011-9232-2643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 약 40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 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400만원
● 덕산온천욜. 4일, 9일 장날

041)337-8078
018-601-3389

1. 충북옥천(대전15분거리) 대200평 법당25평 1억3천5백
2. 청양 칠갑산 대212평 건20평 임법당20평2800만
3. 충북옥천 대300평 목조법당40평 2억
4. 청양 칠갑산 도림온천내 대1000평 목조건물35평 5억
5. 공주 마곡사 부근 차령산맥 임야2900평 1300평 평당8만
6. 청양 칠갑산 임법당 대200평 텃밭(건물만) 1500만
(대전권 사찰 급구함)

大田 017-409-959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수서역 근교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6억
● 산세좋음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재
● 부지 : 35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5억
● 산세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 2층건물 2층, 법당 18평
● 3층옥상, 방1, 목욕탕1
● 삼존불,후불,신중탱화
모셔져있음
● 가액 : 보증금 없음. 월 25만원
시설비 : 450만원

061)744-5623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대지: 230평
● 구조: 법당 24평
요사채 30평
● 주차장: 10대가능
● 가액: 4억5천만원
(절충가능)

011-848-4210

사찰안내

● 위치: 대구시 북구
● 대지 320평
● 대웅전, 공양간(2층)
산신각, 요사채 등
● 부대시설완비
● 가액: 13억

011-817-288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주례동
● 평수 : 45평 3층건물중 2층
● 큰법당 1칸, 방2칸,
입식부엌 및 화장실
● 법당에 삼존불, 지장불, 신중탱화,
산신불, 용왕불, 영가단
● 가액: 전세500만 월45만
(가격은 주인과 협의)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공부지도 관계로 떠남

011-9551-8799

좋은 인연 찾음

● 백두대간 지리산 동하 뒤 천황산자락. 무량산.
남 앞으로 천왕봉, 장군봉 좌천룡우백호의 봉황포란형
● 종교부지 300여평 기타 1000여평 태백산 赤松
원통전 30평 요사채 30평 기타 지음
● 자연경관 300여만평의 숲에 쌓임. 숲속산길 일품
● 선방 및 기도처 휴양공간으로 최적. 등산로 옹달샘
● 여러조건 10억 → 지금 5억(불경기 및 급히 인도 요양)

010-8019-4862 고성(경남)

사 찰 안 내

〈전원주택〉
● 위치 : 웅촌
● 부지 : 450평
● 건물 : 30평
● 가액 : 2억8천만원
● 천성산아래 외딴별장

● 위치: 부산 동래구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전세5천
월세50만원 ● 차진입가능

● 위치 : 청송 보현산
● 부지 : 15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40평
● 가액 : 4억
● 기가 막힌 산세,버스진입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용인시 시내
● 평수 : 건평 42평 4층
● 법당 및 산신각 단청완료
방 2개 큰거실 주방 욕실
● 가액: 보증금4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7-372-8968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안계
● 대지: 150평
● 건물 47평 재래식화장실2,
창고1, 임법당, 넓은거실
(50명수용가능)
● 조립식건물 7평(별도)
수세식화장실, 넓은마당
● 가액: 4천만원

019-265-2426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평수 : 33평, 시유지 20평
법당, 요사, 부엌 별도
● 가액 : 9천만원(절충가능)
● 위치 : 충북청원군
(청주시에서 20분거리)
● 평수 : 466평(대지)
● 법당 26평, 요사 26평, 창고 30평
● 가액 : 2억2천만원(절충가능)
※ 물 1급수

010-9427-4995

암 자 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일월산 자락
● 전1200평, 대지30평
● 수행공부만 하실분 가능
● 가액: 총2000만원

054)674-0097
011-538-7266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원안내

● 위치: 김포시내, 중앙승가대학교
오분거리,현재 4학년 졸업반
● 평수: 3층중 3층 / 55평
● 특징: 큰방2 영가단-방1별도
108평분집기, 최고급불기
스님방에어컨, 전체보일러
● 스리랑카불교이주노동자월례법회
● 법당: 원목상단, 후불탱화/50평
지장호신동불 216불
● 가액: 전세4천/시설비2천/합6천

011-820-1500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조금한 야산 밑
원주역에서 5분거리
터미널에서 10분거리
● 대웅전, 지장전, 산신각
각전 단청 되었음.요사채2동,
스님방별도, 시설물 집기일체
● 가액 : 2억 5천만원
전세가능 3천만원(답사후절충)

011-327-586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부곡동
● 평수: 42평, 빌라트상가건물 2층
● 부산대학교 지하철역에서 200m
● 가액 : 전세 2천만원에
월 70만원
시설비 1천 5백만원

051)517-8018
010-4802-801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일반주택 사찰)
● 대지: 160평 ● 건물(시설): 36평
(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답사 후 가격 절충 可)

019-503-795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칠성시장內
● 건물 : 5층 건물 중 2층
● 법당 : 7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70만원
가액 : 답사 후 절충 可

010-7578-0108

사찰안내

● 위치: 경남통영시내
● 법당, 요사 2채, 화장실
● 가액: 보증금 없음
월 20만원
시설비 2500만원
답사 후 절충

010-6355-6397

포교당(급)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2층. 50평
● 삼존불, 각단 후불탱화, 지장전, 법당18평,
큰방 2개, 주방, 화장실 따로.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약간의 시주금으로 평생절에서 기도하며
함께 지내실 분을 모십니다

016-261-2068

법당안내

● 위치: 경주 보문동
● 대지: 160평
건평: 47평
기와1층
● 가액: 답사후절충
● 포교당으로 사용가능

019-522-3612

토굴안내

● 위치 : 밀양시
부북면
● 가액 : 8천만원

017-593-969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목동사거리
남부시장옆
● 평수: 약 53평
● 삼존불, 방2, 주방1, 목욕탕
●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02)2645-4200
011-621-921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 법당 : 40평
● 특징 : 옥상시설 사용
13평, 판넬
● 보증금 : 1천만원
월 40만원

053)957-9551
011-398-980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시내지역
● 대지 : 350평
● 시설 : 집기일체 양도함
● 특징 : 시내가 한눈에 보임
● 가액 : 보증금 1억 500만원
융자안고 양도 可

018-541-1890

사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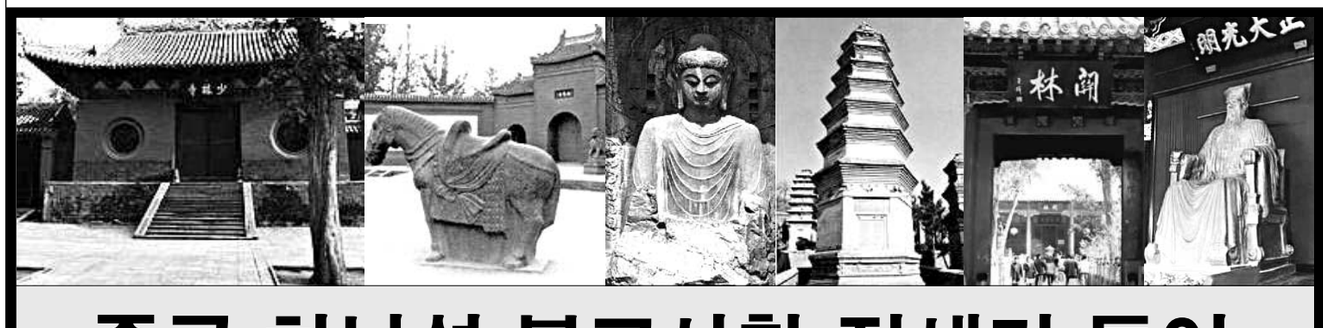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1-9238-996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구 죽전동
● 대지 : 76평(평당 300만원)
● 건물 : 2층 주택
● 특징 : 현시세 대지 값도 안됨. 대단위 아파트부근
타용도 사용可(포교당, 식당, 학원)
● 가액 : 보증금 : 2억 2천 8백만원(융자 1억 2천만원)
● 기타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주인과 직접 상담

053)633-1444 / 011-9855-5037



중국 하남성 불교사찰 전세기 투어

최초부터 최고의 사찰을 한번에 만날수 있는 기회

● 출발일: 2005년 2월 9일 (4박 5일 투어) ● 요 금 : 599,000원

최고의 소림사 최초의 백마사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포청천의 개봉부 관우의 관림 등

공항세, 출국세, 전쟁보험금 포함 비자수수료 및 가이드 팁 별도

● 주요명소 :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림사
중국최초 불교사찰 백마사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판관 포청천의 개봉부
삼국지 관우의 묘지 탑림

● 비자 신청 서류
여권 카피 1부 팩스 송부
(유효기간 : 6개월 이상)

◈ 일 정 표 ◈

DATE	CITY	TRANSIT	TIME	LOCAL SERVICE	MEALS
2월 9일	인천 정주	전세기 CZ8090	22/50 23/50	전세기로 서울 출발 / 정주 도착 후 호텔휴식	
				호텔 : 정주 홍산호 호텔(4성급) 또는 동급	
2월 10일	정주 등봉 낙양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등봉.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림사, 역대 고승의 부도인 탑림, 소림사 무술 시범단 무술시범 관광, 현지 중식 후 중국 최초의 불교사찰 백마사 관광. 낙양에 도착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 낙양 모란성 호텔(4성급) 또는 동급	
2월 11일	낙양 정주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중국 3대 석굴인 용문석굴, 백원 관광. 현지 석식 후 삼국지 관우의 묘지인 관림 관광. 개봉으로 향발.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 개봉 옥상 호텔 (4성급) 또는 동급	
2월 12일	정주 개봉 정주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명대, 청대에 남방 귀족상인들이 모임을 가졌던 산섬간회관, 포청천의 관저 포공사 관광. 현지 중식 후 판관 포청천의 개봉부, 철탑공원 관광. 정주로 향발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 정주 홍산호 호텔(4성급) 또는 동급	
2월 13일	정주 인천	전세기 CZ8089	19/00 21/50	호텔 조식 후 하남성 박물관, 황하 유람구 관광. 현지 중식 후 대하촌 유적 관광. 전세기로 귀국.	조식 중식

MEETING	○	SENDING	○	GUIDE FEE	○	AIRPORT	○	SIGHTSEEING	○
REMARK	불포함사항 : 기사와 가이드 팁, 비자수수료 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차량, 식사, 호텔(2인 1실), 입장료, 인천공항세, 전쟁보험금, 출국세 (전체비용 포함) 전세기 인 관계로 출,도착 시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 신청마감 : 2005년1월 24일 ◈ 계 약 금 : 150,000원 ◈ 비자수수료 : 24,000원
◈ 연 락 처 : (주)격린여행사 TEL 02)332-4522, 8922
FAX 02)337-3231, 3858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국보 · 보물급 성보 회수 '박차'

'무구정광대다라니' 등 1천 94점 협상 중… 유물기증 운동 전개
올 9월 개관 맞춰 '한국불교 1700년 삼보특별전 I - 佛' 준비

오는 9월경 개관 예정인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금동사리외함 등이 포함된 국보 제126호 '불국사삼층석탑내발견유물일괄'이 돌아온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위탁 관리돼오던 문화재들에 대한 불교중앙박물관준비팀(이하 준비팀)의 회수 협상의 성과. 그밖에도 보물 9점, 지방문화재 3점 등이 회수 확정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불교문화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금동제 사리외함.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 사리함 가운데 가장 세련된 작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왔으나 9월 경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준비팀은 지난해 18개 사찰의 위임을 받아 1천94점의 성보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동국대박물관 등에 회수요청하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현재 회수요청 문화재 가운데 소유관계가 분명한 70% 가량이 회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머지 30% 유물에 대해서는 조계종과 기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분쟁의 소지도 없지 않다. 회수 유물은 원소유자(사찰)가 원하고 보관 능력도 갖고 있을 경우에 한해 원소유자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위탁유물 회수 이외에도 준비팀은 유물 기증운동을 전개해 소장품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이 관리하고 있는 300여 점의 유물 가운데 외부에서 기증한 유물은 대구 동불암 보명스님의 묘법연화경 16곡병풍, 서울 태양사 진여스님의 관음보살좌상, 불감, 불전, 용왕상, 선재동자상, 백자호, 청양 장곡사 대진스님의 와전 7점 등 31건 37점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장품 확보와 더불어 준비팀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은 개관 특별전이다. 개관에 즈음해서 열릴 '한국불교 1700년 삼보특별전 I - 佛'에는 가치 있는 국내외 성보 20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불교문화를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조망하는 최초의 전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개관 특별전을 위해 준비팀은 일본과 북한의 성보를 대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준비팀 관계자는 "미술품 혹은 문화재로 인식되는 전시가 아닌 전시 자체가 넓은 의미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존 관례적 의미의 전시와는 다른 시각의 차별적 전시를 지향하고 있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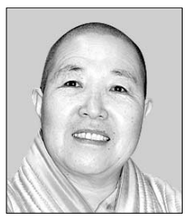
박물관 출범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관련 종법 개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교구 본 · 말사의 성보 보존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보박물관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문화부 관장업무에 성보박물관 지도감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종무원의 의무에 성보관리 및 보존 의무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총무원법 · 성보보존법 · 종무원법 · 지방종정법 등의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3월 종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인터뷰

"성보 관리 역량 한층 강화됩니다"

불교중앙박물관 설립준비위원장 성정 스님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은 성보 관련 행정 · 조사기능에 이어 보존 및 교육기능까지 갖추게 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종단의 성보관리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조계종단의 성보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부장으로 부임, 바쁜 새해를 맞고 있는 성정 스님(사진). 스님은 "종단의 박물관인 만큼 성보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홍포하는 교육 장소다"며 이 같은 관점에 입각해 성보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문화재 보존처리 인력을 충원해서 차차 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할 구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정 스님은 "현재 각 성보박물관이 관계자 개인에 따라 활성화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보박물관 관련 종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정 스님은 유물 기증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불교중앙박물관은 사찰에서 사라져간 문화재들을 한데 모아 우리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곳이며,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곳인 만큼 믿고 유물을 기증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익순 기자

■'중국 강남과 한국문화교류' 학회 참가기

고려사 · 천호암과 한국불교관계 조명

변인석 (前 아주대 교수)

지난해 12월 21~23일 중국 절강대학에서는 '중국 강남과 한국문화교류'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열렸다. 고려사(高麗寺) 복원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를 조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필자가 속한 불교문화분과에 6편의 논문이 발표된 가운데 중국 측 김건인 절강대 교수의 '고려사 중건과 중한문화교류'와 방용용(方龍龍) 교수의 '하모산-한국불교 임제종 발원지'가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의 논문은 항주시가 독자예산으로 추진 중인 고려사 중건에 대한 한 · 중 양국과 각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변인석 교수

방 교수의 논문은 관심 갖는 이 없는 하모산 천호암 터를 4번이나 답사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충실한 논문이었다. 방 교수처럼 현장을 통한 답사보고서는 중국에서 흔치 않다.

학회를 마친 후에는 주최 측 주선으로 항주시 종교국장과 설계회사 직원을 만나 고려사 중건 방안을 들었다. 명대의 것으로 보이는 고려사 그림에 의거해 조벽 · 방생지 · 천왕전 · 대웅전 · 화엄경각 · 윤장전 등을 산세에 따라 앉히는 방안이 유력해 보였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고려사'가 원래부터 고려사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본래 이 사찰은 혜인사(慧因寺), 혜인고려화엄교사 등으로 불렸던 것이고 보면 중건 사찰을 고려사라 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근래 들어 '고구려', '신라'가 지명에 포함되는 경우 '해음(諧音)이라 해서 발음은 같되 의미가 달라지도록 한 자를 바꿔 쓰는 것이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사라는 이름을 채택한 데는 김준엽 교수(사회과학원 이사장)의 공이 컸던 것 같다.

혜인사가 처음 고려사로 불렸던 기연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승인 혜인사 주지 정원(淨源) 스님을 만나고 고려로 돌아온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1087년 금서삼역의 <화엄경> 180권을 보내자 정원 스님이 이를 기념하고자 화엄대각을 세웠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혜인사는 고려사로 불리기 시작했다.

고려사 복원과 관련 항주시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중국의 전통문화를 각기 중시한다 △의천국사와 관련된 것을 살린다 △중국승려가 관리한다 △한국 스님과의 교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등을 기본방침으로 세웠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의천각(義天閣)도 중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려사 중건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고려사 못지않게 우리 불교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곳은 하모산 천호암이다. 천호암은 태고보우국사가 석옥청공 스님을 처음 만나 인가를 받은 곳이다. 석옥 스님이 게송을 설해 인가한 글에는 "금린(金麟)이 곧은 낚시에 올라온다"고 했다. 보우 스님이 이때 의발을 받아 임제종의 제19대 조사가 됐다.

원나라 지정6년(1346) 보우 스님이 하모산 천호암을 찾았을 때 석옥청공 스님과 나눈 선어가 <태고보우어록>에 전한다. 태고보우 스님이 귀국해 국사로 있을 때 청공선사가 입적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리를 해동으로 가져올 것을 공민왕에게 주청했다는 기록이 있다.

필자는 태고 스님이 임제종 제19대 조사로 인가받은 지 꼭 658년, 석옥 선사 열반 652주년이 되는 2005년에 임제선 전수와 사승관계를 기리는 기념비를 천호암에 세울 것을 제안한다. 천호암은 한국 임제종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다.

항주 고려사는 금년 9월까지 제1차 공정이 끝내고 모습을 드러낼 것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한 하모산 천호암은 언제까지 처량한 절터로 남아 있을지 모를 일이다.

고려사 한 · 중 불교교류공간으로 복원 진행중
천호암 한국 임제선 발원지 … 기념비 세워야

서산 개심사 아미타삼존불 가장 오래된 목불 확인



개심사 목조아미타불.

고려시대 불상으로 추정돼 온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삼존불은 1280년 이전에 조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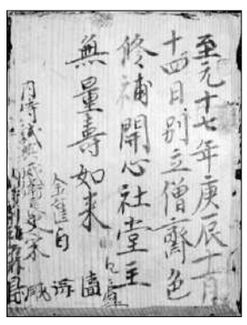
이 같은 사실은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의 의뢰를 받아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지난해 시행한 대전 · 충남북 지역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의 결과를 담은 도록<한국의 사찰문화재-충남 · 대전편>을 통해 공개됐다.

그 근거는 서산 개심사 문화재를 조사하던 중 목조아미타불에서 발견된 묵서. 묵서에는 별립승(別立僧) 재색(齋色)이 1280년 보수했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최초 조성 연대는 12~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서울 개운사 불상(1274년)이 가장 오래된 목불로 인정받아왔다.

조성 후 수년 내에 보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심사 아미타삼존불은 고려시대 목불 가운데 최고(最古)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조사단 관계자는 "이 시대 작품이 여럿이지만 편년이 제대로 돼 있지 못했다"며 "이 기록을 근거로 편년관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 · 충남북 지역 305개 사찰에서 7천714점의 문화재를 일제조사한 조사단은 개심사 목조아미타삼존불 이외에도 가치가 높은 154건 2천458점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함께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 지정문화재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심사 목조아미타불에서 나온 보수기.

사찰소장 문화재 도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시작된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은 4년째에 접어든 올해 광주 · 충북전남 지역 400여개 사찰 1만여 점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법사의 삶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요.

출강 통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13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불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 제14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사)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종단 · 법인등록 포함)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5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팩스 접수 가능)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팩스737-5305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6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수열(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50명) · 불교문화답사학과 (정규반30명, 통신반2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4년 12월 11일~ 2005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불교문화답사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5년 2월 5일(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불교문화답사학과 : 2005년 3월 8, 9, 10일 개강**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일주문



광주교도소 교화위 회장에

前 광주사암연합회 회장 현지 스님은 지난 12월 28일 광주불교회관에서 열린 광주교도소 불교교화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원주불교 신년하례식 개최

원주불교사암연합회장 원행 스님은 1월 5일 원주웨딩홀에서 국가 사회안정과 경제난 극복을 기원하는 을유년 원주불교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가산불교연구원에 지원금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은 1월 3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에 불교대사전 편찬지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승가원에 복지타운 기금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부인 홍문자 씨는 1월 4일 승가원(이사장 종범)을 방문해 자비복지타운 건립 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한복차림 토종가수 고수해야죠"

'제1회 자랑스런 명인' 표창 불자가수 송춘희 씨



"가수생활 49년간 한복을 고집한 덕분에 후한 점수를 받은 것 같네요."

최근 '우리 것 보존협회(대표 홍성덕)'가 수여하는 '제1회 자랑스런 명인' 표창을 받은 가수 송춘희(66 · 사진)씨. 송씨는 공개석상에서 무조건 한복만을 고집하는데다 단 한번의 외국곡조차 부른 적이 없는 '토종 가수'다. 민요 가수도 지키기 어려운 원칙을 반백년간 올곧게 지켜왔다.

군부대, 교도소를 돌며 '노래하는 포교사'로 불음을 전파해온 송씨는 "불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 역시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불교음악가 박범훈 교수 중앙대 총장 당선

"화음 잘 맞추는 지휘자 될 터"



지난 12월 24일 중앙대 제12대 총장선거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국악 작곡가인 박범훈 부총장(56 · 사진)이 총장에 당선된 것이다. 전문 음악대학이 아닌 일반 종합대학에서 전문음악가가 총장에 당선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단연 화제가 됐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지요.

-무거운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학교 총장 역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별로 이루어진 각 악기들을 잘 점검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것이 지휘자의 역할이지요. 총장도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이 조화를 이루어 불협화음이 안 나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도록 도와주는 야전 사령관인 셈입니다.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계획을 알려주시지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상반기에 있을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기존처럼 상위권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취업과 직결되는 문제라 신중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2월 3일 취임하지만 열심히 학교에 나와 관계자들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음악인들은 은근히 유능한 불교음악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앙대만큼 불교음악 인재를 많이 배출해 내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중앙대는 기독교 학교인데도 말입니다. 특히 중앙대는 국악대학 내 타악연희과 등이 있어 영산재 전문 스님들을 모셔다 강의를 시키는 등 종립대학보다도 불교예술을 위한 커리큘럼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대학교육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범종단적으로 불교문화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장학 제도와 같은 후원을 많이 늘려야 할 때입니다.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재들이 기독교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불교 공연을 한 번 하려해도 기독교 쪽 학생들에게 의뢰해야 하는 것이 불교음악계의 현실입니다. 사찰 합창단을 중심으로 음악대학 출신의 젊은 음악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며 인재들을 양성해야 불교음악의 맥이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음악 활동 계획은?

-총장이 되면 음악활동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음악회를 해도 중앙대의 타이틀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나눔운동으로 지역 화합 견인

밀양불교사암련 새 회장 덕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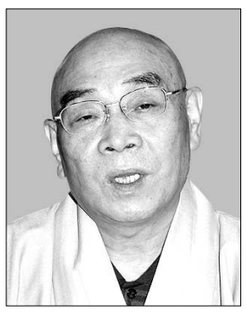
"사명대사의 숭고한 얼이 살아있는 밀양은 불교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밀양불교 발전의 큰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한 덕해 스님(삼양사 주지 · 사진)은 이렇게 각오를 밝혔다. "어려운 이웃에 부처님의 따스한 자비심을 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거듭 강조한 스님은 밀양불교의 세 가지 과제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이타행, 불교발전을 위한 내적 재정비와 화합, 개인적인 수행을 꼽았다. 스님은 향후 경찰불자회 창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인재양성 사업 확대

탄허불교문화재단 새 이사장 혜거 스님



"지난 20여년간 탄허불교문화재단의 사업들은 탄허 스님의 업적을 선양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탄허 스님이 유지를 받드는 구체적 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사진)이 지난 12월 29일 열린 (재)탄허불교문화재단 정기이사회에서 제5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혜거 스님은 "그동안 정기 학술행사 개최와 장학 사업, 불교문화사업 등을 꾸준히 펼쳐오면서 재단이 안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탄허 스님이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혜거 스님은 "사부대중이 한데 모여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 탄허 스님의 유품을 한데 모은 기념관 건립, 외국인들에게 탄허 스님의 선사상을 지도할 국제선원 개원 등 실질적 사업들을 펼쳐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대한불교법화종 신년하례법회



대한불교 법화종(총무원장 직무대행 혜륜)은 1월 6일 경주 황실예식장에서 불기 2549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종정 운명 스님은 "동남아 지진해일 피해로 고통받는 무주 영가의 천도와 피해복구를 위해 전 종도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선불교조계종 신년하례법회



한국선불교조계종(총무원장 각원)은 1월 6일 경주 무진암에서 신년하례법회 및 총무원 시무식을 봉행했다.

이날 한국선불교 조계종은 사무총장에 효주, 교육원장에 관선 스님을 임명했다. 종정 지우 스님은 "새해에는 철저한 수행 가풍을 확립하자"고 당부했다.

대구 도광사 개금불사 및 점안법회



대구 대명동 도광사(주지 법성)는 12월 1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동봉 스님, 종회의장 지공 스님, 이신학 남구청장, 황정구 구의원 등을 비롯 신도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해 스님을 증명법사로 도광사 개금불사 및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053)653-8583

전국에 계시는 대사 · 현인 · 기사 · 이인 각위께



제가 「六壬」하나 들고 세상에 나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 육임래정비법 」** ① 2십5만원짜리부터 ② 3십5만원짜리 ③ 1백3십만원짜리 ④ 1백5십만원짜리 ⑤ 2백5십만원짜리를 써서 교환해 드린 기간도 5년입니다.

제가 책을 쓴다고 알려 드리면, 저를 신뢰 하시고 큰 돈을 미리 선 입금하신 다음 책이 나올 때까지 넉넉하게 기다려 주신 그 큰 공덕에 힘입어 저의 소명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 육임래정비법 」** 시리즈 마지막 판**「육임대계전서」**를 60갑자 **60권**으로 써서 **매일 일진별로 1권씩 꺼내 보겠끔** 만들었습니다. 책 크기는 교과서만 하게 줄이고, 흰 바탕에 검정 활자체로 큼직큼직하게 처리해 기존의 책들보다 시원스럽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물어오는 항목을 30개로 늘리고, 이 30개 각 항목마다 세부적인 소항 목을 17개~3개씩 부연시켜, 좋다는 육임, 어렵다는 육임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 막힘없이 확실한 말씀이 되도록,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존의 불편한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 시켰습니다.

아주 쉽게 잘 나왔습니다. 또한 **「귀신침범」, 「빌미 · 부정」, 「산소탈」을 명시**하고 **그 비방법을 자세하고 명쾌히 적시**해 놓아 「효과 있다 택일하라」,「효과 없다 기다리라」고 써놓은 것만 보면 어떤 수법을 행해도 안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선입금**하신 분들께는 지난 1. 12일까지 3차에 걸쳐 배본을 끝냈고,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적색)」 교환신청**도 마감하여 발송해 드렸습니다. **한정본 500질 (1질 60권)만 발간했습니다.**

제가 쓴 책의 정확도를 믿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평생의 반려」가 될 이 보서**를 크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효사활인천역집II」CD 역시 명품으로 나왔습니다. 컴퓨터를 기본만 하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육임대계전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육임활용서를 못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방대학원대학교의 초빙교수로써 석 · 박사 과정, 연구과정, 문화교육원과정의 육임강의를 맡아 육임학(역학)의 제도권 연착륙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1월 20일 전까지 입금**하시는 분께는 입금 순서대로 전국 어디든 「한진택배」로 주문 다음날 까지 도착시켜 드리겠습니다. **鼓卜子 曉 史 배상**

● **문의전화 :** 02)993-8680 (담당 : 이명옥) ● **가 격 : 400만원 (카드결재 · 홈페이지 전자결재도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견본열람 :** www.taotemple.net (한국육임학회) 「 서적 · 비디오 · CD 」란을 클릭 하십시오.

"시중포교의 지혜로운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득도후 평생 법 공부만 열렬했던 소승이 시정(市井) 포교 인연을 맺다보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제반 애로가 쌓여 고심하던 차, 「육임대계전서」와 「효사활인천역집II」 CD를 큰맘 먹고 구입했는데, 과연 듣던 대로 효과가 커서 포교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학을 전혀 몰랐던 소승이, 이 책과 CD와 인연이 된 뒤로 신도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귀의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은, 시중포교의 애로를 겪는 분만이 아는 절실한 문제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소승이 이「명품」을 굳이 소개 하는 것은, 저처럼 市中포교의 현장에서 어려운 경험에 당황하고 계실지 모르는 寺門들께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져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특히 무슨일로 왔는지? 어떤 사정인지? 무슨 귀신침범인지? 부정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 산소탈인지? 천도시식의 효과가 있는지, 없겠는지? 그 해소법까지 자세하고 영험하게 적혀 있어 가히 백미 이더군요.

참 좋습니다.

생소한 것들을 암기할랴, 시간낼랴, 대중과 섞여 일반공부, 특히 역학을 공부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감안할 때, 이 「책」과 「CD」는 오히려 절약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아주 시원한 방편입니다!

나무지장보살

은 천 사 주지 象山 합장

011-341-7540

책 중 각 일별 각 시간별 각 국수에 적시된 30개 정단항목의 부연항목 일부 내용

■ 본 초사(初辭) : 가장 먼저 할 적중되는 말은?

이사부터 하시지요. 살집이 못 됩니다.
관재 · 소송이 발생하겠어!

남 : 타인의 부인을 내 마누라처럼 쓰고 있네?
여 : 고진감래(苦盡甘來)야!

■ 본 래정(來情) :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낮 시간 판단	나 자신과 형제의 근심 · 걱정건 이다.
●밤 시간 판단	나 자신과 형제의 근심 · 걱정건 이다.

▮초사

一사업사	① 어떤 사업이 좋은가? 여부	土, 인수 이다.
	② 신규사업(계획) 성패 여부	반은 성공한다.
	③ 사업진행과정 길흉 여부	어려운 상태이나 이겨낸다.
	④ 거래(관계)인 이해득실 여부	이득이 없다.
	⑤ 거래(관계)인 가정사 파악 여부	낮 : 분쟁 이다. 밤 : 분쟁 이다.
	⑥ 난사 교섭 성부 여부	어렵다.
	⑦ 교섭사 전후 난이 방침 여부	참고 기다리라.
	⑧ 공사 진행 차질 대비 지침 여부	관재에 대비하라.
	⑨ 영업장 설치 성쇠 여부	불가하다.
	⑩ 사업(업무) 진퇴걸심 여부	물러서라.
	⑪ 계획사 늦고 빠른지 여부	늦다.
	⑫ 공적 · 사적 추진 길흉 여부	보류하라.
	⑬ 투자 득실 여부	중지하라.
	⑭ 회의(안건)반대자 유무 여부	반대자의 세가 강하나 무방하다.
	⑮ 중요상담 승부 요령 여부	남서방을 등지라.
	⑯ 행사예정일 청 · 우 여부	흐리고 비 이다.
	⑰ 개업 · 고사 · 행사일 택일 여부	축(丑) 일을 택하라.

▮사업사

五소송승패사	① 소송 승패 여부	원고가 승소한다. 고난이 있다. 화해가 길하다.
	② 구속 · 불구속 여부	구속되지 않는다.
	③ 처벌 · 무혐의 여부	혐의가 없다.
	④ 중죄 · 경죄 여부	경하다.
	⑤ 도망 길 방위는?	丑 방향, 북북동쪽 이다.

▮소송 승패사

十五질병사	① 무슨 질병인가?	심장, 위장계 이다.
	② 질병발단 이유?	귀신 침해 이다.
	③ 치료가능 여부	낫는다.
	④ 치료 길방위 지정 여부	辰 방위로 가라.
	⑤ 효과있는 치료방법 여부	정성 기도하라.
	⑥ 교통사고 생사 예측 여부	산다.

▮질병사



▮전60권 매일 1권씩



불자 세상보기

김 병 관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사고 앞에 우왕좌왕하는 정부

지난 12월 27일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기록적 강진과 이로 인한 지진해일은 바다 건너 인근국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해안 지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재해를 가져왔다. 이미 확인된 사망 및 실종자만도 15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재민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라니, 현대 문명의 보호막 속에서 영원히 안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일상적 착각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던가. 인간의 문명도 자연 생태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 앞에 겸허하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해일 피해를 당한 지역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해변휴양지들이 산재해 있어 다수의 우리 국민들을 포함한 외국인 휴가객들의 희생이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의 가로등에는 검은 리본이 달려 있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른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부실한 대응 체계, 그리고 총체적 무능 앞에 우리 국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우왕좌왕이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휴가 중에 당한 사고이니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식의 무책임까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인식인가?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조직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 정부의 구태의연함에 다시 한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좁은 지구촌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공간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 어떤 재해 상황이건, 우리 국민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해외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난 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재난에 대한 예방 기능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안전 상황에 관한 예보 혹은 정보제공 기능은 이의 일부이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NHK의 '해외안전 정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각 지역의 안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자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홍보의 체계적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 다음으로, 재해 발생시 자국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 지역에서의 적절한 대응 및 신속한 소개를 포함한 사후적 안전 대책과 구호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재난 관리 체계가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당국자들의 의식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 개개인이나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조직들도 해외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의 체계적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소위 압축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그 결과 경제규모로만 보아서는 세계 주요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몇 년간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제 다시 성장의 엔진을 돌려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경제적 외형에 걸맞는 내실을 갖추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해외 재난 관리 체계는 그 한 요소이다. 문화적 위상을 갖춘 국가, 자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가, 타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외적 내실을 갖추는 데에 있어서도 선진국들의 시스템을 배우고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존중하며 세계화의 틀 속에서 압축성장을 다시 한번 시도해야 할 때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지난 세밑,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소속사찰인 우이동 보광사에서 절을 차지하기 위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국불교의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받는 폭력사태가 이제는 사라졌나 했더니, 한국 선불교의 주요한 맥이라 할 수 있는 선학원에서 또 다시 그 추악한 업의 재현을 보게 된 것이다.

폭력의 당사자들은 서로 각각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까마귀들이 내가 조금 더 희다고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밑바닥에 공통적으로 놓여있는, 출가정신을 등진 추악한 탐욕을 어찌 가릴 것인가.

정재는 깨끗하게 모아지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깨끗하게 쓰여져야만 정재이다. 그 정재의 한복판에서 추악한 폭력을 휘두르는 행태는 이미 정재를 정재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폭력으로 탈취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정재가 아니라 탐욕의 대상일 뿐이다.

삼보정재가 '먹이'인가?

삼보 정재를 사적인 재산으로 여기는 탐욕과 망집에 사로잡힌 하열한 출가자들이 벌이는 추악한 작태 때문에 불교 전체가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스님들 개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아직도 사찰운영이 사부대중 공동체에 의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스님 개인의 치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개인으로서의 스님에 반성없이 추종하는 신도들의 의식 또한 스님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 승보를 청정하고 화합된 공동체를 뜻하는 승보를 '스님들(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로 규정함으로써 각각의 스님들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이합집산하게 만든 업보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폭력을 합리화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천만 불자의 깨인 눈이 분노를 담아 지켜보고 있다. 단지 스님들 차원에서의 적절한 무마로 이 사태를 넘기려 해서는 안될 일이다. 우선은 눈앞에 벌어진 폭력에 대한 단호하면서도 엄한 단죄가 있어야 할 것이요, 삼보정재의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모든 사찰운영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폭력의 망령이 고개를 쳐든 이 사태를 계기로 그 망령의 근거지를 소탕하는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안전 불감증

선정을 얻은 사람은 다시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것이니, 마치 물을 아끼는 집에서 둑을 잘 쌓아 놓은 것과 같다.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지혜의 물을 간직하려는 까닭에 선정을 잘 닦아 그 누실을 막는 것이다. 〈유교경〉

1월 3일, 서울지하철 7호선에서 2년 전 대구지하철 참사와 유사한 지하철 방화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 정부가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했던 말이 미봉책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고였다. 이뿐인가. 지하철 당국이나 역무원들의 위기 대처방법은 그때와 별반 다른 게 없었다. 다행히 출근시간 전이어서 혼란이 덜했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이처럼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복(公僕)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화재발생 후 승객들이 객차 내 인터폰으로 기관실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불통이었고, 종합사령실, 역무실, 기관실간 비상조치도 없이 불붙은 전동차에 승객을 실은 채 운행했으면서도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 서울지하철의 경우 전동차 내부가 불연소재로 바뀐 경우는 1~4호선만 교체가 마무리되고 7 · 8호선의 교체율은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의례적으로 대책발표와 시정명령을 하고, 일선기관에선 재원부족을 핑계로 미적대며,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고질적 관행이 계속되는 한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예산부족 타령만 하는 것은 곤란하다. 무사안일 속에 숨은 안전불감증은 더더욱 위험하다. 당국은 언제까지 안전시험대란 도마 위에 시민의 생명을 올려놓을 것인가.

■노병철(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사찰 난투' 이제는 없어져야

선학원 보광사에서 새벽이면 폭력배를 동원해서 서로 치고 받고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접하고 보니 참으로 이런 한심한 스님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동남아 각국에서는 해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데 그 잘난 절을 차지하려고 깡패들을 동원해 싸우는 꼴이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신도들이 불사에 쓰라고 내는 공양금을 폭력배 동원하는데 쓰다니 참으로 놀랄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다. 화두로 절 어떻게 차지하는 법을 생각하느라 고생한 것 같다. 허구헌 날 벽만 쳐다보다가 어느 날 문득 절 뺏기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욕먹는 것이다. 도경(붓다뉴스)

'현대불교' 신년호를 읽고

'현대불교' 신년호 특집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읽고 반성을 많이 했다. 나는 과연 불자라고 거들먹거리면서 부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지 말이다. 특히 신행지수 체크표를 제공해 준 것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다.

이번 신년호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끈 기사는 종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었다. 어린 학생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것이 신기했지만 불자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웠다. 불자로서 어른들부터 좀더 당당하고, 아이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불교가 되어야 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이 앞장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유용한 기사와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이지혜성(서울 성동구 성수동)

정법을 믿으시는 불자님들께

부처님은 〈금강경〉 사구게에서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상을 상으로 보지 말 것이며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물거품 같고 번갯불 같고 허깨비와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니 바로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불자들이 사이비 승려나 못된 점쟁이들의 길흉을 내세워서 협박하는 말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을 내세우며 무슨 기도를 해야 하니 기도비로 얼마씩 가져오라고 하거나 영험하고 법력이 있는 스님이 기도하면 액막이가 되는 것이니 열심히 기도해야 어려운 시국을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등의 언설에 휘둘려서 아까운 돈과 시간을 낭비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사람이 된다.

불자라면 정법을 굳게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마음이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만 무너지지 않는 금강과도 같은 힘이 생길 것이다. 황하루(붓다뉴스)

교도소에서 만난 보살님들

안양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재소자이다. 소중한 타인의 삶에 큰 아픔을 주었고, 그 죄 값을 갚기 위하여 이렇게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곳에 와서 부처님을 마음에 담았다. 힘들고 아픈 마음에, 원망과 울분으로 가득 찬 마음에, 우연히 읽은 한 구절의 경구는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흐린 눈으로 세상을 보던 나의 눈을 맑게 씻어주었다. 그렇게 맺은 불연이 벌써 1년이 넘어간다.

늘 남 탓으로만 여기던 습관을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유와 나보다 남이 먼저라는 배려의 마음, 나누는 기쁨을 배웠다. 마음가득 가지고 있던 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비우고 버리며 사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이 모든게 이곳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보살 · 법사님들, 스님들 덕분이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에 목말라 있던 나에게 불교를 바로 보는 창으로 다가왔다. 현대불교신문이 있었기에 소중한 시간들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 그 고마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김송명(가명 · 안양교도소)

'현대'만평 심 민 섭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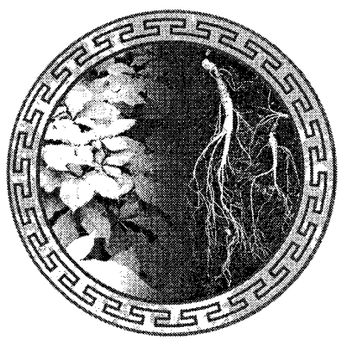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공주대학교 식물유확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 현풍F&B HYUN PUNG F&B CO., LTD.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 인류행복의 救國救世 佛事

대한민국에 '불교천문대'를 세웁시다

『도솔산천문대』 건립발원 모연문

– 이 말이 21세기 우리인류에게 공존공영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우주를 보면 불교가 더 잘 보이고, 불교를 보면 지구촌이 산다."

1. 우주의 법칙은 연기(緣起)

저 광대무변한 우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창고입니다. 이 에너지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며, 뭐라고 따로 이름 부칠 수는 없지만 불성(佛性)이나 법성(法性)을 근본으로 하는 이 에너지는 연기(緣起)의 법칙을 따라 생성소멸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에너지 창고인 우주에서 생겨난 만물들은 크기나 모양, 시간이나 공간을 떠나 모두가 제각기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다만 인연 따라 태양이나 지구 등 천체가 생겼고, 내지 사람이나 초목 군생(群生)까지도 생겨났으며, 또 마침내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서져 가루가 되고 가스가 된 이들을 토대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 성주괴공(成住壞空)과 생주이멸(生住異滅)의 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2. 만유(萬有)의 근본은 법성(法性)

말하자면 근원에 의지해서 모든 생성소멸이 연기의 법칙에 따라 반복될 뿐이지, 그것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상의 모양과 이름, 시간과 공간은 달라도 근본의 법성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철저히 아는 것을 불교에서는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천문대건립 과업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이 같은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천문대를 세워서 천체를 관측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양보다 우주법계를 더 깊이 다루는 불교에서는 하늘에 대한 구체적인 천체관측을 하면서 연구한 바가 역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정량적(定量的)인 서구의 합리적 사상보다 정성적(定性的)인 동양 고유의 전일적(全一的) 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부분보다 전체를 관조하고자 하는 동양의 전통적 사유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불법(佛法)은 우주만상의 원리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주를 탐구하는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자들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인류 공동의 평화번영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불교 경전에만 의존해온 추상적인 사유의 우주관을 벗어나, 이제부터는 천체관측의 구체적인 체험과 이해를 통해, 우주 구성체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져서 실질적인 사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주법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전일적(全一的)인 사상을 인식함과 동시에, 심오한 불법의 세계를 전 우주적으로 확장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만이 오늘날 물질문명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 정신세계를 회복하는 최우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찍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상주법계(常住法界)나 시방삼세(十方三世),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와 수미산(須彌山)의 존재,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고 표현했던 허공의 크기 등, 실로 광대무변한 불교 우주관을 21세기 첨단 과학인 천문학을 통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불교천문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 하여 뜻을 모았습니다.

4.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의 길

현대인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천문학을 '우주만유의 생성소멸과 변천과정을 밝히는 학문'이라고 단순하게 말합니다만, 우리 불자들에게는 천문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주천체계가 곧 불교의 연기적 법계이며, 깨달음의 세계로 깊이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집착심을 떠나면, 우주 그 자체가 바로 불법의 세계이며, 또한 불법의 진리로 이루어진 진정한 삶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새벽하늘 밝은 별을 보고 깨쳤고, 철학자 칸트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에서 인간도덕률의 근본을 찾아야 한다고 '실천이성 비판'에서 역설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천문학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나 관측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불교의 우주적인 원융무애한 사고는 세계평화의 원리로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닫혀 있게 되었고, 우리 인류가 진리동일생명으로서 한 몸, 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천갈래 만 갈래로 쪼개져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대립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애석하고 통탄할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불교천문대 건립은 구국구세(救國救世)

이에 저희들은 우리불교의 위상에 따르는 시대적 요청과 그 사명을 자각하고, 인류가 이룩한 과학발전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불교의 평화원리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전파하기 위해 안성 도피안사에 <도솔산천문대>를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전 불자, 전 국민과 인류를 대상으로 불교의 우주관을 바르게 알리고, 나아가서 거기에 맞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하여 인류 공동체의 터전인 지구생태계 사랑에 앞장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말기적 증상을 드러내고 있는 현대의 물질문명에도 분명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안사의 <도솔산천문대> 건립은 개산조(開山祖), 금하당 광덕대선사(金河堂光德大禪師)께서 주창한 전법지상(傳法至上)의 숭고한 뜻을 실천하는 구국구세(救國救世)의 구체적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6. 세기적인 대작불사(大作佛事)

오직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키우지 않으면 인류평화와 지구생태계의 보존 등,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불자형제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한국에 불교가 전해진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이 세기적인 대작불사(大作佛事)에, 전 불자들과 국민 모두가 뜨거운 신심과 장한 원력으로 흔쾌히 동참하여 <도솔산천문대>를 건립하는 대역사를 성취합시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혜명(慧命)을 계승하는 대각 구국구세(大覺 救國救世)를 이루는 불법의 상속자가 됩시다. 또한 조상님의 지혜를 계승하는 겨레의 자랑스러운 후예가 됩시다. 각행원만(覺行圓滿)한 한국불자들의 참 면모를 드러내는 진실불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다 나무석가모니불

불기 2549(2005)년 1월 11일
<도솔산천문대>건립위원회 일동

『도솔산천문대』 건립계획(안)

1) 주요사업

가. 어린이, 청소년 천문학교실
나. 종교인 천문학교실
다. 일반인들의 천문학교실(우주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범국민천문교양교육 실시)
라. 불교도와 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불교과학 포럼' 운영 및 자료집 발간
마. 지역 주민과 과학도, 불교도를 위한 자료실 및 도서관 운영
바. 불교단체, 과학자단체, 기업체의 임직원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실행
사. 불교와 과학에 대한 자료집 등 출판보급
아. 기타

2) 건립계획

가. 건립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도솔산(도피안사 경내)
나.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최상층(관측천체망원경 설치) 바닥면적 100평 · 연면적 700평
다. 건축용도
최상층 – 관측 주(보조)망원경 설치
5층 – 강의장, 대기실, 숙소, 대장실, 접견실, 관측실, 조정실
4층 – 자료보관실, 사무실, 연구실, 기기보관실.
3층 – 천문학에 관계된 사진 및 관측자료 전시관
2층 – 일반도서관(2)
1층 – 일반도서관(1)
지하1층 – 영상관(천문학 영상관)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일부철골구조 (최상층)
마. 망원경 및 측기
㉠ 대형(주)망원경 – 1대(구경 100㎝)
㉡ 소형(보조)망원경 – 굴절망원경 6대(구경 15㎝)
반사망원경 6대(구경 30㎝)
바. 천문대의 부대시설
돔, 플레나타리움 설치 : 별자리관측, 80인용, 슬라이딩 돔
(천문학과 일반 과학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포함한 첨단시설 도입)

『도솔산천문대』 건립 시주동참금 입금구좌 안내

농 협 237086 – 51 – 066783 (예금주 도피안사 김인현)
우 체 국 100339 – 01 – 001332 (예금주 도피안사 김인현)
국민은행 245301 – 04 – 063971 (예금주 도피안사 김인현)

동참동행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국불교 초유의 이 대작불사에 뜻을 함께 한다는 보살심의 발로이고 광덕스님의 구국구세 행원에 동참하는 뜻 깊은 일이 됩니다.

송금하신 분께서는 아래 건립위원회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연락처 <건립위원회 사무실>
전화 : 031-676-8700 / 전송 : 031-676-8704
E-mail : dopiansa@kornet.net
홈페이지 : http://www.dopiansa.or.kr
(주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우, 456-893)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

제2회 불교어린이 천문학교실 안내

– 마음(상상력)이 큰 어린이들이 천재다 –

부모님들께
우리 어린이들은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순수하기 때문에 나오는 힘입니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첨단과학인 천문학을 통해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바라보게 하여 도솔천?도리천?사왕천 등 불교경전에 나오는 여러 하늘나라를 우주 속에서 찾게 해줍니다.
또 이 별 저 별을 마음껏 쏘다니게 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주며, 수십 년 수행하여 얻은 것보다 더 큰 '열린 마음'을 우주의 별을 보며 깨닫게 합니다. 나라의 앞날과 인류의 밝은 미래는 오직 마음이 큰 그들에게 달렸습니다.
이번 제2회 <불교어린이 천문학교실>을 놓치지 마세요. 천문학은 인간교육의 근본인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천문학교실은 엄마와 함께 해요.

● **기 간** : 2005년 1월 19일(水)~1월 21일(金) – 2박3일
(1월 19일 11 : 00까지 도착, 점심공양은 수행원에서)
● **장 소** : 도피안사 내 「파라미타수행원」
● **교육비** : 100,000원(1인당, 교재비 포함)
● **인 원** : 약50명
(접수 순에 의함, 단 보호자와 함께 하는 경우 우선)
● **대 상** : 초등생(4, 5, 6학년)과 그 어머니
(중 · 고생 및 일반도 가능)

● **천체관측** : 별, 달, 행성
① 밤 별 보기 – 19:00 ~ 23:00
② 새벽 별 보기 – 04:00 ~ 06:00
● **강 의** : '별의 세계와 불교의 우주관'
● **비디오 감상** : '우주의 신비'
● **지 도** : 이시우 박사(관측천문학, 前 서울대 교수)
● **교통편** : 어머니(보호자)와 함께 개별도착
(당일 오전 11시까지)
● **담 당** : 혜관거사 박성근(도피안사 사무장)
● **준비물** : 방한모, 장갑, 양말, 방한화
(천체관측 때 춥지 않게)
※ 날씨에 따라 교육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피안사의 관측기기 및 시청각교육 기자재 구비사항
망원경 구경 220㎜ , 쌍안경 배율 15 · 구경 80㎜
환등기, 스크린, O.H.P, DVD 플레이어, LCD 프로젝트
전자지시봉 등 시청각기자재 완비

● **연락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전화 : 031-676-8700 / 전송 : 031-676-8704
홈페이지 : http://www.dopiansa.or.kr
E-mail : dopiansa@kornet.net

※ 교육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은 2005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도솔산천문대』 건립위원회 명단

고 문 : 太空月珠 (前 조계종 총무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顯庵印幻 (前 동국대 교수, 경국사 회주)

총 재 : 瑞海興敎 (범어사 금강계단 전계사,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상무이사)
부 총 재 : 法界明星 (전국비구니회장, 운문승가대 학장)
趙洪植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계종중앙신도회 고문)
金煐泰 (불교사, 동국대 명예교수)

추진위원장 : 修弗法盡(안국선원장) 李時雨(천문학박사, 前 서울대교수)
위 원 : 淨岩慧惺(佛光門人) 松韻玄寶(온양보문사주지) 김선미(국회의원, 안성)
김영진(변호사) 김태원(안성문화원장)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교수)
이동희(안성시장) 이상원(실크로드여행사대표) 이정희(웨딩프라즈냐대표)
이재운(소설가) 이윤호(경기대교수) 이한성(안성장학새마을금고이사장)
장현수(전경기도의원) 조문래(붓다의사람들대표) 송영식(변호사)
허영욱(죽산농협조합장) 황보상 (의사)
–가나다 순–

자문위원장 : 彌山賢光(스님,중앙승가대학교수, 前조계종총무원사회부장)
부 위 원 장 : 『불교』 – 김재영(동방대교수) 『과학』 – 박영재(서강대교수)
위원 : 『불교』 覺默(초기불전연구원지도법사) 普光本覺(중앙승가대교수)
須彌海住(동국대교수) 김광식(부천대교수) 김호성(동국대교수)
박성배(미, 뉴욕주 립대교수) 신규탁(연세대교수) 이중표(전남대교수) – 가나다순 –
『과학』 박광서(서강대교수) 성재모(강원대교수) 소광섭(서울대교수)
신희섭(KIST학습기억현상연구단장) 우희종(서울대교수) 이일훈(건축가) 이택주(한택식물원장) 전재근(서울대교수) 정계섭(덕성여대교수) 황우석(서울대교수) – 가나다순 –

지도위원장 : 那伽性陀(불국사 회주)
부 위 원 장 : 翠山道法(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朴世逸(국회의원)
위 원 : 觀照性國(범어사스님) 正峰至歡(조계종기본선원장)
圓澤(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益山度吼(불교방송이사장)
京庵志源(조계종사회부장) 宗薰(조계종종회의원)
智光法輪(정토회지도법사) 意淨志炯(청암사승가대학장) 圓云一眞(운문사 승가대학감) 방상복(神父) 양운기(神父) 서명원(프랑스神父) 강대철(조각가) 김광삼(현대불교신문발행인) 김규칠(언론인) 김기철(도예가) 김상락(단국대교수) 김성배(미, 연방정부공무원) 김세용(도예가) 김응화(한양대교수) 김호석(화가) 남준(동국대도서관) 민희식(한양대명예교수) 박범훈(작곡가) 박재동(애니메이션감독) 배광식(서울대교수) 박훈(前중앙대연구교수) 서혜경(전주대교수) 손진책(연출가) 尹用淑(여성문제연구회장) 안상수(홍익대교수) 안숙선(판소리 명창) 안장헌(사진작가) 이규경(화가) 이규택(경서원대표) 이근후(의사) 이인자(경기대교수) 이철교(동국대출판부) 이호신(화가) 임현담(히말라야순례자) 정웅표(서예가) 한승조(고려대명예교수) 홍사성(불교평론 편집위원) 홍신자(무용가) 황명숙(한양대명예교수)
– 가나다순 –

집행위원장 : 松菴至元(도솔산 도피안사 주지)
부 위 원 장 : 至宗(불광사 주지) 李淳國(신호그룹 회장)
위 원 : 김석환(하나전기대표) 박성근(낙농업)
이종하(재,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사무국장)

온도와 망치 다 잊을 때 좋은 쇠 나와

대장장이 50년 박경원씨



불에 달군 쇳덩이를 모루 위에 놓고 두드리고 있는 박경원씨. 그는 수천번을 두드리다 보면 망치의 무게를 잊는다고 한다.

말없이 화덕을 응시하던 백발노인의 눈동자에 순간 힘이 서리는 듯하더니, 손에 들린 쇳덩이가 순식간에 불꽃 속으로 미끄러진다. 불기운에 쇳덩이는 이글이글 달아오르고, 풀무질로 불길을 일으키던 노인의 눈동자엔 화덕의 불꽃이 그대로 피어오른다.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노인은 화덕 안에서 쇳덩이를 꺼내 모루 위에 놓고 망치로 내리치기 시작한다. 눈동자에 비친 불꽃의 춤사위가 노인의 어깨를 타고 흐른 듯, 노인의 메질에 세 평 남짓한 대장간 전체가 들썩인다.

"강한 쇠도 불에 달구면 부드러워져. 그렇게 달군 쇠를 두드려서 벼리면 내가 원하는 연장으로 바뀌지. 생쇠를 때리면 힘은 힘대로 들겠지만 결국은 부러지고 말아."

'불광대장간'의 주인장 박경원(68)씨가 말하는 '쇠의 속성'은 곧 우리네 마음 다루기와 통하는 듯하다. 거짓되고 추악한 마음은 날로 꺾을 수 없다. 따뜻한 숨을 담은 정성으로 수없이 달구고 벼리다 보면 가장 온화하면서도 완전한 본디 마음자리를 찾을 수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전통대장간 작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박경원씨는 '쇠'와 '마음'의 영역을 수십 년째 드나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6·25전쟁 이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대장간 일을 시작한 이래 벌써 50년째 대장장이 업(業)을 지고 있다. 70년대만 해도 시골 장터마다 4~5개씩 자리 잡은 대장간에서 괭이, 호미, 삽 등의 농기구를 만들었으나, 장터를 울리던 대장간의 망치소리는 이젠 시골 사람들에게도 옛날 추억이 됐다. 그러나 박씨는 그 옛날 시골 장터에서나 마주할 수 있었던 화덕과 모루 등을 갖추고 반백년을 한결같이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다 같은 철로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다 달라. 철을 뽑아 거푸집에서 그냥 굳힐 경우엔 밀도가 고르지 않아 어떤 부분은 강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약해. 그래서 금방 부러지게 되는 거야. 기계작업의 한계지. 그런데 두드리면 달라져. 달군 쇠를 정성껏 두드리면 어느 한곳 모난 데 없이 고루 튼튼해지지. 그게 한 놈에 열 번, 백 번, 천 번씩 계속 두드리게 되는 이유야. 처음에는 횟수를 가늠하며 두드리지만, 매일 수만 번씩 두드리다보면 망치를 내리꽂으면서도 망치의 무게를 몰라. 미세하게 변해가는 철만 보일 뿐이야."

그래서 한번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그 튼튼한 맛을 잊지 못해 평생 고객이 된다. 쇠가 좋고 이가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기계로 대량 제작된 제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손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 탁월해 사람들이 대를 이어 찾아올 정도다.

그 같은 고객의 귀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서일까. 박 씨는 남들은 평생 한번도 갈기 힘들다는 모루를 세 번이나 갈았다. 끊이지 않는 메질 덕이다. 어깨 근육을 쉴 새 없이 놀린 탓에 요즘에는 뼈주사에 의지하고 살지만,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화덕에 불을 지피고 일을 시작한다. 요즘 같은 겨울철은 대장간도 쉴 때지만, 그저 맥을 잇는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다보니 결과적으로는 봄, 가을 등의 성수기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내놓게 돼 스스로도 놀랍다는 박 씨다.

그러나 그에게도 '대장장이를 떨치고 싶었던' 시련기가 있었다. 끼니를 때우기 위해 경기도 신갈에서 무작정 대장간 일에 뛰어들었지만, 그는 수년이 지나는 동안 그 어떤 기술도 전수받지 못했다. 그의 스승은 그에게 몇 년간 풀무질만 시켰다. 풀무질에 이력이 날 때쯤 되니 이젠 메질 대장정이 시작됐다. 철을 알맞게 달굴 수 있는 온도는 몇 도인지, 철의 종류마다 두드려야 하는 횟수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알아야 할 것은 끝이 없었건만, 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끝끝내 허락되지 않았다.

"어깨너머로 배워서 익힐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언제부턴가 작정을 하고 덤볐지. 스승님이 손님과 대화할 때 슬쩍 끼어들어서 궁금한 것을 돌려 묻곤 했어. 물론 뒷일은 책임질 수 없었고. 손님이 돌아간 후에 잘 만들어진 철제 농기구로 엄청 맞았지. 껄껄."

결심을 굳힌 박 씨는 이후 틈날 때마다 화덕 곁에 붙어서 쇠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불속에서 쇠가 녹는 온도를 감지할 길이 없었다. 쇠가 녹는다는 '1000도'라는 온도는 개념상의 수치일 뿐, 그 같은 열기로 타오르는 불꽃을 가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창 달구다보면 쇠가 불속에서 뚝뚝 떨어져 스승에게 며칠을 맞았고, 손이며 팔은 녹아내린 쇳덩이 덕에 수천 번도 더 벗겨져 감각을 잃었다. 쇠를 달구는 가장 적당한 온도인 700~800도를 맞출 즈음엔 미세한 온도 변화를 제때 잡아내지 못해 철표면에 곰보가 졌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한순간이더라구. 밥도 잠도 잊고 갈탄 연기만 마시고 살다보니 불꽃이 말을 해주데. 철 표면에 연분홍 빛이 발갛게 익어갈 때였지. 화덕 속의 불꽃과 내 속의 피가 같이 끓는 듯하더니 '바로 지금'이란 생각이 급작스럽게 전해왔어. 그리곤 밑도 끝도 없이 이거다 싶은 거야."

철의 종류마다 두드려야 할 메질의 횟수, 메질로 안정시킨 철의 상태를 굳히기 위해 물을 입히는 '담금질' 횟수 등도 한창의 작업현장에서 그렇게 '문득' 깨닫게 됐다. 철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쇠가 가슴에 박힌 듯 제 심장이 한층 견고해졌고, 담금질을 거쳐나온 쇠를 마주할 때는 문득 제 피부가 젖어오는 듯했다. 간간히 농기구로 내려치며 욕설을 아끼지 않았던 스승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가 자립을 결심하자 철꾸러미 하나를 던져주며 "이것이 진정으로 네가 살길"이라 했다.

그렇게 홀로서기에 성공한 박 씨는 이곳 은평구 대조동에 자리잡은 이래 25년째 대장간 살림을 꾸리고 있다. 이제는 메질이 삶이고 삶은 풀무질이라 성성한 대장간 화두가 살아있을까 싶지만, 그는 오래했다고 허투루 처리하는 법은 없다고 단칼에 잘라 말한다. "그 옛날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 땐 목욕재계한 후에 오직 일념으로 칼을 벼렀지. 그 칼이 팔려간 집에 도둑이 들면 누가 먼저 알아채기 전에 칼이 먼저 운다고 했어. 그 정성을 자신할 수 없으면 칼을 팔지 않아."

그는 돈을 위해 억지로 일하는 법이 없다. 매일 아침 화덕에 불을 피우며 자신의 신체상태, 심리상태를 가만히 관한 후 '연장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곡차를 즐기거나 산행을 떠날지언정 대장간 작업에 한 치 미련도 남기지 않는 것이 그의 철칙이다. 그래서 그는 반복되는 대장간 일을 한번도 지겹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만 요즘에는 힘에 부친 탓에 메질을 아들 상범(36)씨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 이제는 손을 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고민하고 있단다.



아들 상범씨와 함께 작업 중인 박경원씨. 상범씨는 아버지의 대를 잇기로 했다.

"평생 이것만 하고 산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라는 그에게 다른 일을 하고 싶단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지를 물었다. "들었지만 내가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했어. 1원도 대장간일 아닌 것으로 벌어본 적이 없는데, 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제일 좋더라구."

그는 손때 묻은 연장들 틈에서 갈탄 연기를 마시는 삶일지언정 매일 지혜를 얻을 수 있기에 하루하루가 맑다고 한다. 그 지혜가 무엇일까. 대장간을 나오니 <법구경> 가르침이 떠올랐다.

"대장장이가 은의 불순물을 제거하듯 슬기로운 이는 차례로 서서히 자기 더러움을 제거해야 하리라."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

NESPOT swing

이번 주,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 법회 이벤트



1. 가고 싶은 사찰은 **네비게이션**을 보며 빠르고 정확히 찾아갈 것!
2. 수백 권의 경전을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바로바로 예습할 것!
3. 큰스님의 중요 법문은 **음성녹음**과 다운받은 **동영상**으로 다시 볼 것!
4. 큰스님과 친견을 원할 때에는 **화상통화**로 간단히 해결할 것!

단한번의 기회!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HP rw6100 최저가 특별보급 2가지

1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HP rw6100 스마트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벗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료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2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에게는 초기수납금 55,000원에 24개월 의무사용 조건으로 HP rw6100 스마트폰의 혜택과 다양한 주변기기를 드립니다. (월 평균 할부금 24,291원)

MP3·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벗'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

나의 수행법

김홍근 (上)



나는 20대 후반 석사논문을 쓰던 시절, '시적 체험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실제로 그 체험을 한 적이 있다.

"시간의 주름살 속에 숨어있던 생의 이면과 갑작스럽게 마주쳤다. 돌연 일상의 흐름이 끊어지면서, 전혀 낯설고 이질적인 누군가가 나의 의식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내속에 잠자고 있던 누군가가 생각의 빛에 잠이 깨어, '현재'라는 얇디얇은 시간의 틈을 뚫고 이 세상으로 솟구쳐 나온 것이다. 그때 모든 게 '난생 처음'으로 다가왔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존재의 치명적인 이질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경험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 뒤 나는 동서고금의 철학과 종교사상을 두루 살펴보게 되었는데, 내가 젊었을 때 경딘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맘을 놓고 산다.

참 선 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줬다. 모든 공부의 끝에는 참선이 있었다. 사실 참선은 첫걸음에서 바로 성패가 갈린다. 시작이 너무나 중요하다.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이냐? 자신인가, 지식인가? 참선은 자기 속에 깃든 본심을 보는 것이기에, 밖에서 배운 지식을 따르면 영원히 성공할 수가 없다. 자신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 진리는 자신 안에 있다. 책벌레였던 나도 참선을 시작한 이후에는 완전히 책을 덮었다. "일체중생 속에는 깨닫는 성품이 있다"는 부처님의 말을 딱 믿고, 그동안 배워서 알게 된 모든 지식을 내려놓았다. 나는 앎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준 참선
실패할 때마다 믿음 키워 극복

험한 '시간체험'이 무엇인지를 속 시원히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은 '참선'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불교강좌를 듣고 선어록을 읽고 주말 선수련회나 참선강좌를 쫓아다녔지만, 끝내 깊은 체험에는 이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서울 육조사 선원에 나갔는데, 참선 후 선원장 스님의 소참법문을 듣다가 큰 돌이킴을 얻게 됐다. 돌아보니, 그 체험은 '삼매 중에 현재심을 경험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말하자면, 내 속의 부처가 꿈틀거렸던 것이다.

지금 나는 참선을 하면서 나날이 변화되고 있다. 심지어 참선의 목적이 '깨닫는 것' 보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담배가 첫날에 저절로 딱 끊어졌다. 또 생전 손대지 않았던 청소와 설거지를 하게 되면서, 저절로 아침형 인간으로 변했다. 참선에 재미가 붙으면서 삶이 심플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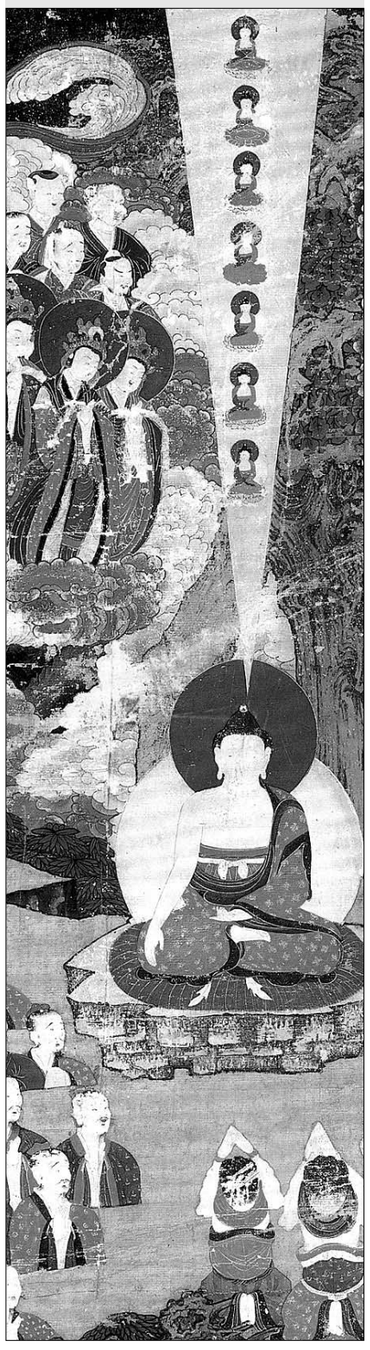
참선이 익어가면서, 나는 꿈을 꾸지 않게 됐다. 과거에는 늘 어

(계속) ■성천문화재단 연구실장

6년의 긴 고행, 그 구도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싯다르타가 부처님이 된 성도절(成道節). 1월 17일(음 12월 8일)은 싯다르타는 치열한 자기수행 끝에 깨달음을 선언한 기념일이다.

그럼 성도절은 불자들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줄까? 메시지는 분명하다. '너도 깨달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또 성불을 향한 '자기다짐'이다. 때문에 성도절은 불자들에게 용맹정진의 강렬한 분발심을 일으킨다. 전국 사찰 및 시민선방에서는 짧게는 3일, 길게는 1주일간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다.

부처님 성도절을 맞아 큰스님들이 말씀하시는 용맹정진법을 간추려 봤다.



양산 통도사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중기(1775년)때 제작된 팔상도 가운데, 부처님의 성도 모습.

1월17일은 성도절 - 되새겨보는 큰스님들의 용맹정진법

'깨달을 수 있다' 자신감 갖자

법전 스님(조계종 종정)

백척간두 진일보하는 마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마음이 용맹정진의 자세다. 칼날 위를 걷고 살얼음을 타고 계단이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절벽 위에서 갑자기 손을 놓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바로 그 것이다. 벼랑에서 손을 놓아 버려야 그 자리에서 살길이 생긴다. 일체의 집착, 자신과 자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또 용맹정진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 두타행이다. 법을 위해 몸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혜가 스님이 달마 스님 앞에서 한쪽을 팔을 자른 것도, 자명 스님이 송곳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른 것도, 혜통 화상이 간절한 마음으로 생사의 일대사를 밝히고 불조 혜명을 이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성철 스님(조계종 前 종정)

서릿발 같은 결심 세워라

철석같은 의지와 서릿발 같은 결심이 용맹정진법의 핵심이다. 혼자서 만 사람이나 되는 적을 상대하듯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마침내 물러나지 않는다는 각오로 스스로를 새롭게 해야 한다. 오직 '부처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각오로 정진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바로 '수도팔계(修道八戒)'다. 첫째로 절속(絶俗)으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을 끊어야 한다. 때문에 인정(人情)은 부처가 되는 데 원수다. 인정이 농후하면 도심(道心)이 성글어진다. 둘째가 금욕이다. 욕정을 끊지 못하고 도를 닦겠다는 것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셋째로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칭찬과 숭배는 나를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것이다. 넷째가 하심(下心)이다. 항상 나의 허물, 잘못을 보고 마음을 더욱 낮춰야 한다.

다섯째는 정진이다. 수행은 부처가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언제 어디서나 화두 일념이 돼야 한다. 여섯째는 고행이다. 수행자의 병 가운데 가장 큰 병이 게으름 병이다. 정진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고행이다. 일곱째는 참회다. 일체중생의 잘못은 모두 나의 잘못이니 매일 백팔참회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타행(利他行)이다. 결국 수행의 목적은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남에게 봉사해야 한다.

원담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화두 드는 그 놈을 봐라

석가모니 부처가 도를 통한 까닭이 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별을 보는 놈, '별을 보는 놈' 여기에 있다. 석가모니가 본 것은 별이 아니다. 바로 별을 보는 놈을 봤다. 분명히 이것은 내가 비록 지옥으로 화살같이 가는 구업을 짓는다고 해도 다시 이보다 가깝게 할 말은 없다. 석가여래가 별을 본 것이 아니고, 별 보는 놈을 봤다.

그래서 별로 인해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문득 꿈을 돌이킨 것이다. 꿈이라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그게 꿈이라고 하는 거다.

그럼 불교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 바로 '내가 불교'다. 불교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해서 믿고 닦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근본을 찾기 위해서 찾아 들어가는 법이 불교다. 그 이치를 깨달을 것이 바로 성도절이다. 석가여래는 반짝거리며 허공에 있는 별을 본 것이 아니다. 별을 보는 '놈'을 봤다. 마치 화두를 들 때, 그 화두를 쫓아가지 말고, 화두 드는 그 놈을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

청화 스님(조계종 前 원로의원)

묵언하고 하루 한끼 공양

용맹정진은 집중적으로 간단없이 번뇌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수행을 할 때, 했다가 쉬었다 하면 잠재의식이 또 나오게 돼 망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낮에는 그런대로 괜찮다가도 밤에 잠잘 때는 꿈속에서 잠재의식의 발동돼 이상야릇한 꿈을 꾸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중생놀음이다. 그래서 용맹정진을 하는 것이다.

용맹정진은 화두나 염불, 혹은 주문을 통해 오직 부처님께 지향하는 마음을 순간 찰나도 쉬지 않고 지속시키는 수행법이다. 입으로는 먹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부처님, 즉 본체를 지향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용맹정진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묵언을 지켜야 한다. 말을 하면 개념이 나온다. 개념이 발동되기에 분별시비가 있게 된다. 따라서 말을 안 한다. 식사 또한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용맹정진법은 참선이다. 참선을 잘하면 내가 없고 네가 없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도 없어진다. 우리 마음은 나다 너다 좋다 궂다 시비를 천지우주의 순수 에너지인 부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참선하는 마음 자세이다.

해안 스님(서울 전등사 前 회주)

크게 한번 죽는 용맹심 내야

'7일 안에 깨우치라', 사람들은 정진을 오래해야만 깨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견성은 단시일을 두고 결정내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은 아무리 미련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7일이면 도를 성취한다고 했다. 만일 7일안에 깨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공부하는 사람의 정신자세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기간이 짧아서 깨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자나 깨나 화두가 성성적적한 일여(一如)의 경지가 되면 1주일 안에도 화두가 타파된다. 수행자는 오직 화두 일념에 사로잡혀 옆에서 뇌성벽력이 쳐도 듣지 못해야 하고, 찬 바람이 뼈 속에 스며들어도 추운 것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때문에 부처가 되려면 '크게 한번 죽는(大死一番)' 용맹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처가 되려면 한번 죽어야 한다. 죽기로써 대들어야 영원한 살 길이 열리지 어설피 살려고 버둥대면 오히려 죽게 된다. 〈가나다順〉

정리=김철우 기자

'불소행찬'과 '불본행집경'으로 본 부처님 성도

"우담발화가 피는 첫새벽이었다. 북두의 별빛이 몇광년의 빛살을 무지개로 만드는 아침이었다. 온통 우주가 환하게 됐다. 장엄법계였다. 필발과 나무에 깨달음의 등광(燈光)이 저 건너에 있는 갈 숲에도 밝게 비춰지고 있었다. 원만하고 거룩한 금강보좌에 삼매드신 싯다르타가 백호(百毫)에서 깨달음의 빛을 나투셨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불소행찬(佛所行讚)〉 항마품.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한다.

이에 깨달은 싯다르타는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성무상도품(成無上道品)에서 "지난 옛적에 지은 공덕의 이익으로 마음에 생각한 것이 이뤄졌다. 만약 용맹으로 정진해 성스러운 지혜를 구한다면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이미 모든 괴로움을 끝까지 다 없애고 일체 모든 죄를 다 멸했다"고 말한다.

謹賀新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韓國佛敎 太古宗

宗正 崔慧草
元老會議議長 金一宇
副議長 李寶峰
副議長 林元法
總務院長 李雲山
副院長 文普經
副院長 尹慈月
副院長 禹慧空

總務部長 金越海 財務部長 任乘照 文化部長 崔默圓
敎務部長 閔法顯 社會部長 片白雲 事業部長 金一蘆
企劃部長 李法眼 糾正部長 李曉星 敎任部長 高東佑

中央宗會議長 朴印空 副議長 成圓峰 副議長 鄭大隱
中央司正院長 金法藏

총무원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9-16번지
TEL 02)382-7361~3 FAX 02)382-9852

대한불교조계종
옥수동 미타사
주지 문 수
미타유치원 원장 홍현
대중일동 · 교직원일동
서울 성동구 옥수동 395
02)2297-7548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서울시 서초동 1603-67
강남부속상가10동401호
TEL 02)586-6521 FAX 02)521-9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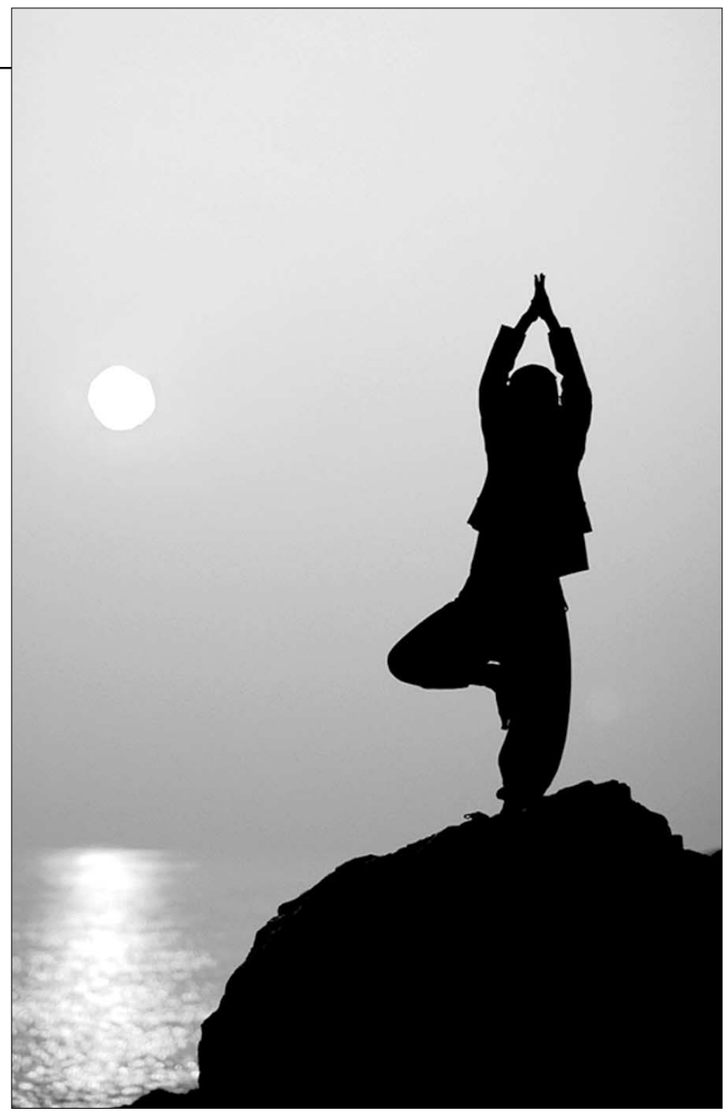
대한불교본원종
고 경 사
주지 자 광
사부대중일동
용암산자락에 위치한 고경사에
부처님자비 광명이 비추는 납골당이
마련되어있으니 누구나 조상님을
명당터에 모시면 관운과 재물이
발복하는 고경사로 연락바랍니다
•납골탑관리비:1년에 2만원
영구봉안 부부 3백만원
•오시는길: 영주 IC 15분거리
서안동IC 20분거리
경북 영주시 평온면 지곡2리 87번지
전화문의 054)637-8887

508_19 2005.1.10 11:41 AM 페이지 1 (1,1)

미리보는 2005년 요가계

‘요가=체조’ 오해 씻고 전문성으로 승부

해가 바뀌면서 헌 자리를 다지고 새 자리를 펼치려는 요가계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요가 인구의 증대에 따라 새로운 커리큘럼과 함께 지부를 확장하기 위한 계획 등이 거듭 논의되고 있으며, 수준이 높아진 요가수행자의 수행욕구를 수렴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요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논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고, 대체의학으로서 요가를 폭넓게 응용하려는 시도 역시 요가 안팎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요가 단체와 요가학계의 신년계획을 중심으로 2005년 요가계 주요 키워드를 짚어본다.



새 태양을 맞이하는 요가계는 전문성 강화를 올 한해 화두로 내걸었다. 사진제공=아름다운 요가동호회

미룰수 없다 ‘전문가 양성’

한국요가연합회(회장 신석규 · 구 한국요가지도자연합회)는 최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2005년 사업 방향을 ‘요가교육의 전문화’로 압축 제시했다. 요가 단체로서는 드물게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요가학술대회를 4년째 개최해 온 한국요가연합회는 올해 역시 6 ·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한국요가연합회는 전문적인 요가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춰 ‘요가지도자 교재’를 3년째 기획해왔다. 김성홍 기획국장은 “올해는 요가전문가들을 초빙해 교재발간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요가지도자 교육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 · 8월에는 10~30일에 걸쳐 요가지도자들을 위한 인도 요가 교육기관 연수를 실시하고, 요가원 운영자와 요가 강사들을 대상으로 요가대학 전문과정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요가학과 역시 요가 전문 인력 양성을 올해 최고 과제로 꼽는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요가학 석사를 배출한 이래 올 2월 5명의 석사를 추가로 내보내는 원광대는 양성된 인력을 중심으로 산스크리트어 원전 연구 및 번역 등에 매진할 계획이다.

학과장 김순금 교수는 “지난해 마련된 요가학 연구실에서 1월 10일부터 원서강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독회를 거쳐 국내에 보급되지 않은 원전번역서를 1년에 한 권 이상 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요가연수원(원장 이태영)은 고급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작년 8월 ‘쿤달리니 요가 과정’을 시작한 이후 올 2월 처음으로 40여명에 이르는 코스 수료자를 배출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인 쿤달리니 수련과정은 올해 역시 요가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요가에도 문화가 있다

체조에 그치는 동작 보급으로 한계를 지적받은 요가계는 최근 요가 관련 문화를 일반에 확대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요가문화잡지를 발간한 ‘요가코리아’측은 4권의 잡지를 선보이며 요가 문화의 대중적 보급에 기여했다.

이 같은 흐름에 이어 춘해대학교 요가과 교수 및 학생들은 올 3월 웹진 <요가저널>을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춘해대 요가과 학과장 곽미자 교수는 “계간지를 목표로 요가 생리학, 요가 심리학, 요가 철학을 비롯해 인도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다양한 명상법 등을 두루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춘해대 요가과는 상대적으로 일반에 생소한 요가의 계율을 널리 알린다는 취지 하에 채식동아리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살생 등 요가수행자들의 금기 항목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를 돕는 한편, 채식을 통한 신체의 정화 및 수행력 증진 효과 등을 학문적으로 규명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한 달에 하루씩 채식의 날을 선정해 실질적인 채식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와 함께 춘해대 요가과는 춘해대 기숙사에 인도 아쉬람 생활 패턴을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하루 1~2시간 이상 요가수행과 침묵수행 시간을 마련하는 등 기숙사와 수행공동체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국제요가협회(회장 정판식)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삼성, LG 등 국내 유수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요가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체육관이나 헬스크럽 등을 요가원으로 흡수하면서 요가를 통한 생활건강 증진을 추구할 계획이다.

제도권 의학으로 한걸음 더

지난해 요가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주목한 논문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요가를 치유수단으로 응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특히 꽃마을 한방병원(원장 강명자)의 경우 요가연구실을 별도로 마련해 불임치료 등에 요가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제도권 병원에서 요가를 치료 관련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요가치료학 전공과정에서는 이 같은 추세를 이어 올 한해 치유요가를 본격적으로 연구 · 도입한다. 그 가운데서도 ‘어린이요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계발해 가족 관계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가족요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며,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작명상 프로그램 역시 한창 검토 중에 있다.

또 지난해 개설한 ‘요가연구소’를 중심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을 요가로 진정 · 치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생각이다. 요가치료학 조옥경 주임교수는 “올 한해 요가치유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실습을 거쳐 대중적인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익요가협회(회장 이희주) 역시 그동안 협회차원에서 특화시켜온 임산부 요가 과정을 확대 · 개편한다. 또한 ‘요가를 통한 홍익인간의 실천’이라는 모토 하에 지난해 중점적으로 준비해온 ‘장애우를 위한 전문요가’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신재 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 연재를 시작하며

틈 나는대로 경전을 읽고 선어록을 열람하고 또 나름대로 글을 써왔다. 그리고 가끔 번역도 하고 그걸 묶어 책으로 세상에 선보인 적도 있었다. 그런 일련의 작업 속에서 선불교가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매력들이 읽혀지기 시작했다.

선종승려들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현실관 그리고 생명력은 ‘일상성의 종교’로서의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수행자로서의 엄격함과 칼날같은 정진력 뒤켠에서 묻어나오는 인간적 번민과 고뇌 그리고 인정스러움이 때로는 더 가슴에 와 닿았다.

그야말로 ‘사람냄새’가 주는 아름다움이었다. 때로는 ‘인간적’이라는 말이 가지는 한계인 속스런 차원에 매몰되지 않고 이것을 공부로 승화시켜 버리는 승속불이(僧俗不二)의 그 절묘한 반전은 지혜 그 자체이다.

비구와 비구, 비구와 비구니 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승려와 거사, 그리고 승려와 청신녀 등 다양한 상황의 설정과 긴장감이 주는 팽팽함은 이제 천년세월을 넘어 또다른 신화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신화는 생명력을 어떻게 불어넣느냐에 따라 현재가 되기도 한다. 삶 따로 불교 따로, 당송(唐宋)시대 따로 한국시대 따로가 되어버린다면 그 책임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이다.

신화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또다른 우리의 현실이다. 바로 우리의 현재이기도 하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신화로서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 그 선종사의 신화같은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오늘에 다시 되살려보겠다는 것이 연재하는 사람으로서의 변(辯)이라면 변(辯)이다.

선종의 1700공안은 이미 법칙화되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다른 박제화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일상적인 생명력 그 자체였다.

따라서 그 공안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선 지금도 계속 화두가 만들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도출된다.

그 공안은 ‘차나 한잔 마시게’ 대신에 ‘커피나 한 잔 하게’라는 뭐 이런 식의 모방이라면 그것도 곤란하다. 그나마 현재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이뭣고’ 화두는 만들어진지 1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순수토종 창조적 공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700공안이 문제가 아니라

일상성의 종교인 선종의 진면목 오늘의 우리 이야기로 풀어보자

그 이후 공안이 단절되었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다. 이후의 역사가 없다보니 과거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복제로 가게 됐고, 복제는 박제가 되고, 그러다보니 현재와 무관한 남의 나라 먼 이야기가 되어 복고주의라는 불교사의 퇴행적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어쨌거나 ‘일상성의 종교’인 선종(禪宗)의 진면목을 한 꺼풀식 벗겨내면서 그 일화가 의미하는 당시의 일상성을 읽어낼 수 있다면 오늘날의 그것도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닌다. 고전이 가지는 영원한 생명력의 원천이 여기에 있는 까닭이다. 이것이 온고지신(溫故知新)이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며 계왕개래(繼往開來)가 아니겠는가.



원철 스님(사진)은 해인사로 출가하였으며, 해인사승가대학 · 실상사화엄학림 · 동국대(경주)불교학과 강사를 지냈다. 번역서로는 <역주 선림승보전 上 · 下>(장경각)이 있으며, 틈틈이 경전과 선어록 번역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을 맡고 있다.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최초 [법문가요] 보급사찰
대한불교법화종
법 만 사
주 지 법만 합장
신도회 · 법연회
서울시 중랑구 중화1동 274-63
TEL 02)433-6591~2
2005년 1월 1일자(본지 507호) 법만사 신년인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을 대한불교법화종으로 바로 잡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기도도량
성주산 백운사
주 지 법 찬
사부대중 일동
■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 35-2번지
TEL 041)933-5020
대한불교 조계종
용 화 사
주 지 도 원
■ 대한불교 조계종 용화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404 TEL 053)614-3087
대한불교조계종
장곡산 삼밀사
주 지 이동하
신도일동
■ 경남 진해시 여좌동 산75
주지실 055)544-5962
종무소 055)543-2931
대한불교원효종
최정산 대원사
중앙교육원장 서응스님 주석사찰
주 지 대 원(김연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산 56-1
TEL 053)768-0887
해동최초가람
태조산 도리사
주 지 웅산 법등
총 무 법 조
신도회장 황경환
박경호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
TEL 054)474-3737
FAX 054)474-8630
홈페이지 www.dorisa.or.kr
구미불교대학
학 장 웅산 법등
학 감 승 오
경북 구미시 봉곡동 205-1
TEL 054)453-0571
cafe.daum.net/buddhistschool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주 지 웅산 법등
부 관 장 진 오
부설시설장 법 현
연꽃어린이집
재가복지봉사센터
학대아동쉼터
치매어르신주간보호센터
푸드뱅크
경북 구미시 도량1동 666
TEL 054)458-0230
www.geumo.or.kr

508_19 2005.1.10 11:41 AM 페이지 1 (2,1)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 (27) 수레바퀴는 있는데 수레는 없단 말이냐

향수 냄새 가득한데 미인은 간 데 없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메난드로스 왕은 물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스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가세나라고 부릅니다, 대왕이시여. 나의 동료들은 그렇게들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모님이 내게 준 이름일 뿐, 나가세나든, 수라세나든, 비라세나든, 시하세나든, 그런 것들은 다만 '명칭'이고, '관념'이고 '습관'으로서 다만 '이름'일 뿐입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메난드로스 왕은 놀라서 이렇게 외쳤다. "들어보시오, 여러분, 500의 그리이스인과 8만의 승려들이여. 지금 이 나가세나는 지금 제게, '자신은 실제로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가세나에게 말했다.

"만일, 존경하는 나가세나시여, 실제 어떤 '사람'도 없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이 필요로 하는 옷이며 음식, 주거며 약 따위를 주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쓰고 소비하는 사람은 또 누구란 말입니까.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며, 선정을 닦는 사람은 또 누구며, 네 가지 성스런 길과 그 과실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리하여 니르바나에 이르는 사람은 또 누구란 말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며,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사람은 누구며, 부적절한 성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며, 거짓말을 하고, 술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섯 가지 죽을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일 거기 '사람'이 없다면, 공덕도 없고 죄악도 없을 것이며, 그 공덕을 짓고 죄악을 저지르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배후에 어떤 행위자도 없을 것입니다. 선하고 악한 행위의 과보도 없을 것이며, 그에 대한 보상과 처벌도 없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당신을 죽인다 해도, 오, 존경하는 나가세나여, 그는 어떤 살인도 저지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 존경하는 나가세나여, 당신은 진정한 교사나 지도자, 정식 승려로서 서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오온이 아니다

메난드로스 왕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그럼, 어디 물어봅시다.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을 습관적으로 '나가세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혹시 머리카락이 나가세나인가요?"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아니면, 몸의 터럭이 나가세나인가요?"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아니면, 손톱, 이빨, 피부, 근육, 힘줄, 뼈, 골수, 신장, 간, 지라, 폐, 창자, 복막, 위, 똥, 쓸개즙, 고름, 지방, 눈물, 땀, 침, 콧물, 연골, 오줌, 골 속의 뇌, 이런 것들이 나가세나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그렇다면 존자여, '물질(色)'이 나가세나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그럼, '감정(受)'이 나가세나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그럼, '지각(想)'이 나가세나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그럼, '의지(行)'가 나가세나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그럼, '의식(識)'이 나가세나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그렇다면, 앞의 다섯 더미(五蘊)의 결합을 나가세나라 합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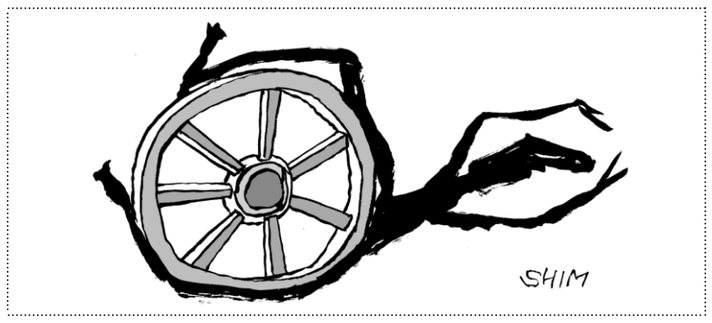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 오온 밖에 따로 나가세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메난드로스 왕은 곤혹스럽게 말했다. "존자여, 여러 질문을 했지만, 저는 나가세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가세나'는 단순한 소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럼 여기 내 앞에 있는 나가세나는 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정 나가세나는 없었습니다."

수레바퀴는 있는데 수레는 없다니

의혹과 혼돈에 빠진 메난드로스 왕에게 존자 나가세나는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다.



"대왕이시여, 당신은 부드럽고 세련된 환경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 몸에 맨발로 거친 바닥과 뜨거운 모래를 밟는다고 합시다. 그대의 연약한 발이 험한 가시밭과 자갈 길 위를 걷는다면 발은 상처를 입고, 몸은 피곤해지며, 정신은 손상되어, 걸음마다 아프고 괴로운 느낌을 갖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왕이시여, 당신은 이곳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수레를 타고 오셨습니까?"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수레를 타고 오셨다니, 대왕이시여, 그럼 '수레'가 무엇인지 제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굴대'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존자시여."

"그럼, '바퀴축'이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존자시여."

"그럼, 바퀴가, 혹은 바퀴살이, 깃대, 빗장, 멍에 등등이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존자시여."

"대왕이시여, 여러 질문을 했지만, 저는 '수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수레'는 단순한 소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럼 무엇이 진짜 수레입니까? 대왕께서는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정 수레는 없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전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대체 누가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

"들어보시오. 여러분, 500의 그리이스인과 80,000의 승려들이여. 지금 지금 이 메난드로스 왕께서는 분명 자신이 수레를 타고 여기 오셨다고 말씀하셨소. 그렇지만, 수레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자, 그 존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500의 그리이스인들이 나가세나를 찬탄하며 메난드로스 왕에게 주문했다. "대왕께서는 이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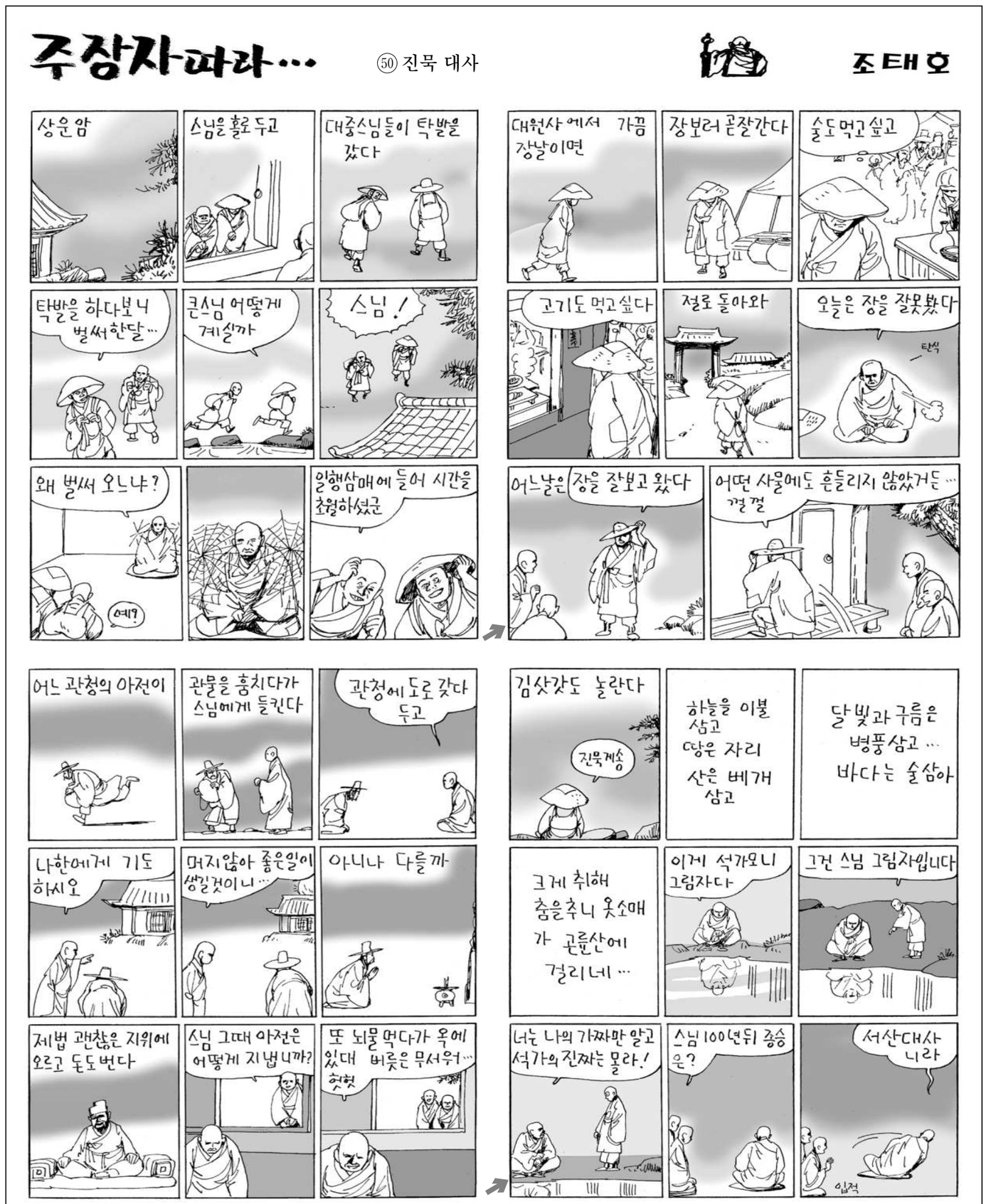
"나는, 나가세나여,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굴대와 축, 바퀴와 바퀴살, 깃대와 빗장, 멍에 등속에 의존해서, 여기 '수레'라는 명칭이, 관념이, 습관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름뿐인 '수레'가…"

"대왕께서는 수레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나가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서른 두 부분과 물질, 감정, 지각, 의지, 의식의 오온에 의지해서 '나가세나'라는 명칭이, 관념이, 습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 견지에서, 이 '사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왕이시여, 바지라라는 비구니가 붓다 앞에서 이런 시를 노래했습니다.

마치, 부분이 바로 모일 때,
'수레'라는 이름이 생겨나듯이
다섯 가지 요소(五蘊)가 존재하는 곳에
'어떤 것'이라 부르는 관습이 있네.

"존자 나가세나여, 정말 훌륭합니다. 내 질문에 정말로 훌륭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붓다께서 여기 계셨다면, 당신의 대답을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진묵(1562~1633)스님: 전북 김제 만경출생. 7세에 전주 봉서사로 출가. 참선과 독경으로 일생을 보냈고 '석가모니의 화신'이라 불렸다. 초의 스님의 <진묵조사유적고>가 전한다.

네티즌 교리문답

'성성적적(惺惺寂寂)'의 의미는?

문 조사 스님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성성적적(惺惺寂寂)'입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삼매와 무슨 관계가 있고, 또 이 말이 들어있는 원문(原文) 혹은 원전(原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P 토출용궁)

답1 : 〈약인보살경〉 '삼성반월품'에 있습니다. 원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름지기 참선자는 돌이켜 반조하는 것으로 경계를 대하여야 하고(적적), 늘 깨어 있는 것으로 마음이 동하는 것을 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친 스승인 선사를 만나야 합니다. 깨침이란 무분별의 분별로서 자유자재함이요, 스승이란 학인들의 막힌 곳을 터주기 위해 어떤 기특한 지견이라도 말끔히 비우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스승은 갖은 방편을 마다않고 상대의 근기에 따라 혹은 세우고 혹은 쓸어버려 추호라도 의지함이 있거나 어긋남이 없도록 엄정하게 가리게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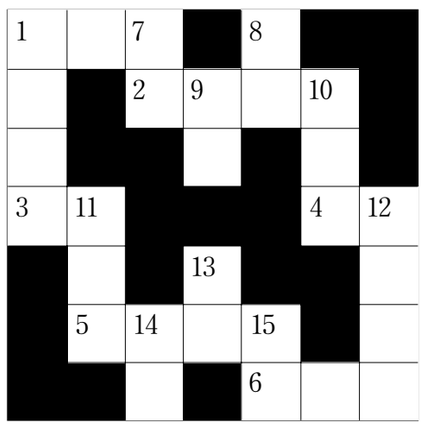
그래서 이 공부는 첫째도 신심이요, 둘째도 신심입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조차 없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혜가 선사는 팔을 끊어 스승께 불석신명(不惜身命)을 보였고 설봉은 법을 묻기 위해 5,000리 머나먼 길을 끊임없이 왕복하며 세 번 동산을 찾고 아홉 번 투자산을 찾았다 합니다. 성성적적의 경지를 깨달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tathata)

답2 :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란 지(止)와 관(觀)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선가에서는 바로 성성적적이라 표현합니다. 또 쌍차쌍조(雙此雙照)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고요하고 비추는 그 삼매 속에서 바로 깨닫는 것이지 깨닫기 위해 다시 삼매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삼매에 대한 오해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다가 어떤 경계를 만나 갑자기 활연대오 했다고 해서 삼매에서 나온 게 아니냐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뒤에나 삼매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성성적적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 각안(覺眼)에 다시 삼매에 들고 나는 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묵동정이 그대로 밝게 관해서 집중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삼매 없이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도 삼매를 떠나지 않고 부처님이 활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청산리○○○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2. 동요 '반달'에 등장하는 나무 3. 주역의 팔괘와 그물을 처음으로 만든 중국 3황5제 중 한 사람 4. '이 시대', 비슷한 말 당세(當世) 5. 생선은 머리가 짐승은 꼬리부분이 맛있다는 말 6. 바다를 막아 경작지로 만들어 놓은 땅.

세로

1. 사악함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임 7. 불자가 계를 받음을 일컫는 말 8.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 단위, 매우 짧은 순간 9. 임금님께 올리는 밥상 10. 설탕이 가미되지 않음 11. 고대 그리스어를 일컫는 말 12. 아주 밝은 세상을 일컫는 한자성어 13. 피와 살이란 한자어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말함 14. 중국 당나라 최고의 시인으로 시성으로 불림 15. 눈썹과 눈썹 사이.

톨스토이 문학 한가운데 숨쉬는 동양



톨스토이와 동양
김려춘 지음
이항재 외 옮김
인디북 펴냄
1만원

19세기 동서양의 만남. '일방통행'이란 단어부터 떠오른다. 서양은 문명의 시혜자로 '우쭐' 했고, 동양은 '삐죽거리는' 수용자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관계 자체가 쌍방향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접근 태도도 달랐다. 동양은 근대화의 이정표를 서구에서 찾으려 했고, 서양은 '정체된' 동양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달랐다. 동양에 대한 그의 태도는 쌍무적이었고, 진정한 상호성을 원칙으로 했다. 동양만이 톨스토이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톨스토이도 동양의 정신적 유산에 다가갔다.

기존 동서양의 편협한 상호인식, 그리고 소통을 위한 대화. 책 <톨스토이와 동양>은 평행선상에 서 있는 동서양의 만남들을 '톨스토이'라는 인물에서 그 접점을 찾고 있다. 때문에 논의 초점은 동서양의 관계성 조명, 톨스토이의 동양관 성립과정에 철저히 맞춰져 있다. 지은이 모스크바대학 김려춘 교수는 우선 이 책의 서두를 톨스토이의 동서양 관계부터 규명하는데서 출발한다.

"아시아 민중들에 대한 '문명화된 우월성'은 톨스토이에게 전혀 낯선 것이었다. 그는 오히려 반대라고 했다. 이런 평등의식은 결코 '만들어진 것'도, '인위적인 것'도 아니었다. 러시아와 동양은 역사적 · 심리적으로 유사하다는 그의 확신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이 같은 톨스토이의 동양관은 그의 문학사상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보편적 진리를 향한 모색 과정에서 그의 동양체험은 큰 공명을 일으킨다. 최소한 동양은 지적 확장을 위한 지식의 대상이 아니었고 정신적 발전을 위해 동양은 지혜 그 자체였다.

그럼 톨스토이가 경험한 동양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인생 말년에 접한 노자의 <도덕경>이다. 이를 통해 톨스토이는 동양의 모든 것을 '자기화' 한다.


문학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었던 톨스토이. 그는 소위 '동서양인(東西洋人)'의 삶을 살아온 대문호였다.

또 노자의 무위론은 그의 학문적 세계관에 일대 전환을 일으킨다. 무엇보다도 노자의 자유로운 사고방식, 표현의 간결성, 단편적인 구상 등은 톨스토이가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데 자극제가 됐다. 심지어 톨스토이는 1891년 자기 생애에 큰 영향을 끼친 11권의 서적을 엄선할 때, <복음서>와 함께 <도덕경>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꼽을 정도였다.

톨스토이는 노자로부터 배운 무위의 삶을 이렇게 말한다. 톨스토이와 노자의 사상적 해후는 시공을 초월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던져주는데 충분하다. 물질숭배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성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톨스토이의 사상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톨스토이의 인식도 이 책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톨스토이는 "한국인은 동양적 의미에서 볼 때 대단히 문명화된 국민"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동양문화의 항구적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조국 러시아를 포함한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을 철저히 비판했다. 러일전쟁 직후, 1904년 미국 '노스아메리칸' 지가 "러시아와 일본 중, 당신은 어느 쪽인가 아님 양쪽 다 반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나는 러시아도 일본도 아니다. 정부의 기만에 속아 자기의 행복과 양심을 버리고,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양국의 인민들의 편"이라고 답한다. 이러한 그의 반전관은 1906년 조선통감으로 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를 '미치광이', '타락한 무도의 인간'이라고 극렬히 비판한다.

톨스토이와 동양의 관계를 고찰한 이 책은 그 중요한 취지에도 아쉬운 대목이 곳곳에 발견된다. 8편

"만일 내가 사람들에게 충고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싶다. '한 순간이라도 좋으니 일을 중지하고 주위를 살펴보라. 즉 무위의 삶을 살아보라. 그리고 나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라고 …" ____톨스토이(노자로 부터 배운 무위의 삶에 대하여)

전문가 서평



나는 문학을 왜 하는가
-우리시대 문학가 일흔한 명이 말하는…
열화당 펴냄 | 1만2천원

최근 '한국문학에 벼락같이 쏟아진 행운'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소설가 김훈씨는 아직도 연필을 꾹꾹 눌러가며 원고지에 글을 쓰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무릎으로 온 몸으로 나만의 문장을 밀고 나간다"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하는 소설가 김훈씨는 다복한 경우이겠지만, 우리사회에는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되는 소위 전업 작가들이 상당히 많다. 몸과 정신을 고통스럽게 육박해가고 생활고를 감내하면서 글 쓰기를 평생의 업으로 받아들인 문인들. 그들은 왜 문학의 길을 선택했을까.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열화당)는 고은 김지하 신경림 조정래 황석영 황동규에서부터 공지영 안도현 배수아 장석남 김연수에 이르기까지 우리시대 대표적인 문인 71명이 문학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 문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밝힌 책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우리시대 문학가들이 '문학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성찰(省察)로서, 한 시대의 사상과 정서를 담아내는 문학작품이 탄생하게 된 원천인 작가

결핍을 극복하려고 나는 쓰네

의 '내밀(內密)한 문학사(文學史)'이자 '자기고백록'이다.

한국 시단의 원로인 신경림씨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나무를 심는 기분으로 시를 쓴다. 내가 심은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단 열매를 맺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보고도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들 무슨 상관이랴,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보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을 줄 것인데"라고. 시인 고은씨는 불가피성 말고는 본인 삶의 궁핍한 역정 가운데서 문학의 이유를 찾아낼 다른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저 시인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밀물이었다. 그저 시인이 되었을 뿐이다. 썰물이었다"라고 말한다.

이 책에는 이렇듯 문학을 하게 된 동기와 문학을 본인 삶의 뿌리로 자부하는 갖가지 이유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져 있다. 발레리는 "나는 약하니까 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결핍돼 있기 때문에 쓴다는 얘기다. 발레리의 경우처럼 문학은 대개 세상과의 불화의 기록이다. 오백 년 전 김시습은 "끝없는 시름 솜과 같아 닿자마자 달라붙으니/ 맑은 시 아니고는 고칠 수 없네"라고 노래했다. 하루에도 수백 수의 시를 지어 물에 띄워 보내며 세상의 시름을 달랬다는 김시습의 일화는 꽤 알려져 있다. 실존적인 것이든 본능적인 것이든 혹은 사회적인 것이든 문인들은 결핍들 때문에 그것들을 이기려고 글을 쓴다. 그리고 문인들은 사람과 세상을 온전히 그리고 열렬히 사랑하기 위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결핍이라 불릴 만한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문인들은 세대를 바꿔가며 새롭게 등장할 것이고, 또 독자들은 결핍의 소산인 문학 작품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될 것이다. "작가는 모든 비인간적인 것에 저항해야 하고, 그 실천이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다"고 말한 빅토르 위고의 진술처럼 말이다.

■문태준(불교방송 PD · 시인)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각종누비
● 면누비(먹물)
● 모직누비
● 물실크 누비
● 무명누비
● 손누비
(명주, 무명…)

동복
● 고급모직
● 무명
● 각종 먹물, 면

장삼, 가사, 조끼
몸빼, 셔츠



대구 고속터미널 ←중간→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 에서는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을 교육하고자 2005년 신입생을 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총 2년 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 강사 : 경허 상진스님 (영산재 보존회 회원)

❶ 학년 과정
● 사 물 : 목탁.요령다루는법
● 송 주 : 도량석.종성등
● 예 경 : 향수해례.사성례.칠정례.오분향례.각단예불
● 권 공 : 사시불공.삼보통청.퇴공.각단불공등
● 재의식 : 49재 및 천도의식.시달림등
● 시 식 : 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구병시식.일반시식등

❷ 학년 과정
● 상주권공 : 할향.등게.합장게.고향게.개게.세수게.복청게.사방찬.참회게.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39위).상단권공.중단권공.관음시식.봉송회향(49재 및 일반천도의식)
● 바라춤 : 요잡(막바라).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 나비춤 : 도량게.다게.운심게.옥건이(옴남).사방유신
● 사 물 : 태징.북.요령.목탁(전통의식타법)
● 특 강 : 향화게착복.가지게.쾌불이운.종사이운.점안의식 등

2. 개강일시 : 2005년 3월중 (1학년 매주 목요일 오후2시-6시까지 2학년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편입가능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입학금10만원 (교재비 포함), 월10만원
5. 강의장소 :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1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8. 접수기간 : 2005년 2월 25일까지
9. 연 락 처 :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 교육원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불교와 기독교 둘이 아니다?



보살예수
길희성 지음
현암사 | 8천5백원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종교박물관'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종교갈등의 가능성은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 길희성 교수는 <보살예수>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화합과 사회 공동선 실천을 촉구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조계사가 내건 성탄축하 플래카드. 현대불교 자료사진

"예수님이 보살입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도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끊이질 않는 오늘날, 길희성(61) 서강대 명예교수의 '예수가 보살'이라는 명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더군다나 불교와 기독교라는 두 세계종교가 막상막하의 세력으로 공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말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철저한 무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이나 정장식 포항시장의 '포항시 성시화' 등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발언으로 종교간 갈등이 고조되었던 점을 미루어 본다면, 이는 성급한 '화합 시도'로도 읽힐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으로 반평생 불교를 연구해온 '종교다원주의자' 길희성 교수는 최근 출간한 <보살예수>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창조적 만남'을 모색하고자 한다. 길 교수는 인간 붓다와 인간 예수, 열반과 하느님나라, 공(空)과 하느님, 자력과 타력 등 두 종교를 관통하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책은 지난해 초 새길기독사회문화원이 주최한 일요신학강좌에서 '불교와 그리스도교'란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반평생 불교 연구해 온 기독교인 길희성 교수
두 종교 핵심 짚어내며 화합 협력의 길 모색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이로움(自利)과 타인의 이로움(利他)을 동시에 추구하는 보살의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분입니다. 종교혼합주의라거나 불(不)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단지 세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랜 공부와 진지한 사색의 결과임을 확언합니다."

길 교수의 '확언'은 자신의 학문적 행보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기독교가 모태신앙인 길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 재학시절 故 김동화 · 이기영 교수의 강의를 듣고 불교와 인연을 맺은 후 미국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비교종교학을 공부했다.

70년대 초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선(禪)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송광사에 머물며 참선을 경험하기도 했던 길 교수는 서강대에서 20여 년간 불교를 강의할 정도로 불교와 기독교의 활발한 대화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불교와 개신교는 물리적으로만 공존할 뿐, 정신적으로는 상호 무관심이나 무시 속에 병존하고 있다"는 점을 종교갈등의 도화선으로 지적한다. 두 종교가 서로간의 창조적 만남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사상을 심화할 소중한 기회를 놓친 채, '상호 무지'의 상태에만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무지가 결국 종교갈 갈등과 대립을 낳기 전에, 종교간에 서로의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 평화와 지혜의 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방법이라고 길 교수는 말한다.

길 교수는 책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서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화합해야 하며, 이 만남은 사회정의나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 우리 사회의 공동선(共同善) 실천이나 사상적 이해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전제로 한 실천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마음 바로 보면 삶이 달라져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마련이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와 라마 수리야 다스는 '좀 더 많이 버리고 명상을 하라'고 조언한다. 최근 출간된 <마음>과 <상실>에서 이들은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음>은 달라이 라마가 1979년부터 81년까지 미국과 태나다의 대학, 세계종교회의, 사원 등에서 가졌던 강연을 풀어 엮은 책이다. 그는 '지혜와 자비심의 조화' '내면의 변화와 중용' '세계 종교간의 이해와 조화' 등을 주제로 인류 모두에게 자애와 사랑과 연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또한 그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좋은 집과 맛있는 음식에 욕심을 낸다면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잠재력인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 명상과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태생으로 티베트불교에 귀의한 라마 수리야 다스는 **<상실>**에서 직장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아픔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한 자아와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는 "고통과 괴로움은 내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명상을 통해 집착하는 것들을 놓아버릴 때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충고한다.



마음
달라이 라마 지음
제프리 홉킨스 엮음
나혜목 옮김
큰나무 | 1만원

상실
라마 수리야 다스 지음
진우기 옮김
푸른숲 | 9천8백원

현직 판사가 풀어 쓴 반야심경

지난 2003년 <육조단경 읽기>를 발간해 '경전 쉽게 읽기'를 시도하고 있는 김윤수 파주시법원 판사가 이번엔 <반야심경 · 금강경 읽기>를 펴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기본 경전인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뜻을 풀이하고자 하는 이 책에서 지은이는 전체 분량의 절반인 220여 페이지를 불교 기초 교리를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불교의 근본 원리로 보는 반야심경 · 금강경 읽기'라는 책의 부제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은이는 "대승불교의 전통에 속해 온 우리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초기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러한 경전의 뜻을 알기 쉽지 않다"며 "이미 수천 종의 주해서가 나와 있지만 입문자로 하여금 쉽고 정확하게 불교를 이해하도록 해 주는 안내서를 찾기 어려워 책을 내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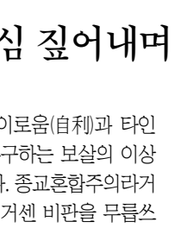
<반야심경>에 나타나는 오온, 고집멸도, 열반 등 대부분의 용어는 근본불교의 가르침을 구성하는 용어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 없이 경의 진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뜻을 이해한다면 <반야심경>의 '공(空)'이나 <금강경>의 '무상(無相)' 등의 핵심주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경전 편집의 진정한 의도도 읽을 수 있다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1부 '불교의 전개와 반야경전'과 2부 '근본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먼저 불교의 성립과 그 전개과정 그리고 반야경전의 성립과정을 살펴 본 후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이해에 필요한 근본불교의 가르침을 설명한다.

3부 '반야심경 읽기'와 4부 '금강경 읽기'에서는 경의 구성과 제목의 의미, 판본, 경전 각 구절마다의 세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지은이는 지난해부터 파주시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반야심경 · 금강경 읽기
김윤수 지음
마고북스 | 1만8천원

인터넷 타고 온 붓다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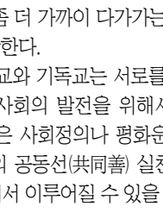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자마자 시작되는 '스팸 메일(전자메일을 이용한 광고)'과의 전쟁. 그 지루하고 소모적인 전쟁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 있는 이메일 한 통을 발견했다면, 정운 스님(니련선하원 주지 · 사진)이 보낸 '붓다의 메시지'가 아닌지 확인해 보자.

2000년부터 5년째 매주 한 번씩 이메일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이 그동안 보낸 메일 내용과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한 글을 모아 <맨발의 붓다>를 펴냈다. 지난 2002년 선보인 <붓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에 이은 두 번째 이메일 모음집이다.

비구니 스님이 보낸 메일이라고 해서 온통 '불교' 이야기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니련선하원에서 독서모임을 이끌고 있을 만큼 책 읽기를 즐기는 스님은 <법구경>이나 <아함경> <보왕삼매론> 등의 경전을 비롯해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나 푸쉬킨의 싯구 심지어 성경구절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통해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준다.

글 말미에는 초심자를 위해 각주를 두어 인용문의 출처와 '업' '팔정도' 등의 불교용어를 소개하고 있어 초심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능한 철저히 경전에 입각해 쓰되, 너무 경직되지 않으며 인간적인 풍모가 깃든 향기로움을 담아내고 싶었다"는 스님은 "불교의 진리를 어떻게 삶과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이를 이메일에 담고 싶다"고 말한다.



맨발의 붓다
정운 스님 지음
무우수 |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3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4	붓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	아미 슈미트	꿈꾸는돌
5	영가천도	우룡 스님	효림
6	입보리행론	샨티데바	하얀연꽃
7	이판사판 화엄경	성법 스님	정신세계원
8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9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청화 스님	이른아침
10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소운 스님	도솔

도서 안내 : (02)737-0695


바로보인 환단고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히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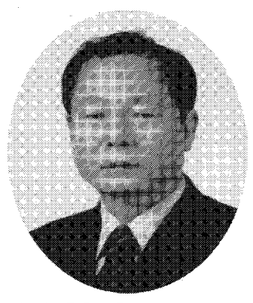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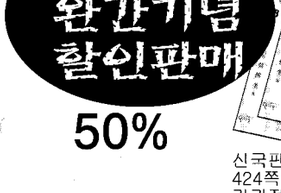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환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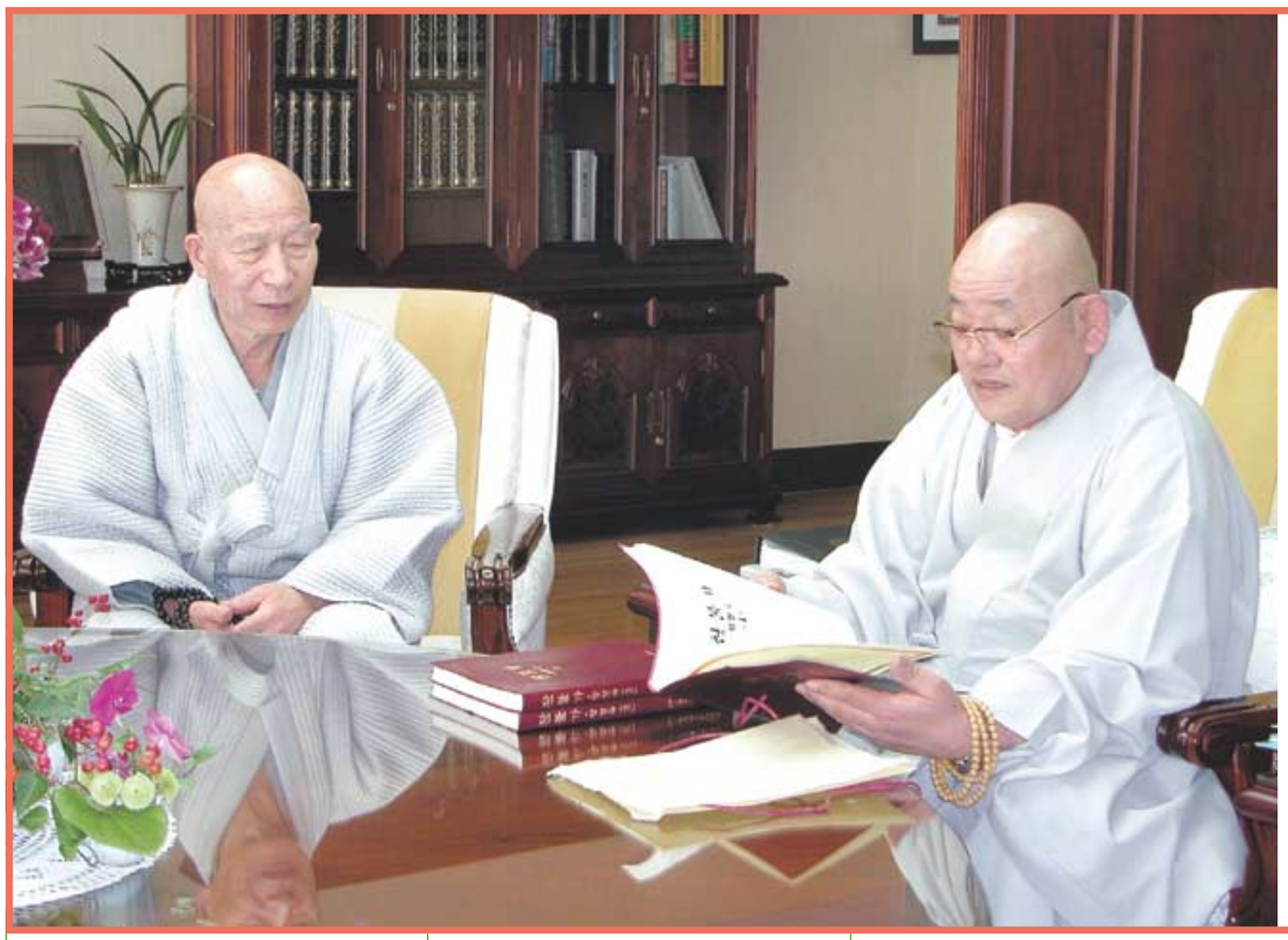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해광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 정가 12,900원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숙명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집 ·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부동산(집 · 땅 · 가게 · 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대인관계(사업 · 교제 · 결혼 · 취직)의 궁합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易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완결편-
녹현방정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뭉실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치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격국(용, 희신=추구하는 삶)과 심성체질(원초적인 본능=끌려가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위(마음의 만족도)와 격국의 크기(상, 중, 하격)까지 나온다.

왕초보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녹현 이세진 지음 / 신국판 / 408페이지 / 정가 25,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최근 이혼률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페이지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가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10,000 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종단차원 찬불가 보급 방안 마련하겠다”

법장 스님, 운문 스님 예방 받고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종단차원에서 찬불가 보급 방안을 마련할 뜻을 내비쳤다.

법장 스님은 지난해 11월 23일 운문 스님의 예방을 받고 “종단차원에서 찬불가 보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403곡의 찬불가를 새롭게 만든 것은 위대한 불사”라고 운문 스님을 격려했으며, 운문 스님은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불자들에게 찬불가를 보급하고 싶다”며 종단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조계종 문화부장 성정 스님도 “아직도 찬불가의 보급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전 사부대중에게 찬불가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보불교음악협회는 10월 13일 403곡이 수록된 찬불가 3권을 간행한 바 있다.

신도용 찬불가 편찬과정



안병길 사)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은 전국에 있는 찬불가를 모아서 집대성하여 총 8권으로 1993년 10월에 출간하였고 뒤이어 합창곡 집 1권을 1996년에 출간하였다. 그러나 신도들을 위한 찬불가가 없어 절마다 복사하여 사용하고 법요집에 항상 삽입되는 것을 보고 단행본의 찬불가를 편찬해

찬불가 모아 총8권으로 집대성

야겠다고 생각하여 1998년부터 준비하여 2002년 4월에 출간하게 되었다.

찬불가의 출간의 의의는 1) 복사를 하지 말고, 2) 많은 곡들을 신도들에게 보급하고, 3) 전국이 하나 되는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하였다. 4) 편찬방법은 일러두기와 제목분류에 있다.

일러두기

이번 찬불가 편찬 불사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우리 민족과 불교 정통성에 부합하는 곡의 선정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그 동안 수집된 1300 여 곡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 선별에 제한된 곡

1) 신도용을 감안, 어렵고 전문적인 곡과 불교정서에 적합치 못한 곡. 2) 외국곡을 포함하여 표절시비가 될 수 있는 곡.
3) 동요 등의 너무 단순한 곡이나 사가 등과 같은 단일성 행사 위주의 곡. 4) 음폭이 너무 넓거나 곡의 길이가 너무 긴 곡.

■ 선별에 우선된 곡

1) 범 불교적인 찬불가, 즉 종단을 초월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곡된 곡. 2) 대중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불교 음악으로서의 품위가 있는 곡. 3) 현재 각 사찰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고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곡. 4) 불교의 가르침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의식에 필요한 곡.

■ 편집방향

1) 내용 찾기의 편의를 위해 곡의 순번을 상단 좌우에 적고, 쪽수를 쓰지 않았다.
2) 곡의 빠르기는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필요한 곡에는 메트로놈 숫자를 사용하였다.
4.) 찬불가의 분류는 불교의 사상적 신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내용으로만 분류
하고 용도별(법회식순)로는 분류하지 않았다.
5.) 가사는 가능하면 현행 맞춤법에 따라 수정하였다.
6)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도용과 반주용의 곡 순서를 일치시켰다.

위와 같은 기본 방침을 준수하면서 편찬위원들은 일반 신도들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찬불가 330곡을 선별하고,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신앙의 조직화와 실용성을 기하였다.

운문 스님 인터뷰

英·中·日어로도 찬불가집 펴낼터



“불교 의식이 행해지는 곳이면 내 노래가 안 불려지는 데가 없어요. 큰 사찰에 주지 한 번 못해봤지만 요즘 와서 생각하니 찬불가를 만들어 보급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을유년 새해 초 서울 삼각산 구기동에서 만난 운문 스님(사진)의 얼굴에는 일평생 바쳐온 찬불가 보급 운동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다. 여든을 바라보지만 스님은 요즈음에도 이따끔씩 방안에 놓여진 건반악기를 두드리며 찬불가를 작곡한다. “우리의 불교음악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찬불가집을 영어와 중국어 및 일본어로도 번역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찬불가집을 반드시 살아생전에 집대성할 것입니다. 물론 합창용 찬불가 제4권도 마무리를 지어야 겠지요.”

언제나 그랫듯이 남은 여생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불교음악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스님은 올해 삼보불교음악회관 건립 불사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피력했다.

글= 김주일기자 · 사진=고영배기자

운문 스님 작사 주요곡

누가 예쁠까 / 보현행원 / 사홍서원 / 산회가 / 중도회가 / 지장 보살의 서원 / 진달래 / 진리의 행진곡 / 진리의 행진곡 / 진혼가 / 집회가 / 착착착 / 착한 어린이 / 찬양합니다 / 참새놀이 / 천수경 / 천수경 / 청법가 / 추석 / 칠불 아자방 / 칠월백중 / 탄생하심 / 태자님과 꽃동산 / 품에 안아주소서 / 풍선놀이 / 하얀 구름 / 검은 구름 하얀 눈 / 학생회가 / 한국 관음회 회가 / 항마가 / 해바라기 / 해인사 풍경소리 / 행복을 주시옵소서 / 행복의 문

운문 스님 약력

1944 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망월사에서 박인곡 대화상을 은사로 득도
1953 년 3월 15일	경남 합천군 해인사 불교 전문 강원에서 대교과 수료.
1956 년 7월 10일	전남 여수 흥국사 주지 취임
1959 년 8월 2일	경남 진주시 연화사 주지 취임
1962 년 10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취임
1963 년 3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피선
1966 년 5월 28일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창립
1968 년 5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공로상 수상
1971 년 12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취임
1972 년 6월 13일	서울 회기동 연화사 주지 취임
1975 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운문사 창건
1983 년 6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공로상 수상
1985 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수여
1985 년 12월 31일	어린이 찬불가 펴냄
1987 년 1월 8일	제 1회 포 교 대 상 (공 로 상) 수 상
1990 년 2월 11일	제3회 포교대상(본상) 수상
1997 년 10월 5일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 취임
1999 년 10월 19일	불교음악 40년 새천년을 위한 불교음악제 봉행
2000 년 1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음악협회 총재 및 이사장 취임
2001 년 2월 23일	오페라타 ‘아미타불’ 제주도에서 공연
2002 년 4월 11일	신도용과 반주용<찬불가집> 발간 기념 및 제1회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2002 년 12월 7일	제 2회 부산 삼광사서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2003 년 4월 9일	정부기교수 불교음악 CD ‘다시 나를 바라보며’ 출간 기념 음악회 개최
2003 년 9월 27일	제3회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
2004 년 10월 13일	403곡이 수록된 찬불가 합창곡집 1,2,3권 발간 기념 및 제4회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세종문화회관대강당>

사)삼보불교음악회관 불사계획

운문 스님은 1928년 12월 5일 태어나시어 많은 사찰과 불교계의 요직을 두루 거치시면서 1975년 3월 1일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운문사에 암자를 마련하시여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다. 23년을 운문사의 주지로 소임 하시다가 1998년 주지 직을 태연스님께 인계하시고 회주로써 운문사에 거주하신다.

평생을 불교음악에 헌신하신 운문스님께서 운문사를 1998년 한국불교음악협회에 기증하심으로써 스님의 원력과 불교음악인 들의 꿈과 소망을 담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전당을 건립하여 불교음악의 전문성, 대중화, 저변확대를 통한 불국토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한다.

운문스님의 원력은 대단하신 것 같다. 불교음악을 시작하신지 48년 만에 찬불가의 집대성, 신도용찬불가완성, 합창곡 편찬 등 찬불가의 신기원을 만드신 것이다. 스님의 서원이 한 가지 남아있지만 그 서원도 이루어지실 것이다. 마지막 남은 불교음악회관이 세워져 많은 불교음악인들과 불자들의 정신적인 전당을 만들려고 한다. 스님께서 1975년에 만들어놓으신 자리에 2005년 6월1일에 기

‘전문성 · 대중화 · 저변확대에 기여코자’

공식을 할 예정이다. 30년 만에 스님의 원력이 이루지는 것이다. 운문사의 건립은 모든 사람들의 정성으로 세워질 것이다. 특히 불교음악의 지도자, 합창단단원이 중심이 되어 불교음악의 회관을 세우고자한다.

사)삼보불교음악회관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다. 가깝게는 불교음악인들 것이고 넓게는 불교인들의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것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 음악회관을 건립하여 모두가 공동 관리하여 불교음악의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어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하듯이 불교음악역사를 우리들이 만들어 미래의 자연인에게 남겨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산은 산으로써 남겨두고 물은 물로써 존재하여야 하듯이 불교음악은 불교음악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음악회관 건립에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 명칭 : 사)삼보불교음악회관
- 기공일 : 2005년 6월 1일
- 준공일 : 2006년 4월 8일

●면적개요

층별	면적	용도
지하2층	330㎡(100평)	주차장
지하1층	330㎡(100평)	회관
지상1층	100㎡(30평)~148㎡(45평)	종무소 및 식당
지상2층	100㎡(30평)~148㎡(45평)	요사채
지상3층	100㎡(30평)~148㎡(45평)	법당
합계	960㎡(290평)~1104㎡(3345평)	

●건물개요

구분	내용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203-6호외 3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대지면적	490㎡(148평)
건축면적	144.56㎡(44평)
건폐율	29.50%
연면적	676.27㎡
용적율	88.51%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주차대수	옥내 6대



조감도.

삼보불교음악협회 조직표

고문: 대우스님, 도문스님, 행산스님, 광우스님, 추월성

감사: 김순임, 박이제, 이영화

총재 겸 이사장 정운문
부총재 최영철
수석 부이사장 김동환
부이사장: 김성국, 이상규, 이정지, 정부기, 조영근
이사: 흥교스님, 효경스님, 대운스님, 정덕스님, 법운스님, 지원스님, 이건호, 이달철, 이영구, 박재완, 홍도후, 홍영희, 최조웅
사무총장 안병길
사무국장 변창현
디자인 변성주
관리이사 이준형

사) 삼보불교음악협회 소개

1991년 1월10일	제3세대 불교음악동호인회 발족	초대회장 : 반영규	2000년 4월12일	“한국불교음악협회 창립기념연주회” 개최 및 “지도자 합창단” 구성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991년 4월20일	제3세대 불교명상음악작곡발표회	장소 : 호암아트홀			
1992년11월 7일	불교음악의대향연 “붓다의 노래”공연	장소 : 예술의 전당	2000년12월19일	사단법인 “삼보불교음악협회승인	장소:문화관광부
1993년 5월25일	“붓다의 노래” 앙코르 공연	장소 : KBS홀	2001년12월12일	제1회 전국연합합창단 한마음 축제 개최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993년10월30일	“찬불가 전집” 전 8권 출간	장소 : 세종홀			
1993년11월13일	“불교음악의 대향연” 공연	장소 : KBS홀	2002년 4월11일	찬불가(신도용) 출판기념	장소 : 세종홀
1994년 3월25일	제3세대 불교음악동인회에서 한국불교음악연구회로 개칭		2002년 4월11일	찬불가(신도용) 출판기념음악회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994년11월 5일	예총 한국음악협회 산하단체로 등록	2대 회장 : 정부기	2002년 12월7일	제2회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장소 : 부산 삼광사 지장전
1996년 3월17일	“찬불가 합창곡집” 출판 및 기념음악회	장소 : 예술의 전당			
1999년 9월	한국불교음악연구회에서 한국불교음악협회로 개편 결의	장소 : 한국불교음악협회	2003년 9월20일	제3회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장소 :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
1999년10월19일	운문 스님의 불교음악 45년 오페라 “아미타불”, “새로운 천년을 위한 불교음악제” 대강당 개최 및 “한국불교음악협회”의 창립을 선포	장소 : 세종문화회관	2004년10월13일	찬불가(합창곡집)출판 기념 및 제4회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2004년11월23일	운문스님과 법장스님대담	장소 : 총무원 총무원장집무실
2000년 1월29일	“한국불교음악협회 기금마련을 위한 음악회” 개최	장소 : 힐튼호텔	2005년 6월 1일	사)삼보불교음악 역사관 기공식 예정	장소 : 삼각산 운문사
			2005년 9월 일	제5회 전국불교음악제 개최	장소 : 경주
2000년 3월15일	정운문 스님께서 대각사 문중재산인 운문사를 협회에 기증하심	장소:대각회	2005년10월15일	국악관현악을 위한 오페라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사)삼보불교음악협회 발자취



2004년 10월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찬불가 전집 출판 기념 음악회 및 고불식 모습 .

구전으로 전해 범패의 전통적 불교음악에서 시각적인 보표와 음표를 통하여 사보화한 현대 불교음악의 효시를 1920년대로 볼 때 1950년 중반부터 불교음악이 중흥했고, 1970년대에는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합창단 조직을 하였고, 1980년대에 이르러 불교음악 포교사가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불교음악을 통하여 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불교는 불교음악을 통하여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대에 들어와 불교음악 교육을 위한 전문교재가 탄생한다.

위와 같이 시대적인 흐름을 통하여 진행되어온 불교음악의 올바른 결실을 맺기 위하여 몇몇 뜻있는 음악인들이 1970년대 말부터 불교음악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지 못해왔다. 그러던중 다시 1991년 1월 10일 이건호, 박정희, 이태호, 반영규, 정부기, 안병길 선생을 중심으로 그 뜻을 모으고 불교계 원로이셨던 반영규 선생님을 초대회장으로 모시고 제3세대 불교음악동호인회를 발족시켜 불교음악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의하고 전국불교음악제를 통하여 전국을 13개 지회와 전국연합창단으로 구성하고 1,000여곡을 집대성해 찬불가전집을 출간하고, 1,000곡을 수집하여 총2,000여 곡중에서 신도용 찬불가와 합창곡집을 편찬하고 불교음악을 통하여 불국토를 만들기 위하여 한걸음씩 걸어온 불교음악인들의 모임이 바로 사)삼보불교음악협회다.

사)삼보불교음악협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생각하여본다면 초기 제3세대 불교음악동호인회는 당시 안병길지휘자가 맡고 있었던 능인선원합창단과 경국사합창단을 중심으로 1991년 4월 20일 호암아트홀에서의 불교명상음악 작곡 발표회를 준비하였다. 이때에 질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정부기교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음악회를 주관한 능인선원합창단 단장 권능인행께서 연주회를 기획했다. 이후 이 노래들을 지구레코드사에서 테이프와 CD로 완성하여 세상에 선보인다. 이후 2004년 10월13일에는 그동안 불교음악으로 사용되어오던 1,500여곡과 잘 알려지지 않았던 500여곡을 수집하여 2000여 곡 중 600여 곡을 선별하여 찬불가 편찬위원회의 감수와 편곡을 거쳐 음악교사서로 편집되어 출판되었다. 편집과정에서 600곡 중 403곡으로 엄선하여 합창곡 1 · 2 · 3 · 4권으로 출판하려 하였으나 먼저 1 · 2 · 3권만 먼저출판하고 4권은 나중에 감수를 거쳐 출판할 예정이다.

전국 13개 지회 · 연합합창단 구성, 연내에 불교음악회관 설립

특히 이번 찬불가 합창곡 집은 모든 종단을 초월하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하나 되어 부를 수 있는 곡으로써 불교 합창단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편찬했다. 신도용과 합창용 찬불가집의 완성으로 진정한 의미의 찬불가가 집대성 되었으니 이야말로 2천만 불자의 신행생활의 신심고취와 통일성, 현대화를 통한 모든 이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포교의 한 획을 그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장이신 법장스님께서도 불교음악에 관심이 많으시어 본 협회의 충남지회 총재로 취임하셨다. 이를 축하하기위한 제4회 전국 불교음악제가 2004년 10월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사)삼보불교음악협회 주최 사)삼보불교음악협회 서울지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부설 서울불교 연합합창단, 전국불교연합합창단의 주관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과 협연으로 전국의 합창단이 하나가된 제4회 전국불교음악제를 열고 합창곡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고불식을 가졌다.

합창곡 편찬과정



합창곡이란 여러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소리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불교합창단은 제창을 합창단이 부르면 합창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다.

불교음악이 시작되지도 벌써 1세기가 눈앞에 와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우리 불교합창단도 1973년부터 합창단이 조직되어져 왔는데 지금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세 번 변화하는 동안 찬불가는 그 다지 큰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고민하던 중 사)삼보불교음악협회의 이사진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합창곡집의 출판을 준비하게 되었다.

많은 합창곡집이 출간되었었으나 이번의 찬불가의 특징은 각

수평 · 수직화음 합성 편집, 철저한 감수

자의 선율을 각자의 기둥으로 표시하였고 수평적화성과 수직적인화성을 고려하고 두 가지를 합성하여 편집 되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음악계의 감수는 물론이고 불교음악계 외의 분들도 감수 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미래에는 세계화를 위하여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불교합창단의 전국적인 교재의 탄생은 불교음악의 밝은 미래를 여는 것이다.

합창곡은 종단을 초월하여 제작되었고 전국의 지도자들의 일치감에서 편찬되어졌으며 합창단의 염원으로 출간 되어졌다는 것이 이번 합창곡의 출간 된 의의라고 생각한다.

일러두기

이번 찬불가 합창곡집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우리 민족과 불교 정통성에 부합되는 곡의 선정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그동안 수립된 2000여 곡 중에서 403곡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선곡 하였다. 200여 곡은 제4권으로 출간 예정이다.

■ 선별에 제한된 곡

1) 내용에 있어서 불교적 정서에 적합하지 못한 곡이나 독창곡. 2) 외국곡을 모방하여 표절시비가 있는 곡. 3) 동요 등의 너무 단순한 곡이나 사가 등과 같은 행사 위주의 곡. 4) 음역이 너무 낮고, 곡의 길이가 짧거나 너무 긴 곡.

■ 선별에 우선된 곡

1) 범불교적으로 된 합창곡, 즉 종단을 초월한 내용으로 작곡된 곡. 2) 합창단이 부를 수 있고 불교 음악으로 품위가 있는 곡.
3) 현재 각 합창단에서 많이 불려지고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곡. 4) 불교의 가르침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곡.

■ 편집방향

1) 내용 찾기의 편의를 위해 곡의 순번을 상단 좌우에 쓰고 하단 좌우에는 쪽수를 썼다.
2) 곡의 빠르기는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필요한 곡에는 메트로놈 숫자를 사용하였다.
3) 찬불가의 분류는 불교의 사상적, 신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내용만으로 분류하 고 용도별(법회식순)로는 분류하지 않았다.
4) 가사는 가능하면 현행 맞춤법에 따라 수정 하였다.
위와 같은 기본 방침을 준수하여 합창단이 즐겁게 음성공양을 할 수 있는 곡을 선곡하고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신앙의 조직화와 실용성을 기하였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4>



부처님의 새해맞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365일이 문을 여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작심삼일을 염려하여 지레 새로운 계획 세우는 일을 처음부터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아주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삼일 이상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겠거든 삼일마다 계획을 세우라고 말이지요.

새해를 맞이하자면 자연 '시간'이 대체 뭘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생각하다보면 아무래도 '시작'이나 '끝'이라는 개념까지도 함께 꼬리를 물고 따라 나옵니다.

인도인들에게 있어 시작을 의미하는 말은 아디(?di)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잡다[取]'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디서부터 잡느냐에 따라 그때부터 시간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한정된 사유, 치우친 분별심을 떠나서 눈을 크게 뜨고 삶을 바라본다면 애초부터 시작도 끝도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저 날마다 좋은 날이고, 여여하게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은 묵묵히 있으면 될 것이고, 허물을 발견하였다면 그 일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던지셨고 비구들은 다들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때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사리불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비구들은 여래의 몸과 입과 뜻에서 허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오늘까지 모든 이들을 제도하시고(중략)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의 이 말로 부처님은 법랍 한 살을 더 얻게 되신 것입니다. 뒤이어 사리불 존자도 부처님과 똑같은 질문을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래께 제 자신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저는 여래와 비구중에게 허물이 없었습니까?"

그러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사리불은 몸과 입과 뜻에 악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그대의 지혜는 아무도 따라갈 이가 없으며 욕심이 적고 (중략) 심정이 조용하여 사납지 않아서 위없는 법바퀴를 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리불은 부처님에게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모인 5백 명의 수행자들에 관해서도 여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자기 스스로와 타인에게 있어 티끌만큼의 허물도 없음을 확인 받은 뒤에 나이 한 살씩을 더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인 이들 중 최고 어른이 먼저 자기 허물 묻고 타인에게 청정함 인정받은 뒤 서로 덕담 나눠

그렇게 본다면 묵은해니, 새해니 하며 인사말을 건네는 우리의 깜냥이 안쓰럽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이왕 사람이 '잡는' 데에서 시간이 시작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시간은 당사자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사람마다 무게가 다를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새해맞이는 제자들과 함께 안거(安居) 석 달 마친 뒤에 나이 한 살 씩 더 잡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수세(受歲)라고 하는데 안거가 끝나는 7월 보름날에 거행되며 이 때 받는 나이가 바로 법랍인 것입니다.

<증일아함경>(제24권 선취품)에는 새해맞이 행사에 관한 당시의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7월 보름날 밤에 부처님은 아난에게 모든 수행자들을 불러 모으도록 명하셨습니다.

"아난아, 어서 건추를 쳐라. 오늘은 수세를 하는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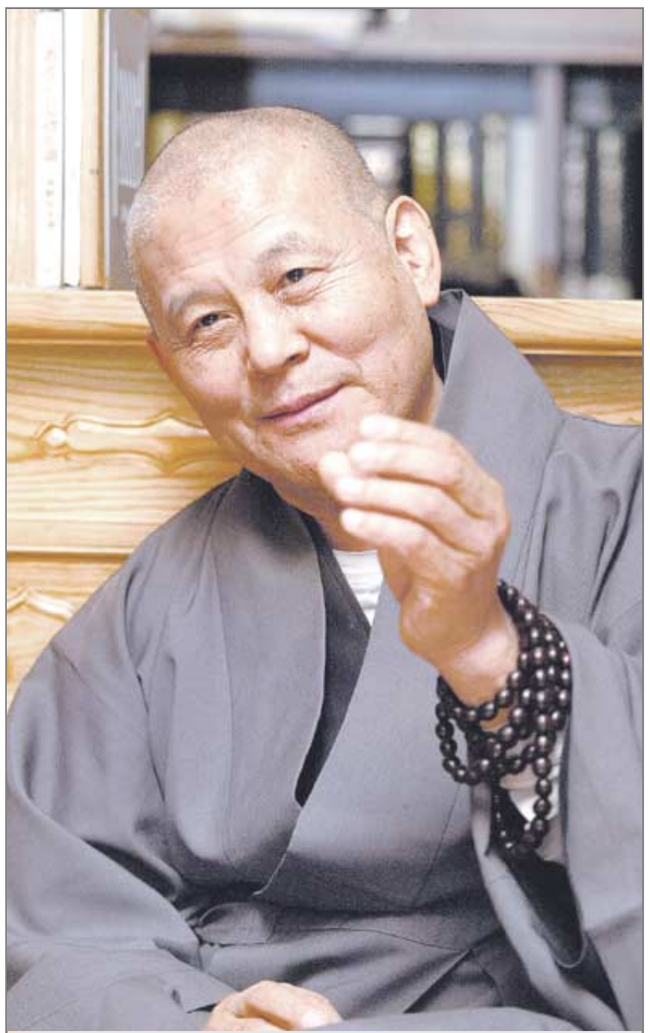
수행자들이 모여 들자 부처님은 자리에 앉기를 권하신 뒤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나는 이제 수세를 하려 한다. 말해 보아라. 나는 대중에게 허물이 없는가. 또 몸과 입과 뜻으로 범한 일은 없는가?"

서로 티 없이 맑은지를 돌아보는 일은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사리불이 서로에게 건네는 덕담을 보자면, 죄를 짓지 않은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웃에게 선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간 것을 중요시했음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나이를 쌓아간다면 훗날 거친 윤회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은 묵직한 자신의 연륜이 자랑스러워질 것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계율은 지혜의 어머니



지상 백고좌

지관 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큰스님께서는 연구원들의 원고 교정과 사전 집필 작업 등으로 일 분 일 초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황을 알려주십시오.

-글쎄, 나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게 없습니다. 4~50여년전 해인사 강주시절이나, 주지소임 볼 때나, 동국대에 있을 때나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삼장교해(三藏敎海)와 선배들이 남겨 놓으신 한국불교 일천칠백년 자료들이 늘 나의 의미있는 작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해주고 갈 일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아까워요.

나는 한가한 청복(淸福)과는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원에 출근해 외눈박이로 정진하는 우리 연구원들의 작업을 살펴보는 등 원고를 정리하고, 저녁이면 경국사로 돌아와 여러 시간 작업합니다. 사전작업은 공중(公衆)에게 언약한 내 평생의 원력이니, 부지런히 하여 대중에게 회향하여야 하고, 일천년의 보물창고, 한국역사속에 겹겹이 쌓여있는 불교사의 지층들을 풀어놓을 일 등에 마음이 바쁩니다. 연구원에서는 한 열시간, 경국사로 돌아와서는 일곱에서 여덟 시간 정도 작업합니다.

절대빈곤층에 관심 기울여야

▲경제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힘든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부처님께 구한다면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난과 고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50~60년 대를 생각하면 그래도 오늘이 너무 풍요롭지요. 문제는 절대빈곤층 등 생사의 안전망을 벗어난 곳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 문제입니다. 안전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누고 보살펴야 합니다. 나라의 정치나 정책도 전향적으로 이곳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한편 근면하고 정직한 국민의 의식과 행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되게 산다는 것에는 반드시 인과가 있어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들이 쌓여 부패하고 있거나, 게으르면서 늘 남의 탓하는 것이나 모두 불안과 가난의 인과응보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아함경>에서 사회의 안전망을 지키는 재가자(在家者)의 3대 강령으로 보시(布施)와 지계(持戒) 그리고 생천(生天)

지관 스님은 1932년 경북 영일군에서 태어난 지관 스님은 1947년 자은 스님을 은사로 합천 해인사에서 득도했다. 1955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으며, 1970년부터 1972년까지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다. 또 스님은 1960년부터 70년까지 해인강원 강주로 있으면서 후학을 양성했다. 이후 72년부터 74년까지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77년 동국대 정각원장, 80년 동국대 불교대학장, 1984년 동국대 교육대학원장을 거쳐 86년에는 제 11대 총장을 지냈다.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로 동국대 이사, 조계종 원로의원과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을 맡고 있다. 스님의 저서로는 <가산불교대사림 총 15권>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 <교감역주> <역대 고승비문 총 6권> 등 다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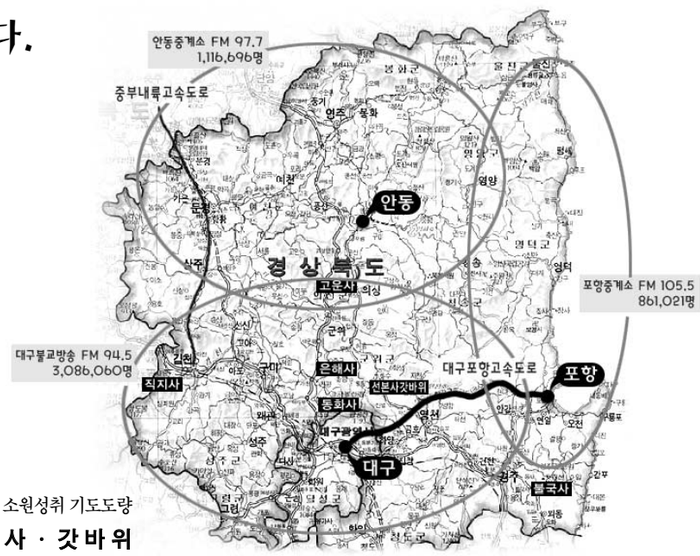
대구 · 포항 고속도로와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사찰 참배가 쉬워졌습니다

팔공산 은해사 · 갓바위 참배길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대구불교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 053)427-5114
www.dgbbs.co.kr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펴는 BBS 대구불교방송

한가지 소원성취 기도도량 선본사 · 갓바위

을 강조하셨지요. 서로 나누고, 근면하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복된 세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은 일상 생활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내심이 부족해 서로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화를 내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순간적인 화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나지 않는 세상, 불행이 없는 행복한 세상, 소유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 모두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불법의 가르침을 엄격히 들여다보면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법이 근본입니다. 영원히 화내지 않고, 행복하고, 소유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탐욕(소유)과 진심(불화)과 치심(우매함)의 삼독이 세간의 평상심이기 때문이지요. 삼독 그 밖의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뜨거운 불 속을 잘 견디어 지나가는 길을 가르쳤지요!

계, 정, 혜 삼학(三學)은 불 속을 지나가는 견고한 갑옷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버릴 것과 지킬 것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공력을 키우기 위해 삼매의 힘을 기르는 등 남다른 시간을 투자해 수행해야 합니다. 불교는 수행의 기술을 전승하는 것을 본분으로 하기에, 분별이나 지식으로 들어가는 학문과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수승한 가르침이며 또한 귀중한 전통입니다. 모두들 유행에 빠지지 말고 선지식을 찾아 금강석같이 수행하세요!

탐·진·치 삼독이 세간의 평상심

▲재가자들의 수행열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선 수행' 추앙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할때 유의해야 할 점을 짚어 주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선수행을 맹목적인 것으로 보지만, 우리 천년의 수행전통을 잘 배워 계승하려 하기보다 이런저런 곳에 쉬운 방편을 찾기도 하네요. 남방 위빠사나의 수행열기도 만만치 않지만 지도편차가 심하여 걱정입니다.

법을 배워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엄격한 일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반드시 선지식과 그 선지식에 의해 전승되고 검증된 고전들이 있습니다. 1000년에 걸친 삼장의 주석과 대장경의 유통에는 이러한 공증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인되지 않은 수행서들이 대중지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수련되고 성숙한 법문과 지도 등 수행풍토 진작에 주의를 귀울여야할 일이 많습니다. 그나마 교단 내외에서 공적인 장을 열어 대중토론도 하고 서로 연마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런 데에 책임을 느껴 고전수행논서들을 선정하여 역주작업에 들어간지 몇 년이 됩니다. 우선, 위빠사나 수행논서 중 고전에 속하는 <빠띠삼비다막가역주>, 선수행의 대중규범서 <선원청규역주>, 한국간화선의 가장 오래된 법문 <진각국사어록역주> 등을 꾸준히 작업해서 출간하는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생사(生死)를 거는 자세로 탁마하고 몰두해야 수행이라 할 수 있지요.

불자들 책 안 읽는 풍토 염려돼



사전편찬과 강의 등 불교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여념이 없는 지관 스님.

▲높은 수행열기에 비해 불자들의 '책 안 읽는 풍토'는 여전해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자들이 꼭 읽어봐야 할 경전이나 불서를 권해 주십시오. 또 흔히 경전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경전을 읽거나 공부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요.

-경전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어렵다는 경계가 문제지요. 김을 굽거나 김치 담그는 일이 시어머니는 그냥 놀면서 하는 일인데, 밖에 일하는 며느리는 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쫄 맞춰 벽돌 쌓는 일이 옆집 김씨에게는 즐겁고 쉬운 일인데, 글만 쓰는 선비에겐 신기하고 어려운 일이듯이 불자가 본분이다 하여 전공을 하려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저 세간에서 보통사람들이 즐기는 일 다하고 나서 하려니 어려운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간 자기도 모르게 즐겁고 쉬웠던 관습들을 여지없이 포기해야 합니다.

한가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욕망하는 99가지 일들을 버리세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만하 스님과 성월 스님, 경엄 스님, 자운 스님까지 이어져 온 범어사 율맥을 계승하고 계신 큰스님께서는 지난해 8월 해인사에서 전통 율맥을 전하는 전계식도 여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계율'을 '구습(舊習)'으로 치부하거나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재가를 막론하고 현대인들에게 계율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계와 율은 선정과 지혜를 출생시키는 불모(佛母)입니다. 수행을 앞서 말했지만 계율이 근본이지요. 관습이라든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과 행위들은 모두 숙업(宿業)과 나쁜 습관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우선 계는 개인적으로는 지범지계(止犯持戒)입니다. 악습이나 무지한 행업을 그치고, 새로운 습관과 행동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업(共業)에 기초해 규범을 수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계율입니다. 개인과 개인, 인간과 자연, 스승과 제자, 수행자와 단월의 관계 등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번뇌들을 통찰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공동의 규범입니다.

한국불교는 통일신라시대 대승불교의 폭격이나 다름없는 불은(佛恩)을 입었습니다. 원효 스님의 저술만 해도 <화엄종요> <법화종요> <무량수경종요> <이장의> 특히 대승규범서인 <범망경지범요기> 등 대승근본경전이 모두 주석되었습니다. 우리민족은 일천년이나 이전에 빛나는 수행교과서를 수지한 셈이지요. 보물이 있으나 갈고 닦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식인들도 서양도덕책 베끼기에 바쁘고, 승가도 제소리하기에 바빠 태산같은 지혜가 닫혀 있어요. 가르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애써 배우고 연구하지 않을 뿐입니다.

생사 거는 자세로 수행을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핸드폰의 일반화, KTX 등 속도와 변화를 추구하는 흐름이 거셉니다. 이러한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낙오자'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속도만능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런지요?

-요즘 느림의 철학으로 대안을 삼기도 하는데, 의식의 흐름은 세간의 어떤 속도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념(一念)이 만년(萬年)이요 만년이 일념이라 하였으며,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이라 하였습니다. 불자라면 자신감과 의연함을 갖고 현상을 바라보세요, 아무리 빨라도 '풀잎에 이슬'입니다. 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되겠지요.

▲스님께서는 지난 50여년 간 '학승(學僧)'으로서 학문 정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배움의 길을 가는 후학들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주십시오.

-출가하여 스님이 된다는 것은 공중(公衆)에게 사사로운 나를 버리고 공공의 정신과 요익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한 큰 사건입니다. 즉 공중에게 의무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자존(自存)과 의무(義務)를 지키기 위한 남다른 노력정진이 필요합니다. 잡기나 잡사를 거두절미하고 삼장(三藏)과 삼학(三學)에 전념하여 푸른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한 인생(人生)·복전(福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인연을 베푸신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의 은혜를 갚아야죠.

▲새해가 되어 나이를 한살씩 먹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듦'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나이는 세월의 다른 이름일 뿐 우리의 실상과 관계없습니다. 본분사(本分事)에서 바라보면 나이는 드는 것도 느는 것도 아니지요. 바람이 지나가는 긴 길의 시작과 끝을 한번에 바라볼 수 있듯이, 마음에는 동서(東西)나 고금(古今)이 없습니다.

천진(天眞)에는 오직 안(內)과 밖(外)의 경계가 모두 사라지고, 광활하여 중중무진(重重無盡)한 광명(光明)의 법계(法界)만이 현현할 뿐입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기자



지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설송 스님 (上)

토함산(吐含山)의 새벽을 깨우는 도량석 목탁소리가 석굴암 경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마하수리 수수리사바하…

청아한 목소리였다. 아무런 티끌도 묻어있지 않은 맑은 음색이었다. 그저 맑고 청아한 목소리라는 표현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그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일정한 음조(音調)로 이어지는 그의 독경은 새벽 냉기와 어울려 서늘한 새벽 산사의 공기와 어우러져 잠든 만물을 깨어나게 했다.

노행자(老行者)라 불리던 설송(雪松) 스님. 입산한 지 6년인가 7년이 지났는데도 수계를 하지 않아 그렇게 노행자 또는 늙은 행자로 불려지다 여러 스님들의 설득에 마지못해 계를 받고 '설송'이란 법명을 받은 터였다. 그러나 스님의 일상은 계를 받기 전이나 후나 다를 게 없었다.



그림 · 문병성

새벽 도량석을 시작으로 공양간 허드렛일, 마당쓸기, 나무하기 등 그의 일상은 한결같았다. 맑은 목청으로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하고 산중의 잠든 왼갖 사물을 흔들어 깨우던 노행자 설송 스님. 스님은 지금 어디서 이 겨울을 맞고 있을까.

떨어진 나뭇잎들이 뜨락을 휩쓸고 다니는 이 스산한 계절에 그는 지금 어디서 망연히 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까. 알 수 없다. 허나 짐작컨대 그는 여전히 일의일발(一衣一鉢)로 전국의 심산고사(深山古寺)를 떠돌며 때묻지 않은 미소를 머금은 채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가끔씩 새벽 도량석 목탁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를 떠올리곤 했다. 목소리처럼 눈도 깊고 그윽하게 맑은 노행자, 그를 떠올리며 알 수 없는 향수에 젖어들곤 했다. 육조 혜능을 좋아하고 그의 행적을 기리던 설송 스님. 그도 혜능처럼 죽어라 하고 방아만 찧다가 어느 날 문득 해탈의 문턱에 이르고자 했음인가. 그리하여 혜능처럼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강호의 어느 골짜기에 연기처럼 숨어 버리고자 했음인가.

삐쩍 마른 홀쩍 큰 키의 그가 납의를 걸치고 휘적휘적 걸어가는 뒷모습이 망막을 스친다. 잠뒨 행자(行者)의 길을 가고자 했던 그는, 그 길을 가고자 염원하고 갈망했던 그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절에 편안히 안주(安住)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이 불안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승가가 가야할 궁극의 가시밭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음을 믿는다. 진정한 사표로서 숱한 유혹의 손짓에 휘들리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임을 믿는다. 평상심이 곧 도라고 하지 않았는가.

서두르지 않고 소걸음처럼 천천히 묵묵히 한눈 팔지 않고 걸어가는 자야말로 피안에 이를 수 있다. 행주자와(行住座臥)에 흐트러짐이 없는 평상심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자만이 피안에 이를 수 있다. 부모미생전의 면목, 무상의 보리를 증득(證得)할 수가 있다. 허나 말이 쉽지 어디 그게 뜻대로 되는가.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고, 조금 편하면 더욱더 편해지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다.

7년간 한결같이 행자생활
일의일발로 전국 돌며 정진

노행자 설송 스님. 마치 그의 법명 그대로 설송(雪松)처럼 꿋꿋하길 기원한다. 엄동설한에 가장 먼저 일어나 찬물에 세수하고 목탁 두드리며 온 도량 돌던, 온 산중 생령들을 흔들어 깨우던 맑은 목소리의 설송 스님이 그리워지는 새벽이다.

그가 무엇을 그리 가진 게 있으랴만 늘 무엇인가를 남에게 주고싶어 하던,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보시행이 새삼 그리워지는 새벽에 일어나 목탁 소리 울리는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겨울 찬 달이 서천에 걸려 있다. 눈푸른 납자들이 머물고 있는, 제방의 선원 뜰에도, 거기 하늘에도 찬 달이 서천에 걸려 있으리라.

노행자 설송 스님, 그가 조금은 그리워진다. 날씨가 추워지는 이 새벽에… 노행자 설송 스님께서도 어느 선원을 향해 떠날 채비를 하고 있으신지, 어느 비어 있는 토굴을 찾아가 겨울내 지필 땔나무를 하고나 있으신지, 합장하고 합장한다. 땔나무는 저번에 살다간 어느 스님이 다음 오실 스님을 위해 해놓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노행자 설송 스님은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의 한 생애가 저문 들녘에 저 혼자 피어오르는 저녁연기처럼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다. 노행자 설송 스님의 행보가 이 시절의 어느 변방을 향해 아무런 지향점도 없이 가고 있다. 가고 있으므로, 저 혼자 피어오르는 저녁연기처럼 그저 그냥 고즈넉할 따름이다.

■ 봉화 청량사 주지





'닭의 꿈' 전에 나오는 판화로 만든 닭(김종환 作).



씽크씽크 어린이 미술관 '닭의 꿈' 전에 전시된 어린이 작품.



천과 의자로 만든 닭(방혜영 作). 실물 크기의 '닭 의자'가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겨울방학이 심심해? 미술관에서 놀아봐!

서울시내 미술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다채

"엄마 눈썰매장 가요." "아빠 놀이공원 가요."

겨울방학이라 집에 있는 아들 동석이(초등학교 2학년)의 성화에 김복현(중랑구 면목동 · 35)씨는 고민에 빠졌다.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어디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서다.

김씨처럼 고민하는 부모에게 미술관들이 어린이 창의력 개발은 물론 재미까지 갖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미술관 행사라 고루하지 않을까, 걱정은 접어둬도 좋다. 단, 이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전화 예매는 필수다.

닭띠 새해를 맞아 씽크씽크 미술관(관장 이원구)은 1월 7일부터 '닭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날지는 못하지만 날개는 가지고 있는 닭이 하늘을 향해 날려 보내는 꿈을 어린이들에게 상상하게 만들고 그것을 직접 작품으로 만들어보는 것이다. 후박 나뭇잎, 구멍이 뚫린 계란판, 대나무와 비닐로 만든 방패연, 수제 닥종이 등 4가지 소품 테마 중 하나를 선택해 아이가 상상한대로 직접 꾸미면 된다.

인사아트센터(관장 이호재)에서는 5일부터 종이를 집중 테마로 한 특별전시회 '내 친구 종이와 만나다'를 열고 어린이 체험마당도 진행하고 있다. 기성작가 55명의 회화 공예 등 다양한 종이예술작품을 구경한 어린이들이 준비된 스토리 북을 보면서 전시관람 에티켓을 배우고 본격적인 종이체험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미술관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 여행의 꿈을 가진 어린이들을 위해 삼성어린이박물관(관장 홍라희)이 마련한 월별 테마전시 '띵호와 중국(1월)', '오하요 일본(2월)'도 각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아이의 감각을 자극해 상상력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오감 체험전'(코엑스), 아이들이 작가가 된 듯한 기분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어린이 아틀리에(로댕갤러리)' 등의 프로그램도 인기 만점이다.

이밖에 시내 주요 미술관, 서울 도심 내 공원들이 준비한 만들기 체험 학습 프로그램도 있으니 주위를 세심하게 둘러보면 아이들 방학,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곳이 많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아이와 부모 함께 하는 미술 체험

프로그램이름	언 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예약 및 문의
닭의 꿈	1월 7일~3월 13일	씽크씽크 어린이미술관	어린이들이 상상하는대로 닭의 꿈을 4개의 테마중 하나를 선택해 표현	1만 ~1만 5천원	(02)562-9611, www.thinkthink.net
자! 만들자 한지	1월 5일~2월 6일	인사아트센터	한지로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 꿈의 상상력, 닥종이 만들기	1만 5천원	(02)736-1020, www.ganaart.com
오감체험전	1월 27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	직접체험하고 '오감'을 자극받아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운다	1만원	(02)580-1629, 1631, www.오감.com
띵호아 중국	1월 31일까지	삼성어린이박물관	중국 소설, 그림, 요리 등 문화를 접하며 이야기를 만들고 전통 문화를 배워본다	행사별로 다양	(02)2143-3600, www.samsungkids.org
오하요 일본	2월 28일까지	삼성어린이박물관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계획	상동	상동
어린이 아틀리에	2월 6일까지	로댕갤러리	전시감상 후 고무찰흙으로 조각상 만들기 전시장에서 직접 철사 등을 사용해 만들어 볼 수도 있음	4000원	(02)2259-7783, www.rodingallery.org
얘들아, 방학엔 미술관에서 놀까	2월 24일까지	가나아트센터	전시감상 후 감상화를 그린다	1만 5천원	(02)379-4864, www.ganaart.com
샤크+슈렉 전	2월 6일까지	제로원 디자인센터	아이와 함께 가이드북을 들고 직접 설명해주면서 감상, 애니메이션 주인공 가면 만들기 등의 활동 가능	1만원	(02)413-6564, www.zeronetcenter.com
겨울생태학교	방학기간 중	길동자연생태공원	죽은 나뭇가지로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무료	(02)472-2770, parks.seoul.go.kr/kildong
전통놀이체험교실	매달	보라매공원	바람개비, 팽이 등을 직접 만들어 전통 놀이를 즐긴다	무료	(02)833-3461, parks.seoul.go.kr/boramae

법련사, 일요일마다 어린이 문화 · 환경교실



어린이들이 지난해 11월 법련사 문화교실현장을 통해 철새 도래지를 탐방하는 모습.

법련사(주지 보경)는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일요일마다 '겨울방학 문화 · 환경교실'을 열고 아이들에게 마음공부 프로그램과 신나는 놀이문화, 체험 학습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그동안 절에 가서 '절'만 했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절도 놀이 학습터가 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눈의 감각으로 확인하는 자연과 세상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만물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거꾸로 보는 문화와 생태', 부모님과 함께 하는 '마음의 행복찾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몸에 좋은 재료로 직접 만들어보는 '사찰 어린이 간식 만들기', '단청 그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 가능하다. (02)733-5367

김강진 기자

극장가



쿵푸 허슬 / 액션 / 101분
개봉예정일: 1월 13일
감독: 주성치
출연: 주성치, 황성의 등
등급: 15세 이상
쿵푸 고수들의 등장으로 위기에 몰린 도끼파는 떠돌이 킬러를 고용하는 한편 싱(주성치 분)을 이용, 자신의 적수를 찾지 못해 살짝 돌아버린 전설 속의 쿵푸 달인 '아수'를 빼돌려 돼지촌을 접수할 음모를 꾸민다. 하지만 도끼파가 미쳐 계산하지 못한 최고의 고수는 바로 그들 내부에 있었음이 밝혀지는데….



깃 / 드라마 / 71분
개봉예정일: 1월 14일
감독: 송일곤
출연: 장현성, 이소연 등
등급: 15세 이상
사랑하는 여인과 우도를 여행했던 현성. 두 사람은 10년 후가 되는 2004년 9월 5일 이곳에서 재회하기로 약속하며 잠시 이별을 선택한다. 현성은 추억이 깃든 우도를 다시 찾고, 10년 전의 '그녀'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한다. 한편, 폭풍우가 몰아치는 9월 5일 현성이 머물고 있는 우도의 한 모텔로 피아노가 배달되는데….



월드 오브 투모로우 / SF / 106분
개봉예정일: 1월 13일
감독: 케리 콘란
출연: 기네스 팰트로, 안젤리나 졸리 등
등급: 연소자 관람가
1939년 정체 불명의 로봇 습격에 전세계는 최악의 위기. 로봇들의 공격은 끊이지 않고, 프랭키(안젤리나 졸리 분)의 전략으로 폴리(기네스 팰트로 분)와 스카이 캡틴은 로봇들의 본거지 잠입에 성공한다. 마침내 로봇의 실체와 배후의 정체가 드러나지만 , 인류 멸망을 위한 음모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는데….

게시판

일반인 위한 불교교양강좌 불광불교대학은 일반인과 불자가족을 대상으로 1월 14일~2월 4일 제 42기 불교교양강좌를 마련한다. (02)471-2551

불교어학연수과정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에서는 불자들에게 범어, 티베트어, 빨리어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초급~중급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다. (02)765-9602~3

천수만 철새탐조 국토문화순례단체 터사랑에서는 1월 16일 겨울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천수만 일대와 김좌진 장군 생가터를 방문한다. (02)725-1284



청소년들의 따뜻한 방학 보내기 경기도 성남 한솔복지관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청소년'으로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과 어려운 이웃을 연결한다. 어르신 생신잔치(사진), 지역사회캠페인, 장애체험 등의 활동이 준비되어있다. (031)716-4215

장애학생 바깥나들이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썰매타기, 시장보기, 영화관람 등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레크리에이션과 1일 캠프도 진행된다. 선착순 18명 모집. (031)431-9114

내집을 내손으로 사단법인 한옥문화원은 1월 15일부터 2월까지 매주 토요일,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내집 짓기' 강좌를 개설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집짓기에 필요한 기본 지식부터 강의한다. 선착순 35명. (02)741-7441

20면 상식 퍼즐 정답

벽	계	수		찰		
사		계	수	나	무	
초			라		가	
복	희				당	대
	랍		혈			명
	어	두	육	미		천
		보		간	척	지

전시

소박 · 간결한 한국의 美

과천 현대미술관 2월 13일까지 장욱진展



장욱진의 대표작 '까치(1958作)'. 제공=국립현대미술관

간결하고 단순한 필치로 한국인의 정서를 잘 살린 작가로 평가받는 화가 故 장욱진(1917~1990)의 작품들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제 3전시실에서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장욱진의 전 · 후기 작품 22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다. 대표작인 '까치(1958)' '마을(1956)' '문방도(1961)' 등은 모두 처음 대면하면 아이의 그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박하지만 특유의 향토적 서정으로 깊이 있게 관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어린시절부터 회화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도쿄 제국미술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한 장욱진은 광복후에 김환기, 유영국, 이규상 등과 '신사실파(新寫實派)' 동인으로 활동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보였다. 만공 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에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장욱진. 짧은 기간동안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기르기도 했으나 1960년에 사직한 이후에는 작품 활동에만 몰두한 채 '전업작가'로 생을 마감했다. 전시는 2월 13까지 계속된다. (02)2188-6000

김강진 기자

불교만화공모전 열린다

2월말 까지 접수 … 2000만원 상금 · 상품 수여



제4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 포스터.

전국불교만화공모전 그 네 번째 장이 열렸다.

영남불교대학 불교만화연구소(소장 금해)가 2월 28일까지 불교적 소재가 담긴 모든 장르의 만화를 공모한다. 불교만화 홈페이지(www.okbuddha.com) 전국불교공모전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자기소개서와 작품을 함께 우편접수하면 된다.

시상 분야는 애니메이션, 인쇄만화, 캐릭터,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문화관광부장관상(상금 200만원)외 각 불교단체장상 등 2,0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등이 수여된다.

심사는 현 만화 작가 애니메이션 감독 불교학 관련 교수 등이 맡아 전체적인 완성도와 불교사상의 이해, 스토리를 우선으로 노력과 창의력, 독창성, 만화 기본 구성과 데생 등을 심사한다. (02) 3392-0334

강지연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심장안정 숯목걸이



한국목탄연구소가 효도상품으로 호흡안정과 심장에 좋은 숯목걸이를 선보였다. 숯은 기 에너지를 보충하고 심장에 닿으면 혈액의 순환을 돕는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효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숯목걸이의 문양은 卍, ♡, ○의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 숯이 가슴 정중간에 닿도록 목걸이 끈을 조정해서 착용해야 효과가 크다.

가격 3만원. (02)732-152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0일 14:05 음악의 마을
11일 17:10 무명을 밝히고
12일 18:15 뉴스 파노라마
13일 10:05 BBS신행상담실
14일 20: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15일 12:10 황승환의 뮤직펀치
16일 07:40 참선이야기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0일 07:05 명상음악산책
11일 17:30 특선다큐멘터리
12일 15:10 열린마당
13일 12:00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
14일 20:30 영어법문 디스커버링 부디즘
15일 16:40 부처님경전이야기
16일 19:40 역사드라마 '제왕의 길'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정목 스님의 마음으로 듣는 음악(1월 14일 저녁 10:05~10:55)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정목 스님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상 시 감상을 통해 삶의 힘겨움을 잠시 놓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1월 13일 저녁 10:10~11:10) 이번 주에는 교육 현장에서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온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 스님이 바라본 우리 불교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우수상(현대불교신문사장상)

어머니와 동자승

박순서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이 세상 어디에 고통 없는 삶이 있을까. 부석사 돌계단에는 내 눈물이 고여 있다. 지나간 날을 뒤돌아보면 안개 드리워진 숲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내 자신이 있다. 인간 세상에 고통이 없다면 부처님은 안 계셨으리라.

나는 자신에게 물어 본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간사한 인간이었는가를….

그러나 지금은 나날이 즐겁다. 내 가슴속에 부처님이 계시기에 언제나 즐거움만 넘친다. 법당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저절로 흐르는 눈물, 나 같은 미천한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여삐 여겨주신 부처님 전에 이 마음을 드린다.

마음이 더 없는 행복감과 평온함으로 가득찬다. 내가 진실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이 세상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리라.

나는 어릴 적에 염주를 목에 걸고 다녔다. 지금은 초등학교라 불리는 국민학교 3학년 무렵부터 염주를 목에 걸고 다녔는데, 그때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자랑 삼아 걸고 다녔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치고 놀다가 어쩔 때는 염주 끈이 끊어져 알맹이를 잃어버린 적도 몇 번이나 있었다.

어머니 따라 처음 간 부석사서 아홉살 된 동자승 만나

어머니는 예전부터 부석사에 다니셨는데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그 무렵부터이다.

절에 가실 때마다 어머니는 밤새 무엇을 하시는지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이고는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절에 갈 준비로 분주하셨다. "부처님한테 갈 때는 몸도 깨끗해야 하고 마음도 청결해야 한다." 어머니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은 팔순이 가까운 연세이신 어머니가 절에 다니기 시작한지는 오래 전부터라고 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하였다.

언젠가 나는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다가 이틀 밤을 절에서 보낸 적이 있다. 사월 초파일을 하루 앞두고 어머니는 광목 자루에 쌀 몇 되를 넣고 나를 앞세워 부석사로 갔다. 하루 한번 다니는 버스를 타고 부석에 내려서 절까지 3킬로 정도 걸어갔다. 계곡 오솔길 양쪽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활짝 웃음을 터트리고 반가워라 손을 흔들었고, 어머니는 무엇이 즐거운지 얼굴에 웃음이 가득 했다. 한참을 걸어 절에 도착 했을 때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처음 가보는 절, 나에겐 너무나 신기한 모습이었다. 어머니를 따라 법당으로 들어섰을 때 덜컹 겁이 났다.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부처님 앞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부처님, 저는 평소 잘못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집에 어떤 스님이 오셨는데 목탁을 두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고 그 스님을 놀리다가 어머니한테 야단맞았습니다. 정말 잘못 했습니다. 부처님…' 나는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의 모습을 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절을 하는 동안 눈시울이 젖어 들었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도 매번 자세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아서 절을 하고 있는 걸까? 어머니는 무서움도 없고, 지은 죄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얼마 후 어머니는 부처님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방금 울었죠?" 어머니는 말없이 빙긋 웃기만 하셨다. 법당을 나와 잔디밭에 앉아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초여름 밤의 향기를 마셨다.

산사의 밤은 점점 깊어 가고 어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내가 처음 이 절에 왔을 때 너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단다. 돌이켜보면 까마득한 옛날 일이지. 네 아버지를 만나서 시집 온 이후 줄곧 이곳을 다니다가, 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 나는 부처님께 의지하여 살아왔다. 그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 지금 생각하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잡아 준 것도 부처님의 보살핌이었지."



그림 · 문병성

어머니는 오랫동안 절 다니신지라 절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절 여기저기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저런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다. 그날 밤 나는 그 곳에서 동자승을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한테서 늘 말로만 듣던 동자승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자, 왠지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졌다.

"동자승은 여기에 있으면 학교는 어디 다녀요? 그리고 머리 빡빡 깎고 창피해서 어떻게 학교에 다녀요?" 내가 그렇게 묻자 어머니는 "쉿!" 하면서 조용하라고 하셨다. 동자승은 아홉 살이라 했는데, 어머니를 보자, "보살님!" 하면서 응석 부리듯 다가왔다. 어머니는 동자승을 껴안고 한참 얼굴을 비볐다. "보살님,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신 염주는 어떻게 되었어요?" "네, 여기 있지요. 자…" 어머니는 가방에서 염주를 꺼내 동자승의 목에 걸어 주었다. "아이고, 우리 스님. 예쁘기도 해라."

동자승의 손을 어루만지는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글썽글썽 했다. '어머니는 절에 다니면서 눈물만 늘었는가 봐. 왜 저렇게 잘 우실까?'

산사의 밤은 깊어 가고 나는 커다란 방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잠을 자야 했다.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방 한쪽에서 종이에 무엇인가 글을 쓰고 있었다. 삐뚤삐뚤 써 내려간 글씨를 보며, "어머니, 제가 써 드릴게요." 하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한사코 자신이 쓰겠다며 나에게 얼른 잠이나 자라고 하셨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아직 어둠은 걷히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동자승을 옆에 앉히고 무어라 이야기를 하더니 가방 속에서 옷 한 벌을 꺼냈다. 동자스님의 옷이었다.

"우리 스님 드리려고, 내가 손수 만든 건데. 자, 입어 봅시다. 스님."

"아이고, 스님 참말로 근사하네… 이 보살님이 항상 '동자, 동자' 하더니만 스님 옷 한 벌 해 왔네. 동자스님은 참말로 좋기도 하겠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어머니에 감사한다고 기뻐하며 많이도 울었단다."

"잠투정 하는 코흘리개 스님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발원했지"

한테 인사를 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너무나 다른 세상 구경을 한 것 같았다.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그날은 몇 번이나 보았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가 항상 밝게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였다. 날이 밝자 나는 동자승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 법당으로 갔다. 촛불은 낮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태우고 있었다. 부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법당에 고요가 흘렀다.

'부처님,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거 어젯밤에 다 말씀 드렸는데, 이제 저를 용서 하신거죠?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부처님께 진심으로 잘못을 빌면 부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기도를 했다.

얼마가 지났을까, 어머니는 몇몇 사람들과 동자승을 데리고 뒷산 길을 걸었다. 소나무 뿌리가 흙 밖으로 삐죽이 튀어 나와 지나가는 발길에 걷어 채이자 어머니는 낙엽을 긁어 나무뿌리를 덮어 주었다. 산길을 조금 올라가다 널따란 바위 앞에 자리 잡고 앉은 어머니는 오래 전 이야기를 꺼냈다.

"아주 오래 전 일이지… 내가 처음 이 절에 왔을 때, 노스님 한 분이 계셨어. 그 스님은 내가 마음이 답답하여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아셨는지 내게 '마음을 다 버리고 살게나. 아직도 마음속에 무슨 욕심을 그렇게 담고 사는가. 그것이 괴로움을 낳는 것일세. 어서 버리게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는구나.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스님이셨지. 마음이 흔들려 갈팡질팡 하고 오락가락 하던 나를 붙잡아 주셨던 스님이셨는데, 지금은 극락세계에 계실 거야." 어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회상하고 계셨다.

"그리고, 한 오년 전인가, 동자스님을 만났지. 그 때 동자스님은 코흘리개였는데, 하루는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울었단다. 주지스님도 나서서 달래고 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달랬지만, 동자스님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지. 그러던 중에 내가 '동자스님, 엄마 여기 있다.' 하면서 동자스님을 품에 안고 달래자 그때서야 울음을 뚝 그치고 그 길로 잠이 들었지. 그때 나는 동자스님이 내 아들같이 느껴졌어. 너무나 슬피 울던 동자스님의 모습. 이튿날 아침 나는 부처님 앞에서 동자스님을 내 아들로 보내 준 인연에 감사한다고 기뻐하며 많이도 울었단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던 동자스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동자스님, 부처님이 계시는데 울긴 왜 우나요." 어머니는 웃소매로 동자스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어머니가 항상 내게 들려 주셨던 동자승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 있는 동자스님이었다.

절에 가면 아들이 있다고 종종 말하시던 어머니는 절에 다녀오실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보였다. 한 손에는 동자스님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내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왔다.

청설모 한 마리가 산길을 쪼르르 올라오다가 우리 일행을 만나자 꼬리를 치켜들고 황급히 나무 위로 올라갔다. 밝은 햇살이 내리는 산사의 푸르름은 어제보다 더해가고 그윽한 향내음은 코끝을 지나 산천으로 번져 가고 있었다. 동자승의 하얀 고무신은 어머니 앞에서 사뿐 거리고, 웃음 머금은 어머니 얼굴에는 초파일의 밝은 태양이 내리고 있었다.

부석사에 올 때마다 그때 일이 그림처럼 떠오른다. 그때의 동자스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헐벗고 굶주린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시길 기원한다.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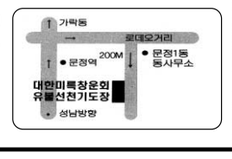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2005년 차 행사 꼼꼼히 챙겨 보세요

지난해 우리 생활 곳곳에 뿌리를 내린 차. 올 한해는 차를 '마실거리'나 '건강음료'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차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단체들이 마련하는 행사에 참가해봄으로써 차와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국내 최초로 실시되는 '차 품평사' 자격증 시험과 한국차문화협회의 15주년 기념행사, 지방자치단체들의 차 관련 시설 개관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될 2005년 차문화 캘린더를 펼쳐본다.



1월

2005년을 여는 첫 행사는 멀리 하와이에서 열린다.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1월 14일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에서 하와이 동포들이 차문화와 선수행 문화를 접할 수 있는 ■ **명원다도문화원 개원식**을 개최한다. 다도문화원은 상설전시관과 다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으로 꾸며져 있다.

1월 11일부터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고승유묵-3일간의 동안거' 전시기간 중인 1월 26일에는 박동춘 소장(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이 '한중일 선다(禪茶)문화 비교'를 주제로 우리 차문화의 특징에 대해 강의한다.



2월

2월에는 국내 최초로 치러질 '차 품평시험'이 눈길을 끈다.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와 한서대 정인오 교수(차학전공) 등은 지난해 서울 인사동에 '한국국제차엽연구소'를 열고, 연구소 산하기관인 대한민국 차품평위원회와 국제명차품평위원회 그리고 중국 절강(浙江)대학교가 공동으로 인증하는 ■ **차 품평 자격시험**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교육생들은 2월 초 연구소 자체의 차 품평시험을 치른 후 중국 절강성에서 열리는 품평사 자격시험에 참가할 예정이다.

단체별 연수도 2월에 잇달아 열린다.



4월

차밭의 녹음이 조금씩 짙어지는 4월은 차인들에게 있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다. 찻잎을 따기 시작하는 곡우(양력 4월 20일경)를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야생녹차단지 조성에 발벗고 나선 전남 나주군 다도면(면장 김근용)은 불회사에서 '제2회 다소(茶所) 석장생축제'를 열고 다신제를 올린다.

찻사발과 도자기에 관심이 많은 차인이라면 4월 23일부터 6월 19까지 열리는 ■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www.wocef.com)'** 현장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 올해는 '문화를 담는 도자'란 주제로 이천세계도자센터, 광주조선관요박물관, 여주세계생활도자관에서 국제공모전과 워크숍 등이 펼쳐진다.



5월

25회를 맞는 차의 날(5월 25일) 축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차인연합회와 명원문화재단, 한국다도협회 등 차 단체들은 이즈음 전국적인 규모의 차 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 **창립 15주년을 맞은 한국차문화협회는 차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15주년 기념식도 함께 연다. 차문화협회는 올 한 해 '올바른 옷 입기, 올바른 차 마시기'를 주제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매년 열리는 지역축제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차 문화 개발 사업도 이 시기에 선보인다.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인 보성다향제(dahyang.boseong.go.kr)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www.hadong.go.kr), 문경전통찻사발축전(fst.mg21.go.kr)은 차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연중행사다.

초의선사 탄생문화제(음력 4월 5일)를 개최하고 있는 전남 무안군은 1997년부터 40억원을 들여 진행해 온 81평 규모의 차 교육관과 시대별 차문화사를 볼 수 있는 역사관을 5월 중 개관한다.



6월

국내 최대의 차문화 행사인 '티월드 페스티벌'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다. ■ **제3회 '티월드 페스티벌'**에는 중국과 일본, 인도 등 세계 각국의 차 관련 단체와 업체들이 참가해 자국의 차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7월

보성군이 건립 중인 ■ **'한국 차 소리문화공원'이 첫 선**을 보인다. 차 주산지인 보성읍 봉산리 일대 23만여 평 부지에 조성되는 '한국 차 소리문화공원'에는 전시관과 차문화 체험장, 녹차밭,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올해 2회를 맞는 '대한민국 차품평대회'가 열려 우리 차의 경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12월

8월에는 단체별 하계 지도자 연수회, 9월에는 한국차학회(회장 신미경)의 '제19회 국제차학술 심포지엄', 10월에는 명원문화재단의 '명원차문화대상' 시상식이 각각 펼쳐진다.

11월에는 해남 대흥사에서 ■ **'제19회 초의문화제'와 '초의상 시상식'**이, 부산 범어사에서는 천태차문화보존연구회(회장 춘광)의 '제3회 천태 차문화대회'가 마련된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가 준비하는 '2005 다악 페스티벌'은 한 해의 마지막을 감미로운 다악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국내 도자 생산품 72%가 찻잔류

2004년 10월 현재 전국의 요장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제품 중 찻잔류가 72%(복수 응답)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세계도자기엑스포가 국내 도자산업의 구조와 경제지표 등을 파악하고 도자산업의 정책과 지원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 5~10월까지 실시한 '도자센서스' 결과 밝혀졌다. 도자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도자엑스포가 1월 4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요장업체는 모두 1,734개이며 종사자 수는 약 6,800여명으로 나타났다. 2003년 총 매출액은

세계도자기엑스포, 도자센서스 조사

약 2,76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요장업체의 주요 생산제품은 찻잔류(72%), 접시류(68%), 밥 · 국그릇(65%), 화기류(48%) 순으로, 찻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요장업체의 54%인 943개가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이천 · 광주 · 여주 지역에 717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남(238개), 경북(131개), 전남(118)의 순으로 요장업체가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 요장업체의 63%는 업체 종사자 수가 2명 이하이며, 56%는 연 5천만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요장업체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유통 및 마케팅, 생산 설비의 현대화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권수경 '명장의 아름다운 다도구전'

대한민국 전통목공예 명장 권수경씨(예심목공예 대표)가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대구 예송갤러리에서 '명장의 아름다운 다도구전'을 개최한다. 목공예에 입문해 나무와 씨름한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는 개인전으로, 찻숟가락, 다식판, 차반 등 다도구 1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053)426-1515

■ 김억주 도예전

문경 황담요 김억주 대표가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대구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분청사기와 백자로 만든 다완과 항아리, 다기세트 등 2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053)420-8015



건국 후 진다례 시행, 민간 '차' 생활화

고려시대 ①

찬란했던 신라문화가 석양을 맞이하고 한반도에는 신흥세력들이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시기였다. 이른바 후삼국의 판도 안에서 한쪽으로는 전쟁을 하여 영토를 넓혔다.

그 중에서도 고려는 건국 후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방 호족과 불교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어, 혼인정책과 사찰건립으로 유대를 강화했다. 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팔관회와 연등회를 국가적 행사로 시행하고, 궁중의 여러 의식에서도 진다례(進茶禮)를 행했다.

왕실에서는 신라의 지배계급에게 호의를 보이고 백성들에게까지 차와 복두(모자의 일종)를 내린 것으로 보아 민간의 차생활이 일상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당을 이은 오대(五代)로 차문화가 점차 발전해서 모문석의 <다보>나 도곡의 <천명록> 등의 다서와 함께 차를 즐기는 문인 학자들이 많았다.

①태조는 신라문화를 계승, 음다풍속을 진작시켜 모든 국가적 행사에 진다례를 행하게 했다. 특히 북조사신을 맞는 다례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② 태조 때 군민과 승려들에게 차와 향 그리고 복두를 내렸다.

③ 고려 왕실의 모든 의식과 특히 종교의식 및 대외적인 행사에는 빠짐없이 다례를 행했다.

④ 한악(844~923) 당나라 사람으로 <전당시>에 전하는 '금란밀기'에 당대 차의 제도에 관해 쓰여 있다.

마은(852~930) 오대 초국을 세웠다. 차를 팔아 크게 돈을 모아 그를 바탕으로 힘을 키웠다.

제기(863~937) 당대 승려시인으로 '시격' '백연집'이 전하고 특히 다시에서 선(禪)과의 관계를 노래했다.

왕정보(870~940) 그가 쓴 '당척언' 중에 나오는 연회석의 차 얘기를 널리 알려져 있다.

피광업 차를 아주 좋아해 '고구사(苦口師)'란 별명이 붙었다.

유정량 차를 좋아해 '다유십덕설(茶有十德說)'을 말했다.

도곡(903~970) 차를 무척 즐겨 당희와의 설수차(雪水茶) 얘기가 유명하다. '천명록'과 '다술'이 전한다.

⑤ 모문석 오대의 사람으로 '다보'(茶譜)가 전한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고려시대	918 고려의 건국 팔관회, 북조사신 맞이 다례 ① 919 법왕사, 왕륜사 등 10여 사찰 건립 921 대흥사 건립 923 양(梁)에 간 이질(伊質)이 오백나한상을 가져옴 926 발해의 멸망 929 천축의 삼장(三藏) 스님 고려에 931 태조가 경순왕에게 차를 선물하고 백성들에게 차를 내림 ② @ 왕실의 행사 및 태묘제의, 외국사신 맞이, 연등회, 팔관회 등의 행사 때 반드시 다례(茶禮)를 행함 ③ 936 신라의 멸망, 미륵사 개태사 창건 938 천축승 홍범(弘梵)이 진(晋)에서 오다 939 대경대사 현기탑비 944 후진으로 약재 수출 949 광종 즉위	907 대량(주전충) @ 한악, 마은, 제기, 왕정보, 피광업, 유정량, 도곡 등 차인 활동 ④ @ <광이기(廣異記)> <옥천자(玉泉子)> 등에 차 얘기 923 후당의 건국 935 '다보(茶譜)' 모문석 ⑤	902 제호천황이 인화사(仁和寺)에서 차를 마심 910 홍법(弘法) 영전에 차를 올리다 916 우다왕(宇多王) 축연에 다례 930 다연(茶硏) 다명(茶茗)이라는 글자가 보임 946 촌상왕(村上王)이 돈실친왕에게 차를 내림
오대			
헤이안			

불교의식 범패 · 작법 학인모집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에서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1학기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2학기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 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박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05년 3월 8일(화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 목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4년 12월 20일 ~ 2005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 입학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본원은 초정과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대불대학교(4년제 종합대학)
전통연희학과(나비춤 · 바라춤반) 신입생모집 "추가모집"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에서는 대불대학교 전통연희학과(범패 · 작법반)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20명 (범패 · 작법 및 전통무용의 특기자 스님 및 포교사, 재가불자 우선 선정)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2005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위 학력 소지자로서 전통예술에 관심이 있는 자)
● 특별전형 : **무시험. 서류전형**
● 입학특전 : 1.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교의식 범패 · 작법(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비롯한 전통무용과 풍물을 체계적으로 지도 받을 수 있음
2. **졸업 시 정규대학 (대불대학교) 4년제 학사학위 취득**
3. 졸업 후 대학원 진학 및 외국대학 유학가능
4. 졸업과 동시에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 지원서류 : 입학원서 1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접수기간 : 2005년 1월 3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통연희학과(나비춤 · 바라춤반) 모든 상담 및 접수는 본 문화원에서만 가능합니다.**
● 최초합격자 발표 : 본 문화원 홈페이지 게시판 (조회) 2005년 2월 중
대불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조회)
● 합격통지서 교부 : 대불대학교 입학 홍보처 (개별 합격 통지서 발송 -등기우편)
2005년 2월 중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 전화 : 032)529-6708 / FAX : 032)529-6709
● 대불대학교 전통연희학과 조교실 : 061)469-1385 / H·P 018-453-0308
● 홈페이지 :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http://www.bumpae.org 대불대학 http:www.daebul.ac.kr 입학 홍보처 홈페이지 주소 http://iphak.daebul.ac.kr

사단법인 인 해 전 통 문 화 예 술 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자기 심봉을 놓치지 않고 관하면서 생활해야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살려면…

문 또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참혹하리만큼 가해지는 대자연의 시련들이 더욱 새해를 어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 가까운 여러 나라에서 난리가 나서 힘들어 하는 걸 보면서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살 것 같습니까? 누가 대신 마음을 내 주고 누가 대신 살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한생각이 여러분을 괴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정녕코 제각기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는 자기 주처가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거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나가려면 공생이라야 되고, 이 몸을 보더라도 공생이어야 하고, 몸의 움죽거림을 봐도 공심이라야 하고, 몸의 움죽거림을 봐도 공용입니다. 그리고 공체이고 공식을 합니다. 그렇게 인간 모두가 더불어 살아나가는 현실입니다. 항상 그런 말을 여러분한테 해 드렸는데 그것을 어느 때는 백 번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땐가 모르게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 편안하게 사실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때문이고 차원에 따라서 분별에 따라서입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세상 진리라는 것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구리는 구리하고 첨보가 되고 금은 금하고 첨보가 되고 무쇠는 무쇠하고 첨보가 되고 훕은 훕대로 첨보가 되고, 이렇게 제각기 천차만별이 다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서 부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근본은 한군데서 나지만 갈래갈래 차원대로 끼리끼리 뭉쳐지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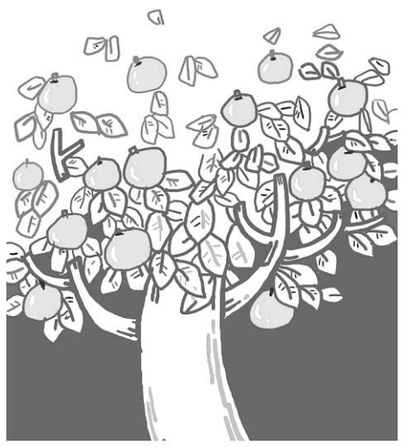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살기 힘든 분들은, 여유가 없는 분들은 마음내는 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것저것을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면, 이것은 그르고 이거는 옳다 이렇게 가면 공법은 못됩니다. 그래서 천차만별로 여러분에게 말을 어떻게 해야만 옳겠느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삼 분단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할 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여유가 없는 대로 그냥 무조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소꿉장난하다가 하루 저녁에 해가 지면 다 헤어지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아주 모르는 분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다고도 생각 마시고 그대로 편리하게 생각하세요. 편리하게 하시고 무조건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놓고, 편안하게 말입니다. 거기다 놓지 않으면, 그 기둥 자기 주장자에다 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니까요. 이 우주의 삼라만상 모두가 통신처가 거기니까요.

그래서 놓고 가되 만약에 지구의 어느 편에 무슨 일이 생겼다, 일이 생긴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편안하게 사시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내 마음이 공심으로 공생으로 살기 때문에 공용을 하고 공체로서 공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맡기면 그대로 일체가 속속들이 다 연락처가 되는 겁니다. 공심으로 공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깐 우습게 듣지 마시고 우습게 알지 마시고 자기를 진짜로 믿어라 이겁니다. 자기 껍데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처를 진짜로 믿어라 이겁니다. 지금 내면처가 아니라면 일체 부처님도 상봉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자 줄 수도 없고 먹어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고, 여러분 한테 먹고 잠자고 그래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대신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외부의, 내부나 외부나 다 살고 또 여러분의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는 데에서 남이 섭섭지 않게 생각하고 유하게 생각을 하고…. '그게 뭐 그런다고 뭐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항상 그렇게 버릇을 하면 모두 습이 그렇게 된단 얘깁니다. 그렇게 해 보지 않던 분은, 죽어도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 자기 중심을 항상 확고하게 세워 놔야 합니다. 자기가 살려면 자기 자리를 자기가 꼭 지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계적으로나 지구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심봉을 놓치지 않고 항상 관하시면서 생활해 나가시기를 꼭 당부합니다. 자기는 자기만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가족도 사회도 모두 살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나?

문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에 대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출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항상 갈등을 하다 보니 제 자신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는지요.

답 공부하는 거는 출가를 했든지 안 했든지 하는 겁니다. 출가를 하는 거는 가정을 다 버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가정을 버려야 하고 부모형제에 대한 애착을 다 버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와서는 나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철 살다 가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스님네들이, 스님네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공부 한 사람들은 생사윤회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데만 걸리지 않는다면, 철 나는 데에 사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래서 때로는 더 얽매이는 수가 있고 그래도 이 도리를 공부를 열심히 하면 펼쳐지는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문 스님께서는 책을 통해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밝힌 뒤에 책을 봐야 글자에 놀아나지 않고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의문이 있으면 되놓고 합니다만, 우연히 들렀던 법당에서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자꾸 의문이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그 하나는 바로 저의 근본을 뜻하는 걸로 생각이 들지만 그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 그래요. 우리 공부하는 거는 딱 한 구녘으로 들어가서 둘 아니게 돼야 됩니다. 한 구녘이라야만이 진정코 믿고, 오직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 일거수일투족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그놈한테, 거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원력도 오직 한군데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일체 모든 흙이든지 물이든지 구름이든지 허공이든지 모두가 일체 살아나가는 게, 하다못해 꽃 한 송이도 거기서 나오지 딴 데서 나오는 게 없다. 한군데서 나오지. 그래서 지금 물은 것처럼 '세상은 하나로 돌아갑니다' 하고 제자가 대답을 했더니 은사 스님이 그렇게 물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는 어딨는고 하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어떠한고.' 하고 물으니 '하나로 돌아갑니다' 하니까 '그 하나는 어딨는고.' 하고 물었던 거죠. 모든 게 하나 아닌 하나예요. 이 모습도 숫자가 뭐 얼기설기 수많죠. 생명들이 얼마나 많아요? 몸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 몸뚱일 보면 깨끗한 게 하나도 없고 또 더러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명, 아주 고귀한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럿이 그렇게 견뎌도 공생입니다. 모두가 같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공생이라구요. 따로 떨어져서 공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주장자에 모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장자를 놓고, 대나무 한 주장자를 놓고선 빈 속,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죠? 오직 속 빈 그릇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넣어라. 넣으면 나오는 것도 그 자리요 들어가는 것도 그 자리다. 그것이 죽비 가운데를 피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바다로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깐 나 하나를 배우는 데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버려야 된다 하는 건 믿음이 이걸 내면에, 이거를 만약에 대 주장자라고 하고 이걸 믿었다면 오직 여기 하나밖엔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열리게 하고 누구든지 그 열매를 제 나무에서 익어서 먹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아주 큰 나무도 무지하게 큰 나무인데 그거를 아예 요만하게 좁쌀 알갱이처럼 해서 우주를 담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생각하면 엄청난 문제지만 주인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깐 그 배우는 과정에 오직 너 하나가 있다면 너 하나는 너 하나에다 넣어라. 꺼내는 것도 너 하나에서 꺼내라 이겁니다.

그러게 양 무제가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달마 대사를 미워서 죽였는데, 죽여서 묻었는데 신발 한 짝은 무덤 속에 놓고 신발 한 짝은 들고 다시 나온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30면으로 계속

내 몸뚱이가 공해서 없는데 세상이 공해서 없는데

세상 살아나가는 도리를 보신다면 다 아실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곱게 가느냐, 좀 거북하게 가느냐, 아주 거북하게 가느냐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물로 죽고 불로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마음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마음은 한 찰나에 전 우주를 도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용해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은 따로따로 분별을 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공용이라고 그러죠. 공용을 하고, 때에 따라선 공체로 공심으로 공생으로 공식을 한다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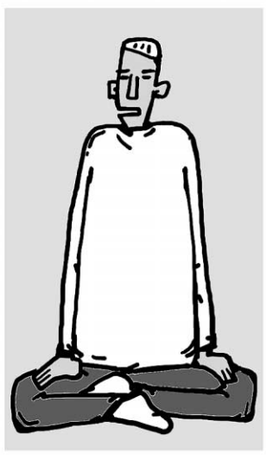
경전엔 원식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알기 쉽게 누구나가 다 알게끔 공식인 것도 똑같습니다. 이 몸 하나를 보더라도 공생으로 산다는 걸 아시죠? 공용으로 산다는 것도 아시고, 공심이 돼서 천차만별의 마음을 낼 수가 있다는 것도 아시구요. 그러면 그거를 퍼 집어서 하나로 공식으로 뭉쳐서 우리가 여여하게 해 나간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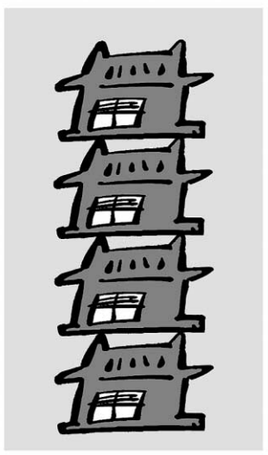
그런데 여러분이 차원에 따라서 살지만 지금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번 들었어도 이해가 가질 않는 분도 있고, 또 이해가 넉넉히 가는 분도 있고, 이해를 아주 잘해서 아주 여여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여하게 하고 알고 가고 보고 이러는 것만, 그것만이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첨보해야 됩니다. 그래 진실을 그대로 실천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오기는 어디로 왔으며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 것이 있으랴!

이런 거 있죠?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죠?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이가, 아니 살아 나온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 갈 자리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다 치워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기보다도 내 몸뚱이가 공해서 없는데, 세상이 공해서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오기는 어디로 왔으며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세요. 그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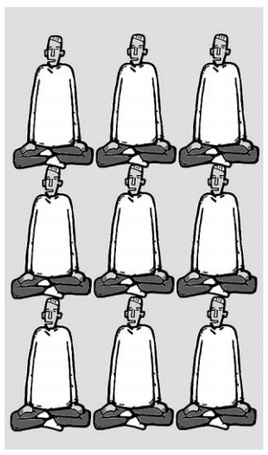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을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29면에서 계속

깐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 그릇을 얘기하는데 꼭 그릇 속에다가 그걸, 그 말을 믿고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스님의 말을 들으려면 책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죠. 아주 옛날에 선지식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을 보되 네가 책을 보지 말고 책이 너를 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는 사이 없이 봐야지 내가 책을 본다고 그러고 안다 그러고 보지 마라 이 소리죠. 오직 거기서 보게, 너를 형성시켰으니까 보는 거지 네가 보는 게 아니지 않으냐 이겁니다. 모든 게 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런 말을 별말 아닌 거같이 이렇게 해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진정코 믿고 해야 할 것은 자기만이 자기를 믿을 수가 있는 거지, 누가 대신 믿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 일을 서산 대사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오직 놓고 그 하나를 믿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과거의 너와 현재의 너가 둘이 아니니까 하고 한데 합쳐 주는 소리가 그렇게 컸단 얘기죠. 그래 우리가, 내가 아주 잘났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못났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항상 고개를 들지 말라. 고개를 들지 말고 오직 하나만이, 그 하나가 커지는 사이 없이 커져야 줄이는 사이 없이 줄어지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소리가 견성의 소리요, 만나서 배우는 그것이, 그냥 없는 색경이 거기서 절로 나와서 둥글게 에너지가 주장자가 돼서 딱 나온다면 성불입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공부해서 내 자리를 내가 찾고 내면 자리를 정말 큰 공치기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놓고 공을 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안 들으면 정말 크게 깨칠 수가 없다고. 그렇다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못나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안에서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는 거고, 하나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는 거고, 누가 하는 놈이 없이 그놈이 다 형성시켰으니깐 그놈이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도 그놈이 다 움죽거리게 에너지를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사는 거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를 공부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돼서 끊어지고 어떻게 돼서 이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깐 오직 자기 아닌 자기 한 구녘에 넣고 꺼내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되 보지 마라 이런 소리죠. 책을 보되 보지 마라. 그래서 이전에 금강경이고 뭐고 다 집어 팽개치고 태워 버리고 한소식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태워 버린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써 모든 거를 집어넣었으니 없는 거죠. 한번 봐서 집어넣어 버리니깐 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두 방편으로 배울 거는 배우고 나가면서도 배운 사이가 없고 한 사이가 없고 했다는 말이 없다 이겁니다.

믿고 맡기기만 해도 되는지요.

문 스님께서는 세 번을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주인공에 믿고 맡기는 것으로 세 번 죽기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스님께서 해 오신 바와 같이 목숨을 떼어 놓고 들어가야 합니까?

답 주인공을 일심으로 발견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막론해 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라고 할까요, 내일이라고 할까요, 오늘이라고 할까요? 어느 동자가 말입니다, 부처님과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부처님께서 동자더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자야! 내 발과 네 발의 차이가 어떠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동자의 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고?" 하고 또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동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부처님한테 가면 부처님으로 하나가 되고 부처님이 내게로 오면 나와 하나가 되니 어찌 차이가 난다 하겠습니까?" 했다."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만공에 꽃이 두루 피고 향기가 두루 나고 만 가지 맛이 나는구나. 그대로 그냥그냥 익었도다." 했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연결해서 또 물었답니다. 이 동자는 "박 넝쿨이 담 너머로 넘어가서 박이 열린 까닭입니다." 했더랍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이 또 "그래 박은 여여한가?" 했더니 "박은 제 나무에서 익어서 맛이 좋습니다." 했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고 또 물었답니다. 이리 가도 하나고 저리 가도 하나라니 말입니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고 부처님께서 잘 들으셨으면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침착하게 그 과정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경전으로 알려고 하지도 말고 내 마음 가운데서 '둘이 아닌 고로 그 하나는 담 너머로 박 넝쿨이 넘어가서 박이 열린다.' 그 박도 익었어야죠, 또. 그래야 제 맛이 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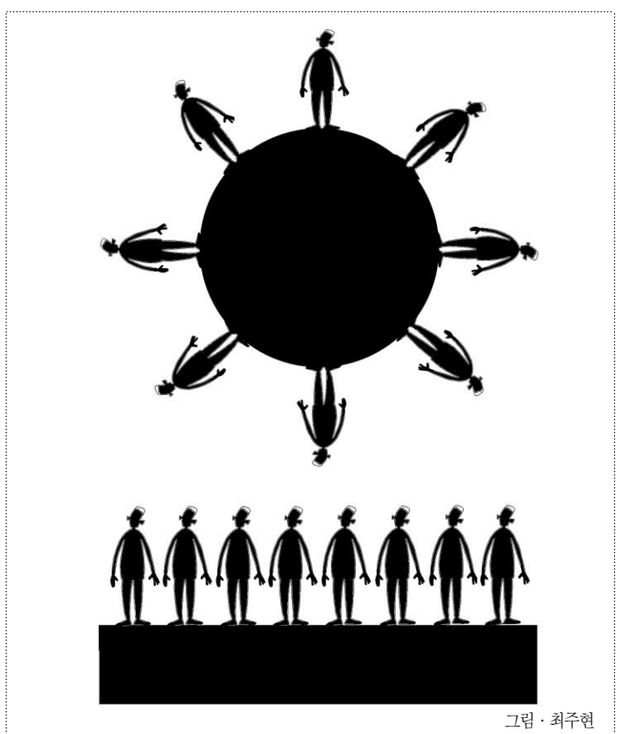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직 자기 아닌 자기 한 구녘에 넣고 꺼내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마음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없는 억겁으로 진화돼서 나오면서 그래도 선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인연이 없다면 모이질 않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손수건을 하나 들어도 인연입니다. 이 손수건을 내가 들어 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손수건이라는 이름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써 주니깐 바로 이 손수건이라는 빛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도 같이같이 만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철 나와서 만나는데 그 만남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빠지느냐 구덩이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착하게 마음을 쓰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악하게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항상 부드럽게 한마음 속에, 더불어 같이 내면이나 외부나 모든 것이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한마음 속에 모든 것을 놓으시고, 거기다 맡기시고 어떠한 억울함도, 잠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맡겨 놓고 '네놈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겉으로도, 말로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기라는 게 없어집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행동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면 아마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앞에 올 것입니다. 이 미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직접 실험해 보십시오. 실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리 절름발이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즉 무심과 유심이 절름발이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동시에 같이 돌아간다는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와 동시에 돌아가죠? 어디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눈과 귀가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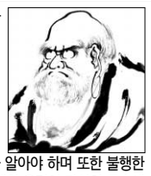
그러니까 동시에 악도 선도 거기 놔라. 악한 거는 '선하게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으냐.' 하고 놓고, 선하게 돌아가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모든 거를 한군데다가 놓는 것이 자기가 공해서 본래 없는 것이기에 따로 없다 이 소립니다. 따로 내가 없는데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돼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불장군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알 때까지는 모든 것을 '내가 따로 없으니까' 하고 거기다 놔라 이겁니다. 그게 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따로 없는 반면에 모두가 하나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안 그렇습니까? 공생이며 또는 공체며 공용이며 공식화 하고 모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 도리를 완전히 알게끔 하려면 겉으로,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서 '한 마음 속에서 모든 게 들이고 내는 그 무쌍한 만법이, 그대로 더불어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둘이 아니게 말입니다. 그거를 진심으로 자기 속으로 확철히 알려면 거기다가 또 놓고 돌아가야 하니까, 또 두 번째도 죽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죽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세 번째도 같이 돌아가면서 서로가 인연에 따라서 손수건을 쥐었으면 손수건을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땀을 닦는 겁니다. 어디를 씻든지. 그러면 나와 수건과 인연이 마주쳤기 때문에 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발전의 작용입니다. 발전의 작용! 그렇기 때문에 나툰다고 하는 겁니다. 나툰다.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땀이 나면 손수건을 들고, 말소리를 내려면 마이크를 들고. 일체 만 가지 만물이 다 나 아님이 없이 나투면서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알려면 또 놓고 가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죽어야 하고, 두 번도 죽어야 하고, 세 번도 죽어야 구경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 내가 죽지 않는다면 전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치도 모를 거고,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 원리가 바로 공했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한 번도 죽어야 하고 두 번도 죽어야 하고 세 번도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동자가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 발과 그 어린 동자의 발과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 받는 중생의 앞일을 밝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또한 불행한 운명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중생은 그 불행한 운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떠나야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관음사는 아프고 고통받는 중생들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스님과 상담하고 기도하는 법당이며 스님은 삶의 굴곡을 겪고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 답답함과 고민을 스님의 도력으로 그 불행한 운을 퇴마시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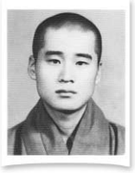
- 굿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을 가서 점을 봐도 시원치 않는 분
- 하는일이 되는 노릇이 없고 덕과복이 없어 고통에 사시는 분
- 신들림으로 몸이 아프거나 꿈에 영가가 자주 보이시는 분

"혼자서 고민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오"
스님을 친견하면 큰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천도란 첫번째는 3악도에 떨어져 있는 가장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고 두번째는 인간몸을 받았지만 뭐든지 되는 노릇이 없고 내뜻에 맞지 않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천도란 자기소원을 이루고 가지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을 친견하면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지장사 주지 고봉 합장
전화 011-715-6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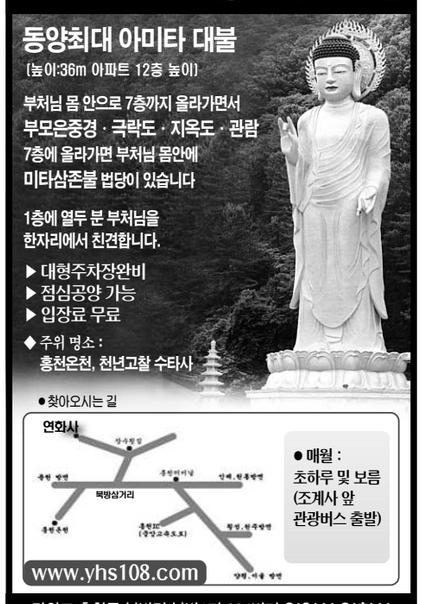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빕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나,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제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한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효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없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꼭 한번 래원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
TEL. 031)376-2748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당하당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담뱃값이 인상돼, '이번에야말로' 라고 생각하며 금연을 연간 목표로 세운 사람들이 많다.
담배를 끊는데 불자라고 더 쉬울까. 하지만 금연에 성공한 불자들은 하나같이 다른 방법이 없다며 담배를 끊는 데는 강한 결심이 최고라고 입을 모은다. 굳게 마음먹은 순간 칼 같이 끊는 것이다. "방법이 없어요. 자꾸만 마음을 가다듬고 담배를 가까이하지 말아야 해요." 우철제(48 · 前서울 구로승무사무소 전 법우회장)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루 한 갑 넘게 피우던 그가 금연 결심을 한 것은 95년. 하지만 처음 시도한 이 결심은 얼마못가 '한 개비의 유혹'에 무참히 넘어갔다고 쑥스러워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딱 한 개비만 더'가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마음속에 여지를 남겨두다 보면 '열흘에 한 개, 일주일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점점 가속이 붙어서 어느새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지요."

명상 · 자연식품으로 금연 성공하기

■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음식

금연을 한다 해도 체내에 축적된 독소는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니코틴과 각종 유해물질로 오염된 체내의 독소를 빠른 시간 안에 빼내고 몸을 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따로 있다.

<밥상에 道가 있다>의 저자인 정세채 교수는 전통적으로 진해거담(鎭咳祛淡)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된 음식류를 권했다. 특히 복숭아는 비타민과 기능성 알레히드 유도체가 많이 있어 면역력 증강과 항암 효과가 있고 빠른 시간 안에 니코틴을 배출시

복숭아 씨 · 금전초, 해독에 효과
현미 · 잡곡밥은 끽연충동 억제

킨다. 그중에서도 특히 복숭아 속 씨는 폐를 튼튼하게 한다. 복숭아 속 씨 1kg을 볶아서 부드럽게 가루 내어 꿀 2kg에 고루 개어 두었다가 한 번에 한 숟가락씩 하루 세 번 먹으면 기침을 멎게 한다. 우리말로 '긴병꽃풀이'라 불리는 금전초도 니코틴 해소효과가 뛰어나다. 말린 이 식물을 하루 30~50g 달여 물대신 마시면 그동안 쌓였던 니코틴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다.

금연을 시작한 후에는 식탁 위를 현미와 콩류, 잡곡밥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식사량을 줄이면 혈당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 · 녹차 등 수시로 섭취

△ 물을 많이 마셔라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전국 회장을 역임한 박영조(63)씨는 "흡연 욕구가 들 때마다 물을 많이 마시라"고 조언한다. 물은 몸속에 축적된 니코틴 등 유해물질을 녹여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물, 특히 약한 알칼리 수를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좋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도 니코틴과 결합해 독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따라서 흡연욕구가 생길 때마다 물이나 녹차, 과일주스 등을 수시로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다.

박씨는 운불련 회원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던 버릇을 바꾸기 위해 물을 한잔씩 들고 나갔다. 예전에는 담배를 함께 나눠 피우지 않으면 대화에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연을 시작한 이후로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니코틴은 '스트레스' 주범

△ 흡연욕구 극복해야 진정한 금연

흔히 애연가들은 스트레스 해소 때문에 담배를 끊지 못한다고 말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피우면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세일 뿐이다.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던 니코틴이 금연으로 인해 공급되지 않으면 신경계가 혼란스러워져 신경과민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쾌감만으로 담배를 찾게 된다. 즉,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고 믿고 있는 담배가 사실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을 잘 살펴 흡연욕구가 일어날 때 극복해야 진정한 금연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생각' 관찰 · 호흡 조절로 극복

△ 담배 욕구가 강렬할 땐 명상을

2002년 서울 도봉구보건소에서 '명상을 통한 금연교실'을 열었던 김정호 교수(덕성여대 건강심리학과)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온전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호흡 감각에 집중하면서 매순간 다른 생각이 들면 재빨리 이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루 20~30분만해도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위빠사



나 수행법을 강의하는 김열권씨는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도 하나의 감각으로 생각해 관찰하라"고 조언한다. 조용한 곳에 앉아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숨을 들이쉴 때와 내 쉴 때를 관찰한다. 서서히 호흡하며 흡연 욕구가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피다보면 금연욕구를 한 풀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간절할 때는 차분한 마음으로 이 같은 위빠사나 금연법을 사무실이나 차안에서 잠깐씩만 행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비 기자



신체 질병은 마음에서 시작

불교적 세계관에 기초 현대의학 대안으로 주목

연재에 들어가며

오늘날 서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유물론적 질병관과 건강론에 일대 변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 진원의 하나는 바로 치유와 더불어 영성을 아우르는 고대 인도 및 티베트의 전통의학 사상이다.

세계 4대 전통의학의 하나인 티베트의학에서는 인체를 단순한 생명유지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몸(body), 마음(mind), 그리고 얼(spirit)의 전인적 건강성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편, 즉 우리 인간의 가장 지고한 가능성에 이르는 교량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티베트의학에서는 신체를 포함한 물질세계(색계)는 대부분 개인마다의 사적인 지각(perception)의 산물이며, 신체를 질병이나 건강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티베트의학은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전체성의학, 전일의학, 전인의학, 통합의학 등으로 표방하는 새로운 세계의학의 흐름에 충실한 '오래된 미래의학'의 한 전범이라 할 수 있겠다.

마침 근래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건강의 상태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함을 말한다"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참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기존의 건강(health) 개념을 새로 개정한 바 있다. 아마도 티베트의학이야말로 그러한 WHO의 '건강' 규정에 충실하고, 완성도에 있어서도 세계 어느 전통의학에도 전례가 없는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이자 21세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 의학상의 한 전범임에 틀림없다.

티베트의학은 기본적으로 불교적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 티베트의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의서인 <감로정요팔지비결속>(이하 '사부의전')은 네 부의 경전, 총 156장 5,900송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불경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사부의전에는 발생학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물학 진단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정신과학 외과학 독물학 노인병학 양생학 그리고 불임학 등 현대의학에서 세분화된 거의 대부분의 의학분과들을 망라하고 있다. 그리고 티베트의학에는 고대 페르시아-희랍의학에서 인도 아유르베다의학, 그리고 중의학 등 인접 주요 문화권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당대의 최신 의학지견들이 집약되어 있다.

2,500 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서구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학의 보고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티베트의학의 면면을 독자들에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가급적 평이한 문체로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티베트 의학은 요즈음 화두로 떠오른 '참살이(well-be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물질적 풍요 속에 날로 피폐해지는 현대인의 정신적 빈곤을 채울 감로와 같은 자양분이다.

박물관에 한갓 역사적 유물로 전락한 '화석 의학'으로서가 아니라 북인도 라다크에서부터 네팔, 부탄, 시킴, 티베트 등의 히말라야 불교 문화권과 몽고, 중국 동북3성, 구소련의 바이칼호 부리야티아공화국에 이르는 광대한 중앙아시아지역까지 온갖 병고와 무명으로 시달리는 중생 구제에 엄연한 '제도권 의학'의 한 축으로 살아 숨 쉬는 티베트의학. 그 티베트 의학의 지혜가 현대불교신문의 독자 여러분과 이웃에 한가닥 청량한 법음으로 각인되어 두루 회향되기를 간절히 발원하며 글을 쓰고자 한다.

■ **김재일 교수는** 1956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83년 전남대를 졸업하고 86년 고려대 대학원을 마쳤다.

95년 독일 빌레펠드(Bielefeld)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아주대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연구강사를 거쳐 현재 조교수로 재직 하고 있다. 최근 문을 연 '한국티베트의학원'의 원장도 맡고 있다.

주지 직인 무효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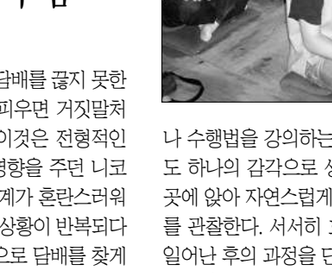
● 사찰명 : 보광사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63-9번지

● 사찰명 : 보광사
● 주 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 2동 1858번지

위 사찰들의 이전 직인은
2004년 12월 23일부로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모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불교TV를 사랑해 주시는 불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Btn 불교TV